

세미나 발표자료

• 310, 121
통148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

-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1997. 11



통 계 청·한국인구학회



- 목 차 -

○ 행사일정	
○ 농촌인구의 변화와 전망	1
(김남일 동아대학교 교수)	
· 발표원고 요약	49
○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정책방안	55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발표원고 요약	82
○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	87
(구성열 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원고 요약	125
○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	129
(김병조 국방대학원 교수)	
· 발표원고 요약	159

○ 행사일정

일 시	일 정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40	개회식 · 개회선언 · 인사말씀 (통계청장, 한국인구학회장)
13:40~15:30	주제발표(I) 및 토론 ○ 사 회 : 최진호 (아주대학교 교수) ○ 발표주제 : 농촌인구의 변화와 전망 - 발 표 : 김남일 (동아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발표주제 :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정책방안 - 발 표 :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토 론 : 민경희 (충북대학교 교수)
15:50~17:40	주제발표(II) 및 토론 ○ 사 회 : 박래영 (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주제 :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 - 발 표 : 구성열 (연세대학교 교수) - 토 론 : 남춘호 (전북대학교 교수) ○ 발표주제 :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 - 발 표 : 김병조 (국방대학원 교수) - 토 론 : 차종천 (성균관대학교 교수)
17:50~18:20	다과회

발표자료 I

농촌인구의 변화와 전망

동 아 대 학 교

김남일 · 최순 교수

농촌인구의 변화와 전망

- 지역단위별 분포의 분석 -

김남일 · 최순

(동아대학교 인구및지역발전연구소)

1. 서 론

1960년에 약 2,500만 명이던 한국의 인구는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95년에는 4,500만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통계청, 1997:14). 이 사실은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구성장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러나 지난 30년동안 한국이 경험했던 인구성장추세는 이를 도시와 농촌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두 지역은 인구성장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0년 당시만 해도 도시로 분류되는 시부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로서 전체인구의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5년에는 한국의 시부인구는 총인구 4,460만 명 가운데 78.5%가 되는 3,5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1960-95년 기간중 시부인구는 약 2,800만 명이 늘어난 셈이 된다. 이 기간중 우리 나라 전체인구가 약 2,000만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60-95년 기간중 한국의 인구성장은 전적으로 도시인구의 성장이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읍·면 단위의 인구는 1960년의 약 1,800만 명으로부터 1995년에는 957만 명으로 그 절대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 사실은 지난 1960년 이래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도시사회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1960년 이래 극히 짧은 기간에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다. 공업화로 인해 우리는 보다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화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바꾸어 놓았다.

주로 인구의 도시화로 야기된 이러한 공간적 변화로 한국인들은 종래와는 크게 다른 가치 속에서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 주었던 기존의 사회구조는 부분적으로 많은 체제 부적응의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부지역에서 이와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노출되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시부지역보다는 군부지역에서 체제부적응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농촌문제의 대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도시화와 공업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주로 인구이동으로 야기된 농촌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농촌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주로 인구의 농촌이출현상과 관련된 인구이동은 농촌의 기존체제가 갖는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켜 놓았으며, 국민 대다수의 삶의 터전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종래의 삶과 관련된 기존의 가치를 뒤바꾸어 놓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은 상호의존적·보완적 관계를 갖기보다는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의 인구는 지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적어도 인구특성 면에서 지역간에 이질성을 심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정책은 유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격히 변모하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제반 변동의 실상과 유형, 그리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3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인구이동을 농촌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동시에 농촌인구의 특성과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인구에 관한 연구는 전체 농촌인구의 특성과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춘 총괄적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인이나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총괄적 분석에서는 평균적인 농촌의 인구문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각 지역단위 고유의 농촌 인구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지역단위의 농촌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인구구조와 관련된 특성별 지역단위의 분포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다변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는 1960-1995년 기간의 인구총조사 보고서 전국 및 각 시도편과 인구이동편, 그리고 1990년 및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자료 테이프가 주로 사용되었다. 2% 표본자료는 통계청에서 단순무선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한 표본으로 승수 없이 사용되었다. 다만 표본인구의 연령 및 성별구조를 검토한 결과 군인 등의 특별조사구 인구가 표본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외 각 군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각 시도의 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동인구의 추정은 인구 총조사의 만 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한 5년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이동인구는 인구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만 5세이상 인구중의 인구이동을 뜻한다. 0-4세 이동인구를 추정하는 인구학적방법이 있으나(UN), 0-4세 이동인구가 본연구에서 특별한 의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 추정이 생략되었다.

인구이동 조사방법상의 차이를 검토키 위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인구총조사에서의 5년전 거주지 조사방법을 비교한 바 질문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사원 교

육을 통하여 적절히 대처할 경우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990년과 1995년 조사직전에 큰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가동의 추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구가동의 추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대체로 행정구역 개편은 시권역을 확대 또는 행정단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정방법은 시·도내의 인구가동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1995년에 시행된 40개의 도·농 통합시는 시·도내 이동인구수에 큰 영향을 주어 인구가동 추세 파악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광역시의 시권역 확장은 해당 광역시의 시·도내 인구가동수는 증가시키지만, 시·도간 인구가동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권역의 확대나 통합은 시·도간 이동인구수에는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동형태별 이동수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군부→군부 이동인구수는 감소시키지만 시부→시부 이동수는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외의 이동형태에서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당면했던 자료상의 중요한 제한점은 이동인구의 특성이 이동 당시의 특성이 아니고 이동한 후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특성중 학력수준은 비교적 문제가 없으나,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족구성과 특히 직업, 주택소유 등은 이동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이들 특성별 구성에 대한 분석은 특성별 이동성향의 파악보다는 조사 시점에서의 단순한 전체인구와 이동인구의 특성별 구조 비교,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 지역내 전입 및 전출인구의 차이 비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적 차원에서 농촌인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특성별 인구의 분류는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부와 군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를 다시 세분하여 집계한 읍부와 면부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농촌인구를 군부인구와 동일시하거나, 면부인구만을 농촌인구로 간주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특성별 인구분석의 초점이 주로 도시인구의 형성과 성장에 두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분석의 초점을 농촌인구에 둘 경우, 농촌인구를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 문제는 농촌인구가 도시화 및 공업화와 연계되어 변모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할 경우 군부에 포함되어 있는 읍지역의 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논쟁점이 된다. 대체로 1970년대 이전에는 읍부인구나 면부인구가 인구구조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특성면에서 서로 유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읍부 인구의 성격이 면부보다는 오히려 시부인구의 성격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권태환, 1992: 41), 행정구역상으로는 군부보다는 면부만을 농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에서 인구가동을 분석하

거나, 인구센서스 자료이외에 각종 행정통계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고자할 경우는 자료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농촌인구의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하는 본 연구에서는 편이상 두 형태의 농촌인구를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역단위별 인구 구조 및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분석하고자하는 일련의 설명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일 경우는 부득이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을 기술하고자할 때는 면부인구만을 농촌인구로 간주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연구방법은 대체로 1변수 혹은 2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다만, 인구성장수준과 지역특성의 연관성 분석에서만 다변수 분석기법중 판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판별분석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용가능한 자료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요인분석모형(Causal model)을 구성하기 어려웠고 또한 분석의 목표도 주어진 자료한도 내에서 집단간 최대한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율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Shryock et al., 1973: 654-656).

$$\text{총이동인구} = \text{시} \cdot \text{도내이동인구} + \text{시} \cdot \text{도간이동인구}$$

$$\text{이사인구비율} = \frac{\text{지역, 기간내 이사 인구수}}{\text{지역, 기간말 인구수}} * 100$$

$$\text{성비} = \frac{\text{남자 인구수}}{\text{여자 인구수}} * 100$$

$$\text{이동율} = \frac{\text{지역, 기간내 이동 인구수}}{\text{지역, 기간말 인구수}} * 100$$

$$A\text{지역 전입율} = \frac{A\text{지역, 기간내 전입인구}}{A\text{지역, 기간 평균인구}} * 100$$

$$A\text{지역 전출율} = \frac{A\text{지역, 기간내 전출인구}}{A\text{지역, 기간 평균인구}} * 100$$

$$A\text{지역순이동율} = A\text{지역 전입율} - A\text{지역 전출율}$$

$$A\text{와 } B\text{지역간의 이동효율} = \frac{A\text{와 } B\text{지역간 순이동인구}}{\text{지역간 총이동인구}} * 100$$

$$A \text{와 } B \text{지역간의 조인구교환율} = \frac{M_{ab} + M_{ba}}{A \text{지역인구} + B \text{지역인구}} * 100$$

단, M_{ab} = B에서 A로의 이동인구, M_{ba} = A에서 B로의 이동인구

$$\text{연평균 인구증가율: } r = \text{Antilog}((\log \frac{p_t}{p_0})/t) - 1$$

2.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 총괄분석

2.1 농촌 인구규모의 변화

1960년이래 관찰되는 중요한 인구변화는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인구의 급속한 팽창과, 이와는 대조적인 농촌인구의 절대수 감소이다. <표 2.1>은 도시와 농촌간 인구분포의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1960년 당시만해도 한국에서 농촌인구(면부인구)는 전국인구 약 2,500만명중 63%(읍부인구까지 포함하면 군부인구는 72%나 됨)가 되는 1,570만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형적인 농촌인구로 간주되는 면부인구는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전체인구가운데 50%를 밑도는 비율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에서 농촌인구는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수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0년에는 총인구의 17.3%인 750만명으로 줄었으며, 1995년의 면부인구는 1960년에 비해 무려 61.4%, 혹은 970만명이 감소한 600여 만명 혹은 총인구의 13.6%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에서 면부인구가 크게 줄게된 원인은 대체로 면부인구의 도시로의 이주와 시부지역의 확대, 그리고 면부지역의 읍으로의 승격 등 세 요인이 된다. 이 사실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부인구의 증가수가 총인구의 증가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면서 주변지역을 흡수하여 시경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종래는 행정구역상 읍으로 분류되던 읍수가 1960년의 85개이던 것이 1985년에는 200개로 증가했으며, 1990년의 경우는 189개가 읍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최진호·최병선, 1993:5-6)로부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시에 면부인구로 대표되는 한국의 농촌인구가 주로 이들 세 요인에 의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도시인구의 성장과정에서는 이들 세 요인중에서 면부인구의 도시 전입에 따른 효과가 가장 컸다는 사실이 면부인구가 도시인구와는 구성과 특성면에서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2.1> 시·군부 인구분포와 연평균 인구증가율, 1960-95

(단위: 천인,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인 구 수)							
전국 ¹⁾	24,989	29,160	31,435	34,679	37,407	40,420	43,390	44,554
시부	6,997	9,780	12,929	16,770	21,409	26,418	32,290	34,992 ²⁾
군부	17,992	19,379	18,506	17,909	15,998	14,002	11,100	9,562
읍부	2,259	-	2,850	3,724	4,537	4,815	3,602	4,481
면부	15,734	-	15,654	14,185	11,461	9,187	7,498	6,081
	(구 성 비)							
시부	28.0	33.5	41.1	48.4	57.2	65.4	74.4	78.5
군부	72.0	66.5	58.9	51.6	42.8	34.6	25.6	21.5
읍부	9.0	-	9.1	10.7	12.1	11.9	8.3	7.9
면부	63.0	-	49.8	40.9	30.7	22.7	17.3	13.6
	(연평균 인구 증가율)							
전국	-	2.69	1.90	1.98	1.50	1.56	1.43	0.53
시부	-	5.91	7.23	5.34	4.92	4.29	4.10	1.62 ²⁾
군부	-	1.29	-1.15	-0.65	-2.20	-2.63	-4.54	-2.94
읍부	-	-	2.39 ³⁾	5.50	3.96	1.20	-5.64	4.46
면부	-	-	-0.05 ³⁾	-1.95	-4.11	-4.33	-3.98	-4.10
	(행 정 단 위 수)							
시부	27	32	32	35	40	45	73	73
군부	134	139	140	138	139	139	137	98
읍부	75	91	91	122	204	200	189	193
면부	1,448	1,382	1,382	1,349	1,256	1,255	1,265	1,240

주: 1) 외국인 제외

2) 광역시와 통합시의 읍·면 인구수 3,210천인이 군부 인구에 포함됨.

3) 1960-1970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경제기획원, 1960, 1970, 1975, 1980, 1985 각연도별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2.2 성·연령별 인구구조

<표 2.2>는 여자인구 100명에 대한 남자인구의 비로 계산되는 성비가 전국의 경우 1975년 101.2에서 1995년 100.7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면부의 경우 1975년 103.0에서 점차 낮아져서 1995년에는 98.8명으로서 여자인구가 조금 더 많아진다. 이와같은 경향은 1975년에 99.6이던 성비가 1985년 99.2, 1990년에는 100.6, 그리고 1995년에는 101.2로 조금씩 높아지는 도시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변동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면부인구의 연령별 성비는 매우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0-4세 인구가 각 연도별로 도시와 농촌간에 비슷한 수준의 성비를 보여 주는 것과는 달리, 면부 지역에서 20대와 30대의 젊은 노동력인구는 최근에 이르면서 성비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이 가운데서 20-24세에 해당하는 면부인구의 성비를 보면 1975년에 139.5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1985년에는 189.6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1990년에는 187.7, 그리고 1995년에는 173.5로서 약간 낮아졌으나,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표 2.2 참조). 이 현상은 면부인구중 이 연령층의 여자인구가 도시로 특별히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20-30대의 비교적 젊은 노동력인구와는 달리 40대후반이후의 노동력인구의 성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밖에 면부 지역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 역시 최근에 이르면서 점차 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면부지역 60세이상인구의 성비는 전반적으로 시부와 읍부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이와같은 성비의 연령별 유형의 변동은 <도표 2.1>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농촌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밋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는 적어도 1995년의 우리 나라 농촌(면부)에서는 찾아 볼수 없다. 우리 나라 농촌의 경우 1975년까지만 해도 20대후반과 30대초반, 그리고 5세미만인구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형적인 피라밋모양의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도표 2.1>을 보면 면부지역 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은 지난 1975-85년 기간중 크게 달라졌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의 면부인구의 성별·연령구성을 보면 1975년과 비교해서 55세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반해 25-49세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노동력인구가 전체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10세미만의 유소년인구층의 구성비율이 낮다. 그 결과 1995년 면부(농촌)의 인구피라밋은 20년전인 1975년과는 매우 다른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표 2.1>를 보면 적어도 1975년 이후 읍부인구는 면부인구보다는 시부인구와 더 유사한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시부인구와 읍부인구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인구구조를 보여준다. 이 점을 고려하면 농촌인구의 분석은 자료상의 제약으로 설명적인 연구분석에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분석은 면부인구에 국한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975-1995년간 20년동안 일어났던 시부와 면부지역 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성의 변화를 보면 <표 2.3>과 같다. 1975년이래 면부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는 시부인구와는 달리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비율의 급격한 감소와 65세이상 인구비율의 급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표 2.2> 연령별 성비의 변화: 1975-95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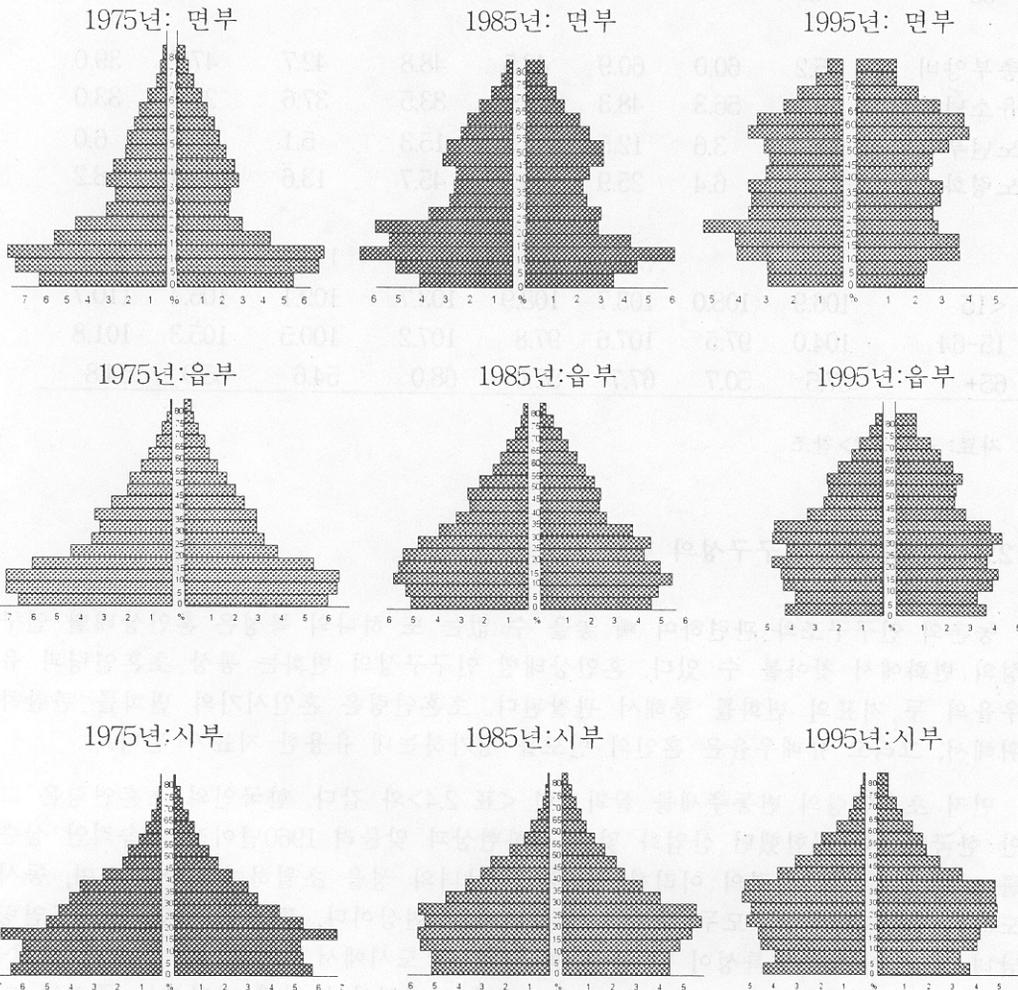
연령	1975		1985		1990		1995	
	전국	면부	전국	면부	전국	면부	전국	면부
0-4	107.4	107.4	108.0	106.5	111.2	110.4	113.4	114.0
5-9	107.0	105.9	107.1	103.8	107.3	103.9	110.7	107.3
10-14	107.8	107.5	106.7	102.0	106.0	100.2	106.4	101.0
15-19	105.0	115.3	106.6	118.9	103.9	107.2	105.9	106.2
20-24	106.6	139.5	106.1	189.6	109.2	187.7	108.3	173.5
25-29	102.9	117.4	99.2	113.4	99.5	123.2	100.9	125.5
30-34	103.5	97.3	104.2	104.1	103.8	109.4	103.0	111.8
35-39	103.1	96.8	105.4	105.8	106.1	105.6	103.6	110.6
40-44	96.8	91.4	102.8	91.4	107.4	103.7	105.9	103.7
45-49	86.8	82.8	99.7	89.9	102.3	87.6	104.9	98.5
50-54	92.9	90.6	91.4	85.1	97.9	87.5	99.4	84.0
55-59	91.7	92.3	79.3	79.0	88.3	82.8	93.3	83.0
60-64	83.0	88.2	77.7	83.9	74.7	77.3	82.0	78.5
65-69	73.4	80.2	73.7	83.9	71.6	80.3	67.5	71.5
70-74	61.0	68.7	61.3	73.0	64.5	75.9	62.6	72.1
75-79	50.2	56.7	49.6	57.4	51.3	61.0	54.4	64.2
80+	32.2	43.1	31.7	35.7	34.1	37.8	35.8	41.0
계	101.2	103.0	100.2	102.7	100.7	101.6	100.7	98.8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및 통계청, 1975, 1985 1990 및 1995년도 인구 및 주택조사보고서

농촌지역에서 15-64세의 노동력인구를 제외한 유소년 및 노년부양인구에 해당하는 연령층 인구의 구성비율의 변화는 도시인구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변화의 폭도 매우 크다. 예컨대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는 면부의 경우 1975년에 41.1%이던 것이 1995년에는 18.4%이지만, 시부의 경우는 1975년의 35.2%로부터 1995년에는 23.7%로서 감소폭이 면부에 비해 훨씬 적다. 이와같은 경향은 65세이상의 노령인구의 구성비에서도 볼 수 있다. 즉 65세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율 역시 면부에서는 1975년에는 4.9%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는 13.9%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는 1975년에 2.3%로부터 1995년에는 4.3%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농촌인구의 이와같은 연령구성의 변화는 농촌인구의 총부양부담을 1975년 85.2에서

1995년 47.7로 크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틀어 농촌인구의 고령화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20년동안 관찰될 수 있는 노년부양비의 변화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노년부양비는 1975년에 9.1이던 것이 1995년에는 20.5로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또한 면부지역의 노령화지수는 1975년에 12.0이던 것이 1985년에는 25.9로,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에는 각각 45.7과 75.4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인구와는 달리 도시인구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1975년에 6.4이던 것이 1985년에는 10.2로, 그리고 1990년에는 13.6으로, 다시 1995년에는 18.2로 극히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낸다.



<도표 2.1> 면, 읍 및 시부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의 변동

<표 2.3> 거주지역별 인구의 연령구성과 관련된 주요지표의 변화

주요지표	1975		1985		1990		1995	
	면부	시부	면부	시부	면부	시부	면부	시부
	(연 령 계 층 별 구 성 비)							
<15	41.1	35.2	30.0	29.7	22.5	26.4	18.4	23.7
15-64	54.0	62.5	62.2	67.3	67.2	70.1	67.7	71.9
65+	4.9	2.3	7.8	3.0	10.3	3.6	13.9	4.3
총부양비	85.2	60.0	60.9	48.5	48.8	42.7	47.7	39.0
유소년부양비	76.1	56.3	48.3	44.0	33.5	37.6	27.2	33.0
노년부양비	9.1	3.6	12.5	4.5	15.3	5.1	20.5	6.0
노령화지수	12.0	6.4	25.9	10.2	45.7	13.6	75.4	18.2
	(성 비)							
<15	106.9	108.0	103.7	108.9	103.7	109.1	106.4	110.7
15-64	104.0	97.5	107.6	97.8	107.2	100.5	105.3	101.8
65+	67.5	50.7	67.7	52.0	68.0	54.6	65.0	54.8

자료: <표 2.2>참조

2.3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농촌의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성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는 통상 초혼연령과 유배우율의 두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관찰된다. 초혼연령은 혼인시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배우율은 혼인의 빈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먼저 초혼연령의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산업화 및 도시화현상과 맞물려 1960년이래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초혼연령의 이러한 상승세는 남녀의 성을 초월하여 일어났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모두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한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전통적인 특성이 더 강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도시-농촌간에서 볼 수 있었던 이와같은 초혼연령의 차별현상이 성에 따라서는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표 2.4> 성별 초혼연령의 변동: 1955-95

(단위: 세)

연도	면부		군부		시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55	-	-	24.3	20.1	25.5	21.5
1960	-	-	24.9	21.0	26.8	22.8
1966	-	-	26.1	22.0	27.7	24.0
1970	26.8	22.6	26.8	22.6	27.5	23.8
1975	27.1	22.8	27.1	22.9	27.6	24.2
1980	27.4	23.4	27.3	23.5	27.4	24.3
1985	28.1	23.9	27.9	24.0	27.8	25.0
1990	29.5	25.2	29.0	25.1	28.4	25.5
1995	30.1	25.5	29.6	25.4	29.3	26.2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해당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미혼인구비율을 기초로 산출한 평균초혼연령(SMAM)임.

<표 2.4>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면부인구의 경우,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1975년 까지는 시부인구의 초혼연령 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서 관찰되던 초혼연령의 이러한 차별현상은 198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1966-80년 기간 시부남자의 초혼연령이 정체 내지는 하향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시부의 남자인구에서 관찰되는 1980년의 하향세는 1950년대의 베이비붐의 여파가 남녀간 초혼연령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최순, 1983).

이와같은 해석은 1985년이후 계속하여 시부지역 남자의 초혼연령이 계속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1985년이후 시부와 면부간 초혼연령의 변동추세를 보면 남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며, 남자의 경우 시부 보다는 면부의 초혼연령이 훨씬 더 높다. 더욱이 1995년의 남자의 평균초혼연령을 보면 종래 시부인구로 분류되던 동부인구의 경우 29.3세인데 반해, 읍과 면이 포함된 군부의 경우는 29.6세, 그리고 면부의 경우는 30.1세로서 농촌남자의 초혼연령이 도시에 비해 더 높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은 적어도 1980년이래 한국에서 농촌남자들이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농촌인구, 특히 농촌 남자들의 이와같은 초혼연령의 변동추세는 유배우율의 변화추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유배우율의 변동을 연령별로 관찰해 보면, 남자의 경우 면부와 시부 모두 3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유배우율이 최근에 이르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35세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폭이 작아진다(표

2.5 참조). 이와같은 경향은 여자의 경우도 같으나, 남자보다 5세가 낮은 30세 미만의 인구에서 감소비율이 비교적 크다. 또한 여자의 경우는 시부와 면부 모두 35세 이상 고연령층의 유배우비율은 최근에 이르면서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표 2.5> 성 및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동: 1966-1995

(단위: %)

연령	면 부				시 부			
	1966*	1975	1985	1995	1966	1975	1985	1995
남자								
15-19	0.7	0.4	0.2	0.2	0.2	0.2	0.1	0.2
20-24	12.4	7.8	4.5	3.0	5.4	6.2	5.8	3.6
25-29	67.8	55.1	45.7	31.0	49.4	50.4	49.0	35.4
30-34	97.6	93.2	87.6	72.4	90.0	91.3	90.0	80.3
35-39	97.5	97.3	94.3	86.2	97.0	97.3	96.1	91.8
40-44	97.5	97.7	95.7	90.5	97.5	97.7	97.1	94.4
45-49	96.8	97.3	96.5	92.6	96.9	97.0	97.1	94.9
여자								
15-19	5.3	3.9	1.3	0.9	1.8	1.7	0.7	0.7
20-24	57.9	46.7	36.6	20.3	33.1	31.7	25.4	15.8
25-29	94.4	92.3	86.4	75.5	83.8	84.0	79.3	68.7
30-34	95.4	96.6	95.7	93.1	91.4	93.0	92.6	91.0
35-39	90.5	94.9	94.9	93.3	87.0	91.8	92.8	92.0
40-44	84.1	90.3	92.2	91.3	80.1	86.2	89.7	89.9
45-49	76.9	81.9	88.4	88.0	71.4	76.0	84.5	86.1

* 읍을 포함한 군부자료임.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6, 1975, 1985년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2.4 교육수준

우리나라의 인구는 성·연령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해방후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세대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졌다(최순, 1985; 김태현외, 1993). 이와같은 교육수준의 상승현상은 농촌의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라 각자가 경험한 교육기회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인구의 연령구성이 전체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교육수준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별로 특정 연령층인구의 교육수준의 변화를 비교해 보게 된다. <표 2.5b>은 오래전에 학교교육을 마친 연령층으로 간주되는 30-34세인구의 교육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1975-95년 기간중 한국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도시인구의 교육수준이 농촌인구 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의 교육수준이 훨씬 더 높다.

1975년의 경우만 해도 농촌인구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남자 51.7%; 여자 70.5%),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남자의 경우 19.5%, 여자의 경우는 겨우 4.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고졸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남자의 경우 74.8%, 여자의 경우 63.4%로 크게 증가했다. 농촌인구의 이와같은 고학력인구 비율의 증가는 시부인구와 비슷하였다. 도시인구에 비해 다만 대학교육을 이수해 본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만이 다소 떨어질 뿐이다.

교육수준의 변화유형을 보기 위하여 1975-1995년 기간중 각 센서스 연도별로 지역별·성별·교육수준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측정한 질적변이지수(index of qualitative variation)를 보면 <표 2.5b>와 같다. 질적변이지수는 비연속적 변인의 분산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통계치로서, 전체사례가 변인의 모든 범주에 골고루 분포되었을 경우 1이 된다. 따라서 이 지수는 값이 클수록 다양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부남자의 질적변이지수를 보면 1975년에 0.740이던 것이 1985년에는 0.823으로 높아졌으나, 1995년에는 다시 0.710으로 낮아진다.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면부여자의 경우는 1975년에 0.525이던 이 지수가 1985년에는 0.701로, 그리고 1995년에는 다시 0.743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면부지역에서 남자와 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의 변화유형이 아직은 서로 다른 상태에 있음을 말해 준다. 즉 남자의 경우 1985년까지는 종래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던 농촌남자의 교육수준이 점차 분화현상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르면서 농촌남자들의 교육수준이 종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 사실은 <표 2.5>에서 고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1975년에는 19.5%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에는 36.2%로, 그리고 1995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76.2%로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과도 합치된다.

이에 반해 농촌여자인구의 경우는 많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중학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많은 편이어서 이들 인구집단의 교육수준은 고학력 구조로 계속 분화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인구의 교육수준은 면부인구를 중심으로 관찰한 농촌인구의 교육수준과는 약간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부인구의 경우 남녀 모두 질적변이지수가 최근에 이르면서 낮아지고 있다. 이 사실은 적어도 시부지역의 경우 교육수준은 최근 고학력인

구로 급격하게 동질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시부지역의 경험은 면부지역의 인구도 가까운 장래에 비교적 고학력의 동질적인 인구로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2.5b> 30-34세 인구의 교육수준: 1975-95, 면부·시부인구

(단위: %)

교육수준	남 자			여 자		
	1975	1985	1995	1975	1985	1995
<면부인구>						
불취학	5.0	1.5	0.6	12.6	2.7	0.8
초등: 중퇴	2.0	0.7	0.3	3.1	0.8	0.1
졸업	51.7	33.2	7.0	70.5	52.5	11.6
중학: 중퇴	1.8	1.4	0.5	0.5	0.8	0.3
졸업	18.9	25.7	25.8	9.0	25.8	23.1
고등: 중퇴	1.1	1.2	1.1	0.2	0.5	0.7
졸업	14.0	26.6	49.3	3.4	13.8	49.8
초대: 중퇴	0.3	0.2	0.4	0.0	0.0	0.1
졸업	1.5	3.1	6.3	0.2	1.0	4.1
대학: 중퇴	0.6	0.8	1.4	0.1	0.2	0.5
대졸이상	3.1	5.5	18.8	0.4	1.9	8.9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59,441)	(251,963)	(25,321)	(369,260)	(241,910)	(25,215)
질적변이지수 (IQV)	0.740	0.823	0.710	0.525	0.701	0.743
<시부인구>						
불취학	1.1	0.4	0.2	3.4	0.7	0.2
초등: 중퇴	0.5	0.2	0.1	0.8	0.2	0.1
졸업	17.5	8.2	2.1	41.2	18.0	3.3
중학: 중퇴	1.5	1.0	0.3	1.1	0.9	0.3
졸업	23.1	20.3	7.0	25.7	32.5	14.5
고등: 중퇴	1.9	1.6	0.8	0.6	0.8	0.5
졸업	32.5	43.8	43.8	19.6	35.7	53.4
초대: 중퇴	0.4	0.2	0.5	0.1	0.1	0.1
졸업	2.4	4.2	7.0	1.2	2.4	5.8
대학: 중퇴	2.5	2.1	2.1	0.6	0.7	0.9
대졸이상	16.6	18.1	36.1	5.7	8.0	20.9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655,017)	(1,154,816)	(20,420)	(606,992)	(1,114,564)	(20,033)
질적변이지수 (IQV)	0.859	0.797	0.734	0.793	0.800	0.710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조사 2% 표본자료

2.5 경제활동과 취업구조

농촌인구수의 급속한 감소, 인구의 노령화현상, 20대 인구의 지나친 남초현상(男超現象), 그리고 교육수준의 급격한 상승 등은 1990년대 후반 한국 농촌에서 인구변동으로 인해 조성된 가장 특징적인 인구학적 상황이다. 이와같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농촌지역 내부 깊숙히 스며드는 도시화의 바람으로 한국인의 농촌생활도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농촌생활의 변화는 우선 농촌주민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예견된다.

<표 2.6> 성별 면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1975-95

경제활동상태	남 자		여 자	
	1975	1995	1975	1995
14세이상인구	100.0 (4,162,280)	100.0 (45,810)	100.0 (4,372,793)	100.0 (51,048)
비경제활동인구	18.0	19.0	34.4	47.5
경제활동인구	82.0	81.0	65.6	52.5
경제활동인구	100.0 (3,414,910)	100.0 (37,101)	100.0 (2,870,261)	100.0 (26,818)
취업자	98.3	94.7	99.3	97.3
주요 일함	96.2	92.6	86.2	67.8
일시휴직	0.4	0.4	0.2	0.2
틈틈히일함	1.7	1.7	12.9	29.4
실업자	1.7	5.3	0.7	2.7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경제활동편 통계청, 199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자료

<표 2.6>은 1975-95년 기간중 면부인구의 경제활동상태의 분포와 그 변화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기간중 실업자의 비율을 제외하고는 면부지역인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표면상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남자의 경우, 14세이상 인구중 경제

활동인구의 구성비가 두 기간중 각각 82%와 81%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는 다소 다른 변화의 유형을 나타낸다. 즉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가 1975년의 65.6%로부터 1995년의 52.5%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자 중 전업으로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줄고 가사 틈틈히, 또는 통학 틈틈히 일하는 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남자보다는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최근 더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7>은 각각 남녀 성별로 면부와 시부에서 관찰되는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율이다. 이 기간중 남녀 모두 시부에서는 질적변이지수의 값의 변화가 크지 않는데 반해, 면부에서는 남녀 모두 이 값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이 사실은 농촌의 경우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가 성별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이르면서 크게 다양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1975년의 경우만 해도 남자의 80.2%, 그리고 여자의 87.4%가 되는 대다수 인구가 농림·어업·수렵업 등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즉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은 극히 동질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5년에는 종래 농어업 일변도였던 산업별 취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선 남자의 경우 1975년에 80.2%를 차지하고 있던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995년에는 51.7%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도 종래의 87.4%로부터 64.2%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에 남자 여자 모두,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숙박업, 건설업, 사회 개인서비스업 등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에서도 비슷한 변화유형을 볼 수 있다. 직업 분포의 경우, 1975년 센서스와 1995년 센서스의 경우 적용된 직업분류상의 범주가 차이가 있으나 그 일반적인 유형은 남녀 모두 1975년에는 농·축·어업과 같은 농촌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집중도가 아주 높았으나 1995년의 경우는 1975년에 비해 직업의 다양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표 2.8 참조).

<표 2.9>에서 면부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를 보면, 1975년의 남자인구의 경우 고용자가없는 영세자영업종사자가 가장 많고(52.2%), 그뒤를 이어 무급가족노동종사자(24.1%), 피고용자(21.8%), 그리고 고용주(1.9%)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인구의 대부분(74.2%)이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종사자와 피고용자도 각각 14.7%와 1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센서스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주는 대신 피고용자,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종사자 및 피고용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농·어업·수렵업 취업자만을 볼 때에는 아주 다른 변화 유형을 보여준다.

<표 2.7>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취업중인 산업	면 부		시 부	
	1975	1995	1975	1995
<남자>				
농림·수렵·어업	80.2	51.7	6.5	1.5
광업	1.0	0.6	0.3	0.1
제조업	4.6	15.0	31.7	28.1
전기·가스·수도시설	0.1	0.6	0.7	0.6
건설업	1.6	7.3	10.5	14.4
도소매업 및 숙박업	3.7	11.4	21.1	25.8
운수·창고·통신	1.3	4.3	8.4	9.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0.3	3.4	2.9	10.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2	5.8	17.8	10.0
계	100.0	100.0	100.0	100.0
질적변이지수(IQV)	0.342	0.722	0.851	0.856
<여자>				
농림·수렵·어업	87.4	64.2	8.5	1.5
광업	0.1	0.2	0.1	0.0
제조업	5.3	9.4	38.7	24.1
전기·가스·수도시설	0.0	0.1	0.2	0.1
건설업	0.1	0.9	1.2	2.8
도소매업 및 숙박업	4.9	15.3	29.1	36.2
운수·창고·통신	0.3	0.6	2.0	2.2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0.1	2.8	1.8	11.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	6.6	18.5	21.8
계	100.0	100.0	100.0	100.0
질적변이지수(IQV)	0.210	0.570	0.764	0.793

자료 : <표 2.6> 참고

<표 2.8> 성별 먼부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율: 1975 및 1995

(단위:%)

직업	1975		직업	199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문기술 및 관련종사자	2.1	0.7	고위임직원·관리자	2.6	0.2
행정 및 관리직	0.2	0.0	전문가	2.6	1.8
사무 및 관련직	2.9	0.8	기술 및 준전문가	5.5	3.0
판매직종사자	3.1	3.2	사무직원	5.0	5.8
서비스직종사자	2.1	2.6	서비스종사자/판매원	9.2	16.1
농·축·임업·어업	80.0	87.3	농·축·임·어업	48.2	62.5
생산직·운수장비·단순노무자	8.4	5.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9.9	3.3
분류불능	1.2	0.0	장치·기계조작원	10.7	3.1
			단순노무자	4.8	4.3
			군인	1.7	0.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질적변이지수(IQV)	0.348	0.214	질적변이지수(IQV)	0.761	0.590

자료 : <표 2.8> 참조

<표 2.9>의 아랫부분을 보면, 전체산업별인구의 경우와는 달리 농림·어업 및 수렵업에 종사하는 먼부인구는 1975-95년 기간중 남녀 모두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만이 크게 증가했을 뿐, 그 외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피고용자의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1975년에 9.9%이던 것이 1995년에는 3.3%로, 같은 기간중 여자는 4.7%에서 1.8%로 그 비율이 크게 줄었다. 마찬가지로 무급가족노동자의 경우, 남자는 29.0%에서 10.8%로, 그리고 여자의 경우 81.7%에서 74.6%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영세자영농의 비율은 남자의 경우 1975년의 59.8%이던 것이 84.8%로 크게 증가했으며, 여자의 경우 13.3%에서 23.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현재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는 달리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남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거나 남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최근 크게 줄고 있다. 또한 무급가족노동종사자의 급격한 감소는 종래 농촌에서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던 가족영농패턴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무급가족노동 조력하던 인구의 많은 부분이 농어업이외의 다른 직종에서 취업했을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표 2.9> 성별 먼부인구의 고용상태의 변화, 1975-95

(단위:%)

고용상태	남 자		여 자	
	1975	1995	1975	1995
전산업				
영세자영업	52.2	54.5	14.7	21.4
고용주	1.9	4.9	0.5	1.3
무급가족노동	24.1	6.2	74.2	55.1
피고용자	21.8	34.3	10.6	22.2
계	100.0	100.0	100.0	100.0
(N)	(3,357,253)	(33,128)	(2,848,828)	(25,715)
농·어업·수렵업				
영세자영업	59.8	84.8	13.3	23.5
고용주	1.3	1.1	0.3	0.1
무급가족노동	29.0	10.8	81.7	74.6
피고용자	9.9	3.3	4.7	1.8
계	100.0	100.0	100.0	100.0
(N)	(2,691,619)	(17,130)	(2,489,683)	(16,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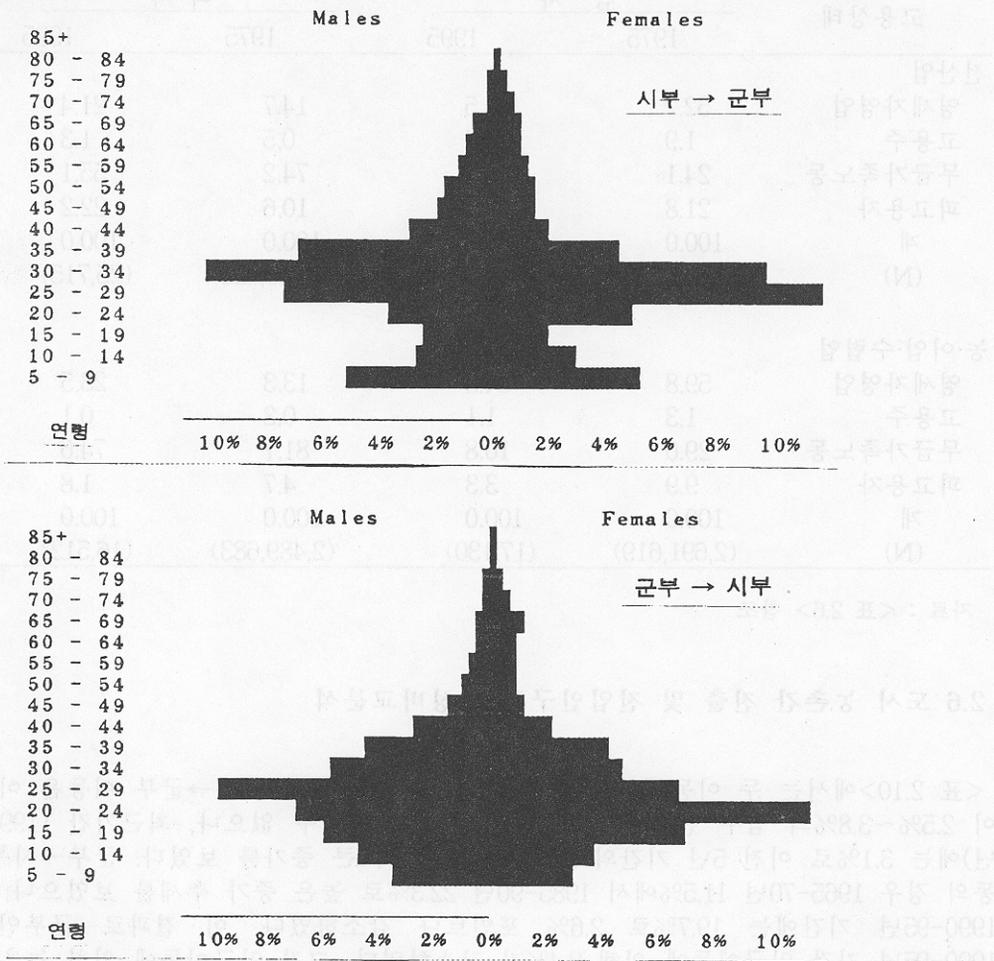
자료 : <표 2.6> 참조

2.6 도시 농촌간 진출 및 전입인구의 특성비교분석

<표 2.10>에서는 두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추세를 보면 시부→군부 이동은 이동율이 2.5%~3.8%의 범주 안에서 일정한 추세는 발견할 수 없으나, 최근기간 (1990-95년)에는 3.1%로 이전 5년 기간의 2.5%에서 상당히 큰 증가를 보였다. 군부→시부 이동의 경우 1965-70년 11.5%에서 1985-90년 22.3%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1990-95년 기간에는 19.7%로 2.6%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 결과로 군부인구는 1990-95년 기간 인구이동에 의해 8.4%가 감소하였다. 그간 인구이동에 의한 농촌인구의 감소율이 1965-70년 9.1%에서 1985-90년 15.2%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고려할 때 최근의 군부인구 감소추세에 변화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1990-95년 기간에 있었던 통합시를 비롯한 일련의 행정구역개편이 현재의 이동인구에 추정방법상 추정이동인구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 영향은 주로 이동형태별로 시부→시부 이동을 증가시키고 군부→군부 이동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으나,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없이는 시부→군부 이동과 군부→시부 이동에서 그 영향의 방향과 크기 등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 단원에서는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시부와 군부의 인구분포 및 인구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990-95년 기간의 군부에서 시부”로의 이동인구,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인구와 시부-군부간 순이동 인구의 주요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동인구의 성비는 '군부→시부' 이동이 98.1, '시부→군부' 이동이 95.6, 시·군부간 순이동인구가 83.7로 나타났다.



<도표 2.2> 시·군부간 전출 및 전입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비, 1990-95.

<도표 2.2>는 이들 두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구조가 총이동인구와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두 이동형태만을 비교할 때는 '시부→군부' 이동에서 성 및 연령의 선택적 경향이 더 높다.

이들 성 및 연령구성에서 쉽게 발견되는 특징은 '시부→군부' 이동에서 구성비가 높은 연령층은 남자의 경우 30-34세, 25-29세, 여자의 경우 25-29세와 30-34세인데 비해 '군부→시부' 이동에서는 남자 25-29세, 20-24세, 여자 20-24세, 15-19세 연령계층이다. 이러한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연령구성 차이의 의미는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도시에서의 취학, 구직, 직장에서의 이동, 혼인 등 일련의 생애주기와 과 관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2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시부→군부 13.5%, 군부→시부 21.5%로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점, 교육정도별 인구구성에서 휴학 및 재학생의 구성비가 시부→군부 17.7%, 군부→시부 26.9%로서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이들 이동형태의 학력별 구성에서 이동인구중 대학 졸업자들의 구성비가 시부→군부 21.0%로서 일반 시부인구나 군부→시부 이동인구 13.7%보다 훨씬 높아 군부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를 보면 군부→시부이동에서 1인 및 2인 가구와 5인 이상의 가구의 구성비가 높고 시부→군부이동에서는 3~4인 가구가 54.5%로 12.0% 포인트나 더 높다. 이는 시부→군부 이동에서 유배우 인구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은 시부 및 군부의 일반가구 분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은 가구의 세대구성이나 목표지역의 주택사정, 이동형태별 이동사유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현재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의 구성비는 시부→군부 34.0% 군부→시부 19.2%로서, 시부→군부 이동의 경우가 현거주지의 주택사정을 반영하여 주택소유자의 구성비가 더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이동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훨씬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여주었다. 특히 불안정한 주택형태로 볼 수 있는 무보증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 시부→군부 이동인구 15.0%에 비해 군부→시부 이동인구 24.7%로서 9.7%포인트나 높은 구성비를 보여 주었다.

<표 2.10> 기간 및 이동형태별 총이동인구와 이동율

(단위: 천명, %)

기 간	군부→시부	시부→군부	순 이 동	
			시 부	군 부
1965-70	1,827	387	1,440	-1,440
1970-75	1,754	558	1,196	-1,196
1975-80	2,524	681	1,843	-1,843
1980-85	2,424	889	1,535	-1,535
1985-90	2,329	743	1,586	-1,586
1990-95	1,734	983	751	-751
	(이	동	율)	
1965-70	11.5	3.4	12.8	-9.1
1970-75	11.1	3.8	8.1	-7.6
1975-80	17.4	3.6	9.6	-12.7
1980-85	18.9	3.7	6.4	-12.0
1985-90	22.3	2.5	5.3	-15.2
1990-95	19.7	3.1	2.3	-8.4

주: 해외전입인구, 5년전 거주지 미상 제외.

이동율=(기간 이동인구수/기간말 5세이상 출발지역 인구수)*100

<표 2.11>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특성분포, 1990-95

특성	시부→군부 이동	군부→시부 이동	군부 순이동 ¹⁾
<성비>			
15-19	137.7	88.4	73.7
25-29	63.4	141.9	-122.7 ²⁾
30-34	106.8	118.7	89.2
35-54	144.2	106.6	-153.1 ³⁾
55+	75.1	46.7	-41.3 ³⁾
계	98.1	95.6	83.7
<남자 연령구성비>			
5-14	16.6	16.9	-18.6
15-19	5.3	12.5	-75.9
20-24	7.8	14.3	-50.5
25-29	14.9	19.9	-48.0
30-34	20.8	11.7	39.4
35-54	27.7	19.9	23.9
55+	6.9	4.8	6.9
계	100.0	100.0	-100.0
<여자 연령구성비>			
5-14	16.2	13.5	-0.6
15-19	3.8	13.5	-60.2
20-24	10.1	22.5	-81.9
25-29	23.1	13.4	32.7
30-34	19.1	9.4	36.9
35-54	18.8	17.9	-13.1
55+	9.0	9.8	-13.9
계	100.0	100.0	-100.0
1인가구 비율	16.3	25.5	-68.5
평균가구원수	3.0	2.8	-3.6
<교육정도별 구성비>			
고등학교 이상	58.6	51.8	-16.7
대학교 이상	21.1	13.7	60.5
재학, 휴학	17.7	26.9	-74.4
주택소유자 비율	34.0	19.2	-

주: 1) “-”는 순전출, “+”는 순전입을 뜻함

2) 남자 전출초과, 여자 전입초과인 경우의 남녀 비율임

3) 남자 전입초과, 여자 전출초과인 경우의 남녀 비율임

자료: 통계청, 1995 인구총조사 2% 자료태입에서 계산.

3. 농촌 지역단위별 인구 주요특성의 분포

한국의 이동인구의 이동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장과 관련되어 있고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측면에서의 기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간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 많았고,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왔음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지난 30여년간의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농촌가족과 촌락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단원에서는 제 2장의 총괄분석과 관련하여 이들의 분포측면에서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과 관련하여 장래 농촌사회 변화의 방향과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농촌사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통계분석에서 평균 등의 대표값에만 의존하고 분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간의 격차 문제는 무시함으로써 분포와 관련된 중요문제를 간과하는 것과 같다. 이는 농촌전체의 인구문제와 각 지역단위의 인구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연구단위로 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접근방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를 군으로 하여, 이들 각 군의 인구규모, 성 및 연령분포, 교육정도 등 인구 구조적 특성들과 군의 위치, 농지규모, 교통등 지역의 물리적 여건, 행정서비스, 의료 및 환경여건, 경제활동 등의 분포문제를 고찰하고, 이들과 군 인구성장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단위로는 최소행정 단위인 읍·면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료 이용성 문제 때문에 군을 연구단위로 하였다.

3.1 인구규모별 군의 분포

전국의 군의 수는 1985년 139개, 1990년 137개, 1995년 98개가 있었다. 군의 평균 인구의 규모는 1985년 99천명, 1990년 81천명, 1995년 67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최소와 최대 인구규모는 1985년 17천명과 235천명, 1990년 15천명과 245천명, 1995년의 경우 11천명에서 242천명까지 군별로 심한 차이를 보인다.

<표 3.1>에서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분포를 보면 1995년 인구 3만 미만인 군의 수가 9개 군으로 전체 군수 97개군의 거의 10%나 차지한다¹⁾. 인구규모가 9만 이상인 군의 비율은 1985년에는 48.2%(=67/139)이었던 것이 1990년 33%(=44/135), 1995년 19%(=18/96)로 감소하였다. <표 3.2>에서 이들 각 군 인구감소율의 분포를 볼 때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분포의

1) 1995년 인구가 3만미만인 군은 강원도의 화천, 양구, 광양군, 전북의 무주, 장수군, 경북의 군위, 영양, 울릉군, 인천의 옹진군 등이다.

<표 3.1>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수

(단위: %)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3만미만	2 (1.4)	2 (1.4)	1 (0.7)	1 (0.7)	1 (0.7)	4 (2.9)	9 (9.3)
3-6만	5 (3.6)	7 (5.0)	6 (4.3)	13 (9.4)	21 (15.1)	35 (25.5)	36 (37.1)
6-9만	16 (11.5)	16 (11.4)	19 (13.8)	30 (21.6)	50 (36.0)	53 (38.7)	34 (35.1)
9-12만	32 (23.0)	41 (29.3)	43 (31.2)	43 (30.9)	26 (18.7)	30 (21.9)	11 (11.3)
12-15만	31 (22.3)	32 (22.9)	27 (19.6)	20 (14.4)	22 (15.8)	8 (5.8)	2 (2.1)
15만 이상	53 (38.1)	42 (30.0)	42 (30.4)	32 (23.0)	19 (13.7)	7 (5.1)	5 (5.2)
계	139 (100)	140 (100)	138 (100)	139 (100)	139 (100)	137 (100)	97 (100)
최대인구	317,742	272,879	294,312	288,861	235,645	244,921	242,048
최소인구	17,617	14,859	29,479	18,960	17,280	15,283	11,306
평균	139,737	129,879	129,794	113,825	99,182	81,028	66,504

주 : 외국인 제외, ()내는 구성비임.

자료 : 경제기획원 1966,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센서스 보고

<표 3.2> 연평균 인구 증가율에 따른 군의 수

연 평균 인구 증가율(%)	1980-85	1985-90	1990-95
-9.0 미만	-	-	3 (3.1)
-9.0 - -6.0	1 (0.7)	7 (5.1)	4 (4.1)
-6.0 - -3.0	39 (28.1)	60 (43.8)	54 (55.7)
-3.0 - 0.0	82 (59.0)	53 (38.7)	24 (24.7)
0.0 - 3.0	13 (9.4)	11 (8.0)	9 (9.3)
3.0이상	4 (2.9)	6 (4.4)	3 (3.1)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1.9	-2.7	-3.2
변이계수	-119.9	-95.9	-89.3
최대증가율	9.6	6.0	9.6
제3사분위수	-1.0	-1.4	-2.2
제1사분위수	-3.2	-4.6	-4.9
최대감소율	-8.3	-7.2	-9.4
군부 인구 증가율	-2.6	-4.5	-2.9
총인구 증가율	1.6	1.4	0.5

자료: <표 3.1> 참조

<표 3.3> 평균 가구원수별 군의 분포

평균 가구원수	1985	1990	1995
2-3	-	-	28(28.9)
3-4	14 (10.1)	100 (73.0)	69 (71.1)
4-5	124 (89.2)	36 (26.3)	-
5+	1 (0.7)	1 (0.7)	-
계	139 (100)	137(100)	97 (100)
최대	5.6	5.1	3.8
최소	6.4	3.1	2.6
평균	4.3	3.8	3.2
군부 평균가구원수	4.1	3.6	3.1
전국 평균가구원수	4.0	3.7	3.3

<표 3.4> 각 군 1인 가구비율의 분포, 1985-95.

1인가구 비율	1985	1990	1995
7 미만	60 (43.2)	11 (8.0)	0 (0.0)
7 - 10	65 (46.8)	51 (37.2)	1 (1.0)
10 - 13	13 (9.4)	40 (29.2)	20 (20.6)
13 - 16	1 (0.7)	32 (23.4)	21 (21.6)
16 - 19	0 (0.0)	3 (2.2)	24 (24.7)
19 - 22	0 (0.0)	0 (0.0)	26 (26.8)
22 이상	0 (0.0)	0 (0.0)	5 (5.2)
평균	7.4	10.7	16.6
변이계수, %	25.3	26.5	22.6
최대구성비	14.7	16.8	24.8
3사분위수	8.6	13.0	19.5
1사분위수	6.0	8.6	13.7
최소구성비	3.2	3.9	7.0
군부인구 구성비	7.2	10.3	15.6
총인구 구성비	6.9	9.0	12.7

중심이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5년간 (1980-95) 각 군의 인구감소의 경향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부인구 전체의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기간별로 1980-85년 -2.6%, 1985-90년 -4.5%, 1990-95년 -2.9%이었다. 이에 비해 각 군 연평균 인구감소율의 평균을 기간별로 보면 1980-85년 -1.9%, 1985-90년 -2.7%, 1990-95년 -3.2%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군에서 군부인구 전체의 감소율보다 더 높은 감소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2 참조).

이는 군부전체의 인구감소율이 각 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이 농촌 인구문제 연구에서 군부전체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85년과 1985-90년의 경우 군부전체의 인구증가율이 각 군 인구증가율 평균보다 큰 것은 각 군 인구증가율 계산에는 같은 기간 읍·면의 시승격 등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인구수를 수정하였으나 군부전체의 인구증가율 계산에는 자료수정을 얹지 않았기 때문이다²⁾.

기간별로 각 군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분포는 다소 하향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군 연평균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1980-85년 -119.9%, 1985-90년 -95.9%, 1990-95년 -89.3%로서 점차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군 인구감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별로 보면, 1990-95년 기간 전남 신안군이 -9.4%로 가장 심한 연평균 인구감소율을 보였고, 연평균 -6.0%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군은 강원도 정선군, 전남의 보성, 강진, 해남군, 전북의 진안군 등이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 -9.0%, -6.0%등은 인구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각각 8년, 12년이 될 것임을 뜻하므로 이들 농촌 인구가 얼마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의 군에서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 경북 달성군, 양산군, 경기 용인군, 부산 기장군 등을 비롯한 12개 군에서는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군은 강원, 충남북, 전남북에 소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군들은 대부분 경기와 경남북에 속해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군부전체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85년 4.1인, 1990년 3.6인, 1995년 3.1인으로 군부 인구감소와 함께 계속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동인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전체인구의 평균 가구원수보다 작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선택적 도시이동의 결과가 아니며, 일부 가구원의 분가 내지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가구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3> 에서 각 군의 평균 가구원수의 평균은 군부전체의 평균 가구원수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군별분포는 상당

2) 1980-85년 기간과 1985-90년 기간 5개 시와 29개 시가 각각 새로이 시로 승격되었다.

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5년에는 군의 평균 가구원수 4인 이상 5인미만의 경우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과 1995년에 3인 이상 4인미만의 군들이 각각 73.0%와 71.1%를 차지하였고, 특히 1995년에는 나머지 군들(28.9%)이 모두 2인 이상 3인미만의 군 평균 가구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가구규모 분포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1995년 이전에는 군평균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인 군은 볼 수 없었다.

1인 가구원 가구의 비율이 기간별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각군의 1인가구 비율의 평균은 1985년 7.4, 1990년 10.7, 1995년 16.6%로서 분포는 중심의 상향이동과 함께 분포모양이 약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5년의 경우 최소가 충남 당진군의 7.0%이고, 최고는 인천 용진군의 24.8%로서 범위가 17.7포인트나 된다. 이외 가구의 비율이 특별히 낮은 지역은 경기의 양평, 이천, 용인, 김포군 등이며 특별히 높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 경북 영덕군, 경남의 의령, 함양군 등이다.

3.2 인구의 성 및 연령에 따른 군의 분포

각 군 인구의 성비평균은 1985년 102.1, 1990년 101.1, 1995년 99.3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인구의 성비, 100.2, 100.7, 100.7에 비해 1990년 이전에는 높았으나 1995년에는 총인구보다 약간 낮은 성비를 보인다. 이는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서 농촌의 경우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순이동인구의 성비가 83.7(1990-95년)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5>에서 각 군 인구의 성비의 분포를 보면, 먼저 평균은 군부전체인구의 성비와 같다. 다만 1995년의 경우 약간 낮은 98.3이었다. 각 군 성비의 분포가 왼쪽으로 더 긴 꼬리를 갖는 모양으로 차츰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분포에서는 90미만의 성비를 가진 군도 2개군(경남의 남해, 함안군)이었고, 105이상으로 성비가 높은 군은 경기도의 양주, 화성군, 강원도의 평창, 정선군 등 10개군이었다. 전체분포상의 변화는 성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분포의 모양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각 기간별 변이계수는 1985년 3.3%, 1990년 4.1%, 1995년 5.0%로 점차 증가하였다.

군부전체 인구의 0-14세 인구구성비는 1985년 30.4%, 1990년 23.6%, 1995년 20.2%로서, 총인구와 비교할 때 1985년은 군부인구가 더 높았으나, 1990년부터는 군부인구에서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인구의 0-14세 구성비가 일반인구보다 낮으므로, 이 연령층의 인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부의 조출산율이 시부보다 낮고, 또한 25-34세의 주요출산 연령계층 여자인구 구성비가 군부에서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표 3.9 참조).

<표 3.6>에서 각 군 인구의 0-1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는 평균은 군부전체 인구의 0-14세 구성비와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0-14세 인구 구성비에 따른 군의 분포가 기간에 따라 급격히 하향변화하고 있으며, 변이계수를 볼 때 군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7>에서 각 군 평균 노동력 인구(15-64세 인구) 구성비를 보면 연도별로 1985년 62.4%, 1990년 67.0%, 1995년 67.5%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군별 구성비의 분포는 그 분포의 중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상향이동하고, 전체적인 분포의 모양은 차츰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표 3.8>을 에서 65세이상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각 군 평균이 1985년 7.1%, 1990년 9.5%, 1995년 12.8%로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총인구의 65세이상 구성비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총인구의 경우 1985년 4.3%에서 1995년 5.9%로 10년동안 1.6%포인트가 증가할 뿐이었으나 군평균의 경우 5.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군부인구의 노령화는 군부인구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그 분포가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어 각 군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65세 이상 구성비는 최소 경남 양산군의 4.7%에서 최대 전북 진안군의 18.6%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5> 각 군의 성비의 분포

성 비	1985	1990	1995
90미만	-	-	2 (2.1)
90-95	2 (1.4)	7 (5.1)	29 (29.9)
95-100	35 (25.2)	50 (36.5)	29 (29.9)
100-105	77 (55.4)	62 (45.3)	27 (27.8)
105이상	25 (18.0)	18 (13.1)	10 (10.3)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102.1	127.3	98.3
변이계수, %	3.3	4.1	5.0
최대	118.2	94.0	99.3
제3사분위수	104.0	103.1	101.4
제1사분위수	99.9	98.5	94.2
최소	90.6	101.1	88.9
군부인구 성비	102.2	101.1	100.7
총인구 성비	100.2	100.7	110.2

주 : 성비 = (남자인구수/여자인구수)*100
()내는 구성비임

<표 3.6> 각 군의 0-1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0-14세 인구 구성비(%)	1985	1990	1995
15미만	-	-	2 (2.1)
15-18	-	1 (0.7)	20 (20.6)
18-21	-	11 (8.0)	51 (52.6)
21-24	-	71 (51.8)	19 (19.6)
24-27	4 (2.9)	48 (35.0)	4 (4.1)
27 이상	135 (97.1)	6 (4.4)	1 (1.0)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30.5	23.6	19.7
변이계수, %	7.7	8.7	12.1
최대 구성비	37.7	31.4	27.1
제3사분위수	32.1	25.0	20.9
제1사분위수	28.8	22.1	18.1
최소 구성비	26.0	17.6	14.1
군부인구 구성비	30.4	23.6	20.2
총인구 구성비	29.9	25.7	23.0

<표 3.7> 각 군의 15-6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15-64세 인구 구성비(%)	1985	1990	1995
60미만	26 (18.7)	-	-
60-62	37 (26.6)	1 (0.7)	-
62-64	38 (27.3)	8 (5.8)	3 (3.1)
64-66	29 (20.9)	35 (25.5)	16 (16.5)
66-68	8 (5.8)	50 (36.5)	40 (41.2)
68-70	1 (0.7)	33 (24.1)	30 (30.9)
70이상	-	10 (7.3)	8 (8.2)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62.4	67.0	67.5
변이계수, %	3.8	3.0	2.5
최대 구성비	68.5	72.2	70.9
제3사분위수	64.2	68.3	68.8
제1사분위수	60.6	65.6	66.6
최소 구성비	57.2	61.9	63.3
군부인구 구성비	62.7	67.3	68.1
총인구 구성비	65.8	69.4	70.9

<표 3.8> 각 군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의 분포

65세이상 인구 구성비(%)	1985	1990	1995
5미만	10 (7.2)	2 (1.5)	1 (1.0)
5-8	90 (64.7)	29 (21.2)	6 (6.2)
8-11	39 (28.1)	74 (54.0)	22 (22.7)
11-14	-	31 (22.6)	30 (30.9)
14-17	-	1 (0.7)	31 (32.0)
17이상	-	-	7 (7.2)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7.1	9.5	12.8
변이계수, %	20.7	21.7	25.9
최대 구성비	10.7	14.3	18.6
제3사분위수	8.1	10.9	15.7
제1사분위수	6.1	8.1	10.8
최소 구성비	3.5	4.9	4.7
군부인구 구성비	6.8	9.0	11.8
총인구 구성비	4.3	5.0	5.9

<표 3.9>에서는 각 지역 조출산율의 차이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 지역의 성별 연령구조에서 주요 출산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여자 25-3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주요 출산연령층의 구성비는 전체군부보다 각군 평균이 다소 낮아 각 군의 분포자료가 농촌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5년에는 군평균 구성비가 12.5%로 1990년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기간별로는 별 변화추세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전국의 구성비와는 1995년 군평균 12.5%에 비해 전국 18.7%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군간의 격차는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95년 최대 구성비는 경남 양산군의 24.8%, 최소 구성비는 충남 당진군의 6.3%였다.

각 군의 조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연령별 유배우비율이다. 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촌여자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모든 연령에서 유배우율이 도시여자보다 높으나, 남자의 경우는 기간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1975년까지는 농촌남자의 유배우율이 도시보다 대체로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1985년 이후에는 역전되어 도시남자의 유배우율이 농촌보다 높다. 이것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인구의 남자여자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촌의 20-24세 인구에서 남자와 여자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25세 이후 연령계층에서는 결혼을 위해 귀향 혹은 이동하는 여자로서 인해서 성비가 차츰 감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9> 각 군 여자총인구에 대한 주요 출산연령층(25-34세) 인구의 구성비, 1985-95.

25-34세 인구구성비	1985	1990	1995
9.5 미만	5 (3.6)	6 (4.4)	24 (24.7)
9.5 - 12.0	55 (39.6)	50 (36.5)	29 (29.9)
12.0 - 14.5	44 (31.7)	40 (29.2)	20 (20.6)
14.5 - 17.0	20 (14.4)	17 (12.4)	9 (9.3)
17.0 - 19.5	10 (7.2)	12 (8.8)	8 (8.2)
19.5 - 22.0	3 (2.2)	10 (7.3)	5 (5.2)
22.0 이상	2 (1.4)	2 (1.5)	2 (2.1)
평균	13.0	13.6	12.5
변이계수	21.8	24.8	30.0
최대구성비	23.3	25.3	24.8
3사분위수	14.5	15.5	14.4
1사분위수	11.1	11.2	9.6
최소구성비	9.1	8.6	6.3
군부인구 구성비	13.5	14.0	13.6
총인구 구성비	17.7	19.6	18.7

<표 3.10> 각 군 20-24세 연령계층 인구의 성비, 1985-90

	1985	1990	1995
100 미만	2 (1.4)	3 (2.2)	3 (3.1)
100 - 125	11 (7.9)	10 (7.3)	7 (7.2)
125 - 150	18 (12.9)	18 (13.1)	13 (13.4)
150 - 175	33 (23.7)	29 (21.2)	25 (25.8)
175 - 200	31 (22.3)	28 (20.4)	15 (15.5)
200 - 225	31 (22.3)	15 (10.9)	17 (17.5)
225 - 250	11 (7.9)	13 (9.5)	12 (12.4)
250 이상	2 (1.4)	21 (15.3)	5 (5.2)
평균	178.0	190.6	179.2
변이계수	21.0	28.9	23.7
최대 성비	250.7	388.7	295.7
3사분위수	207.6	223.3	210.9
1사분위수	151.5	151.6	153.5
최소 성비	92.2	74.5	87.9
군부인구 성비	160.3	163.2	152.5
총인구 성비	106.1	109.1	108.3

<표 3.11>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 1985-95.

	1985	1990	1995
100 미만	0 (0.0)	1 (0.7)	2 (2.1)
100 - 115	17 (12.2)	11 (8.0)	9 (9.3)
115 - 130	54 (38.8)	47 (34.3)	37 (38.1)
130 - 145	54 (38.8)	48 (35.0)	36 (37.1)
145 - 160	14 (10.1)	26 (19.0)	11 (11.3)
160 이상	0 (0.0)	4 (2.9)	2 (2.1)
평균	129.3	133.3	130.4
변이계수	8.8	11.1	10.5
최대 성비	156.1	209.6	177.3
3사분위수	137.6	143.1	140.5
1사분위수	120.5	122.9	122.5
최소 성비	100.8	98.6	93.3
군부인구 성비	125.0	128.5	124.6
총인구 성비	103.1	104.1	104.1

각 군별로 이들 연령층 성비의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각 군 평균과 군부전체의 성비간에 큰 차이를 보여 지역 단위 분포자료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표 3.10 및 표 3.11 참조). 큰 농촌사회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혼인적령기 인구의 성비는 1995년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성비 130이상인 군이 50.5%나 되고 군에 따라서는 성비 177로 남녀의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도 있다.

<표 3.12>는 각 군 교육수준의 변화와 분포를 보기 위하여 각 군의 30-34세 인구 중 고등학교 중퇴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기간별로 군 평균 구성비는 1985년 7.9%, 1990년 13.2%, 1995년 22.4%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시부에서 군 부로의 이동을 통해 유입됨으로서 가속되었을 것이다. 대체적인 분포의 모양은 기간별로 평균이 점차 상향이동함과 동시에 평균에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군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로 1995년 최대구성비는 경기 화성군의 56.6%, 최소구성비는 충남 태안군의 11.4%이었다.

<표 3.13>은 15세이상 인구 1000명당 광공업 분야의 취업자수의 분포를 본 것으로, 기간별로 광공업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분포의 모양은 점차 집중하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군간의 차이는 매우 커서 1995년 변이계수가 116%이고 최소 5.9명(경북 울릉군)과 최대 511.6명(경기 화성군)간의 범위가 무려 505.7명이나 된다.

<표 3.12> 각 군 교육수준의 분포, 1985-95.

교육수준	1985	1990	1995
5 미만	9 (6.5)	0 (0.0)	0 (0.0)
5 - 10	105 (75.5)	28 (20.4)	0 (0.0)
10 - 15	24 (17.3)	69 (50.4)	5 (5.2)
15 - 20	1 (0.7)	34 (24.8)	27 (27.8)
20 - 25	0 (0.0)	5 (3.6)	38 (39.2)
25 - 30	0 (0.0)	1 (0.7)	22 (22.7)
20 - 35	0 (0.0)	0 (0.0)	3 (3.1)
35 이상	0 (0.0)	0 (0.0)	2 (2.1)
평균	7.9	13.2	22.4
변이계수	29.5	28.5	25.6
최대구성비	17.2	26.3	56.6
3사분위수	8.8	15.6	25.8
1사분위수	6.4	10.7	18.9
최소구성비	3.2	6.0	11.4
군부인구 구성비	13.0	15.1	19.2
총인구 구성비	15.8	18.7	19.3

주: 교육수준은 30-34세 인구 중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

<표 3.13> 각 군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수의 분포, 1985-95.

광공업 취업자수	1985	1990	1995
5 미만	9 (6.5)	2 (1.5)	2 (2.1)
5 - 10	21 (15.1)	9 (6.6)	2 (2.1)
10 - 15	23 (16.5)	6 (4.4)	3 (3.1)
15 - 20	17 (12.2)	20 (14.6)	7 (7.2)
20 - 25	8 (5.8)	9 (6.6)	10 (10.3)
25 - 30	3 (2.2)	14 (10.2)	5 (5.2)
30 - 100	42 (30.2)	46 (33.6)	43 (44.3)
100 - 200	8 (5.8)	19 (13.9)	13 (13.4)
200 - 300	5 (3.6)	6 (4.4)	8 (8.2)
300 - 400	3 (2.2)	4 (2.9)	0 (0.0)
400 이상	0 (0.0)	2 (1.5)	4 (4.1)
평균	48.1	72.7	88.4
변이계수	141.0	123.0	116.0
최대구성비	341.3	450.4	511.6
3사분위수	53.0	88.4	102.9
1사분위수	10.8	19.0	25.3
최소구성비	1.0	1.2	5.92

<표 3.14>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들이 군의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인구증가율에 따라 모든 군을 6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6개 집단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r < -5.5\%$)과 가장 높은 집단(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집단)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의 평균들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r < -5.5\%$)과 가장 높은 집단(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집단)을 비교했을 때 평균 인구의 규모 58천명대 110천명으로 후자가 크며, 전체인구의 성비는 98대 102로 인구증가군에서 더 높았다. 또한 순인구이동율은 -37.3 대 37.3으로 인구증가군에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인구증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에서 0-14세와 15-64세 계층의 구성비는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더 높고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8.1% 대 13.7%로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물리적인 특성은 가까운 시까지의 평균거리가 40km 대 22km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시에 가까웠고, 또한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이 많고(75%), 도로포장율은 61% 대 73%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인구증가율 최상위군과 최하위군 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비교, 1995.

특성	상위집단 ($r > 0.0\%$)		하위집단 ($r < -5.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까지의 거리(km)	22.12	11.45	40.04	19.43
철도 접속비율	0.58	0.51	0.40	0.51
고속도로 접속비율	0.75	0.45	0.00	0.00
전답(1,000ha)	10711.83	5297.23	15726.67	7737.50
도로 포장율(%)	73.31	13.53	61.05	15.49
인구수	110025.33	54400.69	58100.27	22732.75
평균 가구원수	3.52	0.22	3.04	0.13
0-14 인구 구성비(%)	23.15	2.04	19.35	1.46
15-64세 인구 구성비(%)	68.78	1.07	66.99	2.03
65+세 인구 구성비(%)	8.07	2.50	13.67	2.76
인구밀도(인/km ²)	238.80	95.93	95.68	43.70
전입 인구율	182.84	53.14	113.43	34.15
전출 인구율	145.52	19.37	150.70	32.66
병원수	48.75	29.32	19.73	9.86
의료인수(10,000명당)	20.23	8.40	18.38	13.45
의약품판매업소(10,000명당)	4.61	1.00	5.96	0.95
군내 정부기관수	50.58	19.36	68.27	14.94
공무원수(10,000명당)	61.58	16.40	126.90	55.83
1인당 총예산	896687.23	302144.71	1360525.12	336309.50
중학교 학생수(1,000명당)	42.93	7.63	57.92	12.18
경운정지기(10,000명당)	609.79	332.54	965.77	389.73
병충해기(10,000명당)	379.33	243.88	843.09	277.36
동력이앙기(10,000명당)	177.82	95.66	258.98	111.04
추곡수매(10,000명당)	766.92	648.28	2301.09	1374.28
광공업종업원수(15+인구1,000명당)	260.85	93.71	43.37	32.79
생활보호대상자(10,000명당)	380.98	208.99	1186.07	385.77

4. 인구성장 수준과 지역특성의 연관성

앞 장에서 각 군의 인구성장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또한 1980-95년 기간중에는 이러한 각 군 인구성장율의 차이가 계속 유지됨으로서 각 군간의 인구규모와 성 및 연령구조의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 이어 어떤 요인들이 각 군 인구성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는 각 군의 인구성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계를 각각 별도로 분석하였으나, 이 단원에서는 다변수분석의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구성장과 지역 특성간의 관계가 인과적인 관계로 명확히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적인 다변수 분석기법보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판별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군을 인구성장속도 (집단변수, Group variable)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의 다른 특성들을 판별변수로 하여 이들의 선형결합인 정준판별함수(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를 구한다. 이때의 선형결합 즉, 판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함수값에 의해 각 군을 집단으로 분류를 할 때 잘못 분류되는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얻어진 판별함수의 값은 그 개체의 소속집단을 분류 혹은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성장 차이가 어떤 다른 특성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한다. 집단의 수를 몇 개로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먼저 판별함수의 수가 “집단수-1”이 되고 그 수가 너무 많을 경우 해석이 복잡하다는 점과 집단내 군의 수를 고려하여 집단수를 3개로 정하였다. 또한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은 자료 이용 가능한 전체의 관찰수가 94개군임으로 각 집단내 관찰수가 비슷하게 되도록 1990-95년 기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이용하여 3개의 집단($GR < -0.045$, $-0.045 \leq GR < -0.026$, $GR \geq -0.026$)으로 분류하였다.

판별변수로는 거주지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서 자료이용이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지역의 인구특성외에 지역의 물리적 특성으로서 가까운 도시까지의 거리, 철도·고속도로·수로등의 이용가능성, 농지규모, 도로포장율; 의료 및 환경여건으로 병원수, 인구 10,000명당 의료인수 및 의약품 판매업소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수, 상수도 보급율; 행정서비스 관련변수로 군내 정부기관수,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1인당 연간 예산액; 교육문화 관련 변수로 인구 10,000명당 중학생수와 고등학생수,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경제관련 변수로 농가인구비율, 인구 10,000명당 농업용 기계(경운기, 병충방제기구, 동력 이앙기), 추곡수매 실적,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종업원수, 인구 10,000명당 생활보호 대상자수 등으로 모두 1차 분석에 포함하였다.

1차분석에서는 SAS판별분석 프로그램에서 PROC STEPDISC의 증감선택법(Stepwise selection)방법에 의해 판별변수로서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은 거주지 물리적 조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속여부(고속도로가 군의 경계내를 통과하는가?)와 농지면적, 행정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수와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교육문화 변수중 30-34세 인구중 고졸이상의 구성비, 경제관련 변수 중 농가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종업원수, 인구변수중 20-24세 및 25-29세 인구의 성비등 10개 변수였다.

2차분석은 이들 판별변수와 SAS의 CANDISC 처리절차를 이용하여 정준판별함수를 구하였다. <표 4.1>은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Can 1과 Can 2의 계수를 구한 것으로 잔여판별능력의 측정치라 할 수 있는 Wilk's λ 에 의하면 첫 번째 판별함수(Can 1)와 두 번째 판별함수(Can 2)는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의 의미는 이 함수에서 계산된 판별값(Discriminant score)은 표준화변수(Z score)가 되고, 또한 각 함수값에 판별변수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이 표준화된 계수를 이용하여 각 판별함수에서 판별변수들의 중요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원판별계수(Raw coefficients)는 분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판별값을 계산할 수 있으나 판별변수간의 분포의 차이 때문에 계수들을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산된 판별값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제 1판별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20-24세의 성비,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등의 순위이고, 제 2판별함수에서는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25-29세 성비, 고속도로 접속여부, 경운정지용 기계수(+), 정부기관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는 표준화된 판별변수들의 각 집단평균 값들이다. 이들 평균값을 각 판별함수에 대입하면 각 집단의 중심점(Centroid)을 두 개의 판별함수값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모형에서의 판별분석은 10개차원(10개 판별변수)을 이들의 선형결합에 의해 2개의 차원으로 축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판별값들은 표준화된 값이므로 이 값만 가지고도 각 집단 중심점의 위치는 짐작할 수 있고 집단 중심점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첫째 정준판별함수 값(Can 1)의 경우 가장 가까운 두 집단(집단 1과 2)간의 거리가 1.4표준편차인데 비해 두 번째 정준판별함수의 경우 가장 가까운 두 집단(집단 1과 3)간의 거리가 0.11표준편차 밖에 안되어 집단간의 구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별분석에서 정준판별함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는 특성근(Eigenvalue)과 특성근의 상대비율을 이용하기도 한다. <표 4.3>은 이번 분석에서의 특성근과 그 상

대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비율을 볼 때 Can 1이 83.2%, Can 2가 16.8%로서 Can 1이 이번 분석에서 훨씬 중요한 판별함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성근과 그 상대 비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Can 1이 가장 중요한 판별함수라 할 지라도 집단과의 관계는 약할 수 있으므로 Can1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집단과 판별함수간의 정준상관계수를 볼 필요가 있다. 정준상관계수는 가변수에 의해 나타낸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준판별함수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분석에서의 eta와 같으므로, 이 값을 자승한 것은 eta square와 같다. 따라서 정준상관계수를 자승한 값은 판별함수값의 변동중 집단에 의해 설명이 되는 변동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Can 1값의 총변동 중 63.3%가 집단에 의해 설명이 되고 Can 2의 경우 25.9%가 집단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와 <표 4.5>는 판별분석결과 중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와 합동집단내 정준구조계수(Pooled within group canonical structure)를 제시한 것이다. 대체로 집단내 구조계수는 전체구조계수와 패턴은 비슷하나 다소 작은 절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가 함수값의 계산에서 각 판별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판별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각 판별계수는 다른 판별계수의 영향을 제외한 고유한 영향만을 나타냄으로 각 판별변수의 중요도를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 반면 정준구조계수는 한 판별변수와 함수값간의 단순상관계수임으로 다른 판별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준구조계수는 각 함수에서 판별변수들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더 적합한 통계치라 할 수 있고, 또한 각 함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4.4>에서 보면 Can 1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거나 광공업 종사자의 수가 많거나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군의 경우 함수값은 낮고(“-”계수를 가졌으므로), 즉 3집단에 가깝고 20-24세 성비가 높거나, 의약품 판매업소수, 공무원수 등이 많을 경우 함수값도 높은 경향이 있어 1집단에 가까움을 뜻한다.

종합하면 각 지역단위의 인구증가에 중요한 요인은 고속도로 접속여부, 학력수준, 광공업 산업시설, 공무원수와 같은 지역의 여건과 인구학적 요인으로 20-29세 연령계층의 성비 등이다.

<표 4.1> 표본전체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

(Total-sample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

변 수	Can 1	Can 2
20-24세 인구 성비	1.12017	0.11824
25-29세 인구 성비	0.00946	0.83499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0.34825	1.00443
고속도로 (km)	-0.20492	0.62343
정부 기관수	0.17556	0.55247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0.41113	-0.07046
전답 (ha)	0.31628	-0.42079
공무원수 (10,000명당)	0.53034	0.07915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0.47880	0.60352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09929	-0.47048
Wilk's λ	0.2712	0.7408
Approx. F	7.63 (20, 166)	3.26 (9, 84)
Pr > F	0.0001	0.0019

* ()안의 숫자는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

<표 4.2> 표준화된 변수와 판별함수에 의한 표본전체 집단평균

(Total-sample standardized class mean)

변 수	집단 1	집단 2	집단 3
20-24세 인구 성비	0.74128	0.18405	-0.91957
25-29세 인구 성비	0.01843	0.28027	-0.28994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0.53959	0.04609	0.49494
고속도로 접속여부	-0.55970	0.19739	0.36848
정부 기관수	0.21509	0.16381	-0.37378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0.43131	0.05593	-0.48549
전답 (ha)	0.10869	0.08250	-0.18861
공무원수 (10,000명당)	0.37982	0.20666	-0.58002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0.08035	0.34570	-0.41525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43975	-0.28035	0.71134
Can 1	1.50190	0.14640	-1.64373
Can 2	-0.45971	0.83387	-0.34810

<표 4.3> 특성근(Eigenvalue)에 의한 중요도의 측정

정준판별함수	특성근	상대비율 %	정준상관계수
Can 1	1.7316	83.2	0.796 (0.633)
Can 2	0.3500	16.8	0.509 (0.259)

주: ()내는 eta square의 추정치임.

<표 4.4> 전체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

변수명	Can 1	Can 2
20-24세 인구 성비	0.87068	0.14624
25-29세 인구 성비	0.17868	0.36428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0.53123	0.12910
고속도로 접속여부	-0.46583	0.32958
정부 기관수	0.31552	0.18686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0.47746	0.01817
전답 (ha)	0.15928	0.09406
공무원수 (10,000명당)	0.51012	0.22191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0.27992	0.44198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61401	-0.31066

<표 4.5> 합동 집단내 정준구조계수(Pooled within group canonical structure)

변수명	Can 1	Can 2
20-24세 인구 성비	0.73487	0.17557
25-29세 인구 성비	0.11119	0.32246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0.35565	0.12294
고속도로 접속여부	-0.30857	0.31056
정부 기관수	0.19819	0.16696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0.31236	0.01691
전답 (ha)	0.09727	0.08171
공무원수 (10,000명당)	0.34037	0.21062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0.17856	0.40105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43304	-0.31167

5. 결론 및 장래전망

1960년이래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의 부산물로 한국의 인구는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농촌인구의 구조변동을 관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촌으로 간주되는 행정구역인 면부의 인구를 중심으로 1975년부터 최근 20년동안 일어났던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인구의 급속한 팽창과 농촌인구 절대수의 급속한 감소: 1960년 농촌인구(면부인구)는 총인구의 63% 혹은 1,570만 명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총인구의 13.6% 혹은 608만 명(군부인구는 총인구의 21.5% 혹은 95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제거할 때 각 군 연평균 인구감소율의 평균치는 기간별로 1980-85년 -1.9%, 1985-90년 -2.7%, 1990-95년 -3.2%로서 감소추세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5년 각 군 인구규모의 분포는 각 군간의 인구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구 규모가 3만미만인 군이 9개군(9%)나 된다. 각 군 인구성장율의 분포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1990-95년 기간 인구가 증가한 군이 12개군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6%미만인 군이 7개군 이었다. 인구증가율 -9% ~ -6%일 경우 인구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는 8년과 12년이 걸리므로 이들 지역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인구의 성비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즉 1975년이래 최근 20년간 농촌인구의 성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도시와는 달리,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비의 변동은 연령에 따라서는 아주 다른 유형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0-5세 인구의 성비는 시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10여년간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노동력인구의 성비는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40대이후의 비교적 고령의 노동력인구의 성비는 최근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도시보다 낮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성비는 1985년이래 80미만의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도시보다는 높다.

(3)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도시와 농촌간에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면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기초로 농촌인구의 최근 변화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으며, 반대로 50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한국에서는 농촌인

구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경우 유소년 인구구성 비율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 군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분포에 있어서 0-14세 인구와 65세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간별로 볼 때 0-14세 인구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군간의 격차가 차츰 감소할 것이나, 65세이상 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확산되고 있어 격차가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4) 동시에 면부로 대표되는 농촌에서는 15-49세의 가임여성인구의 절대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는 유소년의존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한국의 농촌, 특히 면부지역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학교나 대학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더 많고, 그리고 더 빨리 줄고 있다.

주요 출산연령층인 여자 25-34세 인구 구성비의 군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하향이동하고 있으나 각 군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장래 출산율 수준의 군별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5) 통상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초혼연령이 더 높았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서 관찰되던 초혼연령의 이러한 차별현상은 198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많은 적령기 농촌여자의 도시로의 이동에서 비롯되었고 최근 농촌남자의 결혼이 쉽지 않다는 사회적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같은 추이는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는 100미만에서 160이상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성비 130이상인 군이 50%를 넘으므로 적령기 남초현상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적령기 성비는 적으나마 집중해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에는 다소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6) 면부지역을 중심으로 관찰한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이 최근 높은 수준에서 비교적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30-34세 인구만을 보았을 때, 1975년의 경우만 해도 농촌인구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남자-51.7%; 여자-70.5%),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남자의 경우 19.5%에 불과했으며, 여자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 낮아서 겨우 4.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고졸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했다(남자의 경우, 76.2%; 여자의 경우, 63.4%). 농촌인구의 이와같은 고학력인구 비율의 증가는 시부에서 전입하는 인구의 높은 학력수준의 영향이 크다.

(7)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면부지역인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표면상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남자의 경우 두드

러진 현상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비교하여 아주 다른 변화의 유형을 나타낸다. 1975년 이래 지난 20년동안 14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1975년의 65.6%로부터 1995년의 52.5%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구성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취업상태는 크게 달라졌다. 즉 전업으로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줄고 가사 또는 통학하면서 틈틈히 일하는 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변화는 농촌지역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농촌 취업자의 산업별 업종이 성별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크게 다양화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종래 농어업 일변도였던 산업별 취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선 남자의 경우 1975년에 80.2%를 차지하고 있던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995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51.7%로 줄었으며, 여자의 경우도 종래의 87.4%로부터 64.2%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에 남자의 경우, 제조업(15.0%), 도소매업 및 숙박업(11.4%), 건설업(7.3%) 등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여자의 경우도 ·소매·숙박업(15.3%), 제조업(9.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6.6%) 순으로 1975년에 비해 취업선이 더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노동력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의 수는 그 분포의 모양은 다소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군별로 5명 미만에서 400이상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 또한 이와같은 취업유형은 같은 면부라도 통합시와 군 단위의 면부간에 그 유형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군단위의 면부가 농림·어업·수렵업 등과 같은 농촌적인 산업에 집중되는 정도가 통합시의 면부보다 약간 더 높았다.

(10) 그밖에 면부인구의 고용상태도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95년 센서스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1975년에 비해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주는 대신 피고용자,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다. 현재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는 달리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남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거나 남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최근 크게 줄고 있다.

(11) 1965-90년 기간 중 매 5년간 시·군부간 인구이동에 의한 군부인구의 감소율은 -9.1%에서 -15.2%까지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1990-95년 기간에는 -8.4%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0-95년 기간에 있었던 통합시를 비롯한 일련의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도 있으나, 주로 도시→농촌 이동인구의 감소와 농촌→도시 이동인구의 증가에 의한 도·농간 인구이동 추세의 변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료상의 제한 때문에 정확한 추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2) 군인구의 성장수준을 판별하는 데 유의한 변수는 거주지 물리적 조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속여부(고속도로가 군의 경계내를 통과하는가?)와 농지면적, 행정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수와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의약

품 판매업소수, 교육문화 변수중 30-34세 인구중 고졸이상의 구성비, 경제관련 변수중 농가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종업원수, 인구변수중 20-24세 및 25-29세 인구의 성비등 10개 변수였다. 이중 판별에 가장 기여가 큰 단일변수로는 20-24세 인구의 성비였다.

농촌의 가구구성과 가족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1960년이래 농촌의 평균가구원수가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수가 도시보다 더 적어졌다. 전통적으로 농촌가구는 도시와는 달리 가구원수가 많은 것이 주요한 특성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성은 199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여 도시의 평균 가구원수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농촌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1인가구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면부에서 크게 늘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는 시부의 경우와는 달리 고령으로 인한 사별이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는 농촌에서 가족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각 군 1인가구의 비율은 10%미만에서 22%이상까지 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분포의 모양은 상향이동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도 보여 장래에는 20%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군간에 동질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가족구성면에서 농촌가구는 아직도 2세대가족이 주류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1세대가족의 비율이 최근 크게 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55세이상 고령의 부부가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결과는 많은 수의 농촌가족은 형태면에서는 핵가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자녀가 성장하여 농촌을 떠난후 형성되는 1세대 가족이라는 점에서 도시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농촌가구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4) 이와같은 가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는 가구주의 직업구성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즉 대부분의 농촌가구주는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가구주의 취업형태도 종전과는 달리 탈농업적 산업과 직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주는데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

이상의 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60년이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인구변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노령인구를 주축으로 하는 인구구조로 변모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농촌의 인구는 55세이상의 고령인구의 높은 구성비율과 가입여성인구의 절대수 감소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율이 떨어짐에 따라 농촌의 인구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젊은 인구의 도시이주로 인한 가구분화현상도 농촌인구의 노령화추세

를 한층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시 종래와는 다른 형태로 농촌생활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서 한국에서 전형적인 농촌인구로 간주되는 면부인구는 급격하게 탈농업적 취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농촌의 인구와 가족구조의 주요한 변화중 가장 관심사가 되는 특성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증가, 고연령층의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증대 등이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농촌간의 이동인구와 그들의 구성이 농촌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1인가구는 도시와는 달리 대부분이 도시화로 인한 가구분화현상과 배우자의 사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가구로서 대부분이 여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노인가구가 특별히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생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 가구는 노동력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업을 자영하고 있는 가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인구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자료를 이용한 가구 및 가족분석은 불가피하게 가구 및 가족의 구성과 형태의 분석에만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자료의 제약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된다.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초혼연령과 자녀출산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제외되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의 억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제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초혼연령과 자녀출산항목은 비단 출산력분석을 위해서만 필요한 조사항목이 아니라 가족분석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사항목이다. 특히 초혼연령에 관한 항목은 우리나라처럼 혼인 신고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조사항목이 된다. 따라서 종전부터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조사되던 항목을 센서스에서 제외하는 데는 보다 많은 이용자의 의견수렴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표 목 차 〉

<표 2.1> 시·군부 인구분포와 연평균 인구증가율, 1960-95	8
<표 2.2> 연령별 성비의 변화: 1975-95	10
<표 2.3> 거주지역별 인구의 연령구성과 관련된 주요지표의 변화	12
<표 2.4> 성별 초혼연령의 변동: 1955-95	13
<표 2.5> 성 및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동: 1966-1995	14
<표 2.5b> 30-34세 인구의 교육수준: 1975-95, 면부·시부인구	16
<표 2.6> 성별 면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1975-95	17
<표 2.7>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19
<표 2.8> 성별 면부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율: 1975 및 1995	20
<표 2.9> 성별 면부인구의 고용상태의 변화, 1975-95	21
<표 2.10> 기간 및 이동형태별 총이동인구와 이동율	23
<표 2.11>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특성분포, 1990-95	24
<표 3.1>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수	26
<표 3.2> 연평균 인구 증가율에 따른 군의 수	26
<표 3.3> 평균 가구원수별 군의 분포	27
<표 3.4> 각 군 1인 가구비율의 분포, 1985-95.	27
<표 3.5> 각 군의 성비의 분포	30
<표 3.6> 각 군의 0-1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31
<표 3.7> 각 군의 15-6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31
<표 3.8> 각 군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의 분포	32
<표 3.9> 각 군 여자 총인구에 대한 주요 출산연령층(25-34세) 인구의 구성비	33
<표 3.10> 각 군 20-24세 연령계층 인구의 성비, 1985-90	33
<표 3.11>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 1985-95.	34
<표 3.12> 각 군 교육수준의 분포, 1985-95.	35
<표 3.13> 각 군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수의 분포, 1985-95.	35
<표 3.14> 인구증가율 최상위군과 최하위군 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비교, 1995.	36

<표 4.1> 표본전체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	40
<표 4.2> 표준화된 변수와 판별함수에 의한 표본전체 집단평균	40
<표 4.3> 특성근(Eigenvalue)에 의한 중요도의 측정	41
<표 4.4> 전체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	41
<표 4.5> 합동 집단내 정준구조계수	41

[요약]

농촌인구의 변화와 장래전망

김남일 · 최순

(동아대학교 인구 및 지역발전연구소)

이 논문은 급격히 변모하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제반 변동의 실상과 유형, 그리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근 3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농촌인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지금까지 농촌인구에 관한 연구는 전체 농촌인구의 특성과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춘 총괄적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인이나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총괄적 분석에서는 평균적인 농촌의 인구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각 지역단위 고유의 농촌 인구구조문제 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단위의 농촌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인구구조와 관련된 특성의 총괄적 분석과 함께 지역단위의 분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료로는 그간의 인구센서스 보고서들과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자료 Tape 이 이용되었으며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960년이래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의 부산물로 한국의 인구는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농촌인구의 구조변동을 관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촌으로 간주되는 행정구역인 면부의 인구를 중심으로 1975년부터 최근 20년동안 일어났던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인구의 급속한 팽창과 농촌인구 절대수의 급속한 감소: 1960년 농촌인구(면부인구)는 총인구의 63% 혹은 1,570만 명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총인구의 13.6% 혹은 608만 명(군부인구는 총인구의 21.5% 혹은 95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제거할 때 각 군 연평균 인구감소율의 평균치는 기간별로 1980-85년 -1.9%, 1985-90년 -2.7%, 1990-95년 -3.2%로서 감소추세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5년 각 군 인구규모의 분포는 각 군간의 인구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구 규모가 3만미만인 군이 9개군(9%)나 된다. 각 군 인구성장율의 분포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1990-95년 기간 인구가 증가한 군이 12개군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6%미만인 군이 7개군 이었다. 인구증가율 -9% ~ -6%일 경우 인구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는 8년과 12년이 걸리므로 이들 지역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인구의 성비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즉 1975년이래 최근 20년간 농촌인구의 성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도시와는 달리,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비의 변동은 연령에 따라서는 아주 다른 유형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0-5세 인구의 성비는 시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10여년간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노동력인구의 성비는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40대이후의 비교적 고령의 노동력인구의 성비는 최근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도시보다 낮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성비는 1985년이래 80미만의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도시보다는 높다.

(3)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도시와 농촌간에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면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기초로 농촌인구의 최근 변화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으며, 반대로 50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한국에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경우 유소년 인구구성 비율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 군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분포에 있어서 0-14세 인구와 65세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간별로 볼 때 0-14세 인구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군간의 격차가 차츰 감소할 것이나, 65세이상 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확산되고 있어 격차가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4) 동시에 면부로 대표되는 농촌에서는 15-49세의 가임여성인구의 절대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는 유소년의존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한국의 농촌, 특히 면부지역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령인구

의 감소는 고등학교나 대학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더 많
이, 그리고 더 빨리 줄고 있다.

주요 출산연령층인 여자 25-34세 인구 구성비의 군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하향이
동하고 있으나 각 군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장래 출산율 수준의 군별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5) 통상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초혼연령이 더 높았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서 관찰되던 초혼연령의
이러한 차별현상은 198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많은 적
령기 농촌여자의 도시로의 이동에서 비롯되었고 최근 농촌남자의 결혼이 쉽지 않다는
사회적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같은 추이는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에서도 잘 나
타나고 있다.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는 100미만에서 160이상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성비 130이상인 군이 50%를 넘으므로 적령기 남초현상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적령기 성비는 적으나마 집중해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에는
다소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6) 면부지역을 중심으로 관찰한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이 최근 높은 수준에서 비
교적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30-34세 인구만을 보았을 때, 1975년의 경우만 해도 농
촌인구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남자-51.7%; 여자
-70.5%),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남자의 경우 19.5%에 불과했으며,
여자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 낮아서 겨우 4.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에
는 고졸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했다(남자의
경우, 76.2%; 여자의 경우, 63.4%). 농촌인구의 이와같은 고학력인구 비율의 증가는
시부에서 전입하는 인구의 높은 학력수준의 영향이 크다.

(7)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면부지역인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표면상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농촌 취업자의 산업별 업종이 성별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크게 다양화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종래 농어업 일변도였던 산업별
취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선 남자의 경우 1975년에 80.2%를 차지하고 있
던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995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51.7%로 줄었으며, 여자의
경우도 종래의 87.4%로부터 64.2%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에 남자의 경우, 제조업
(15.0%), 도소매업 및 숙박업(11.4%), 건설업(7.3%) 등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취
업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도.소매·숙박업(15.3%), 제조업(9.4%), 사

회 및 개인서비스업(6.6%) 순으로 1875년에 비해 취업선이 더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노동력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의 수는 그 분포의 모양은 다소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군별로 5명 미만에서 40이상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그밖에 면부인구의 고용상태도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95년 센서스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1975년에 비해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주는 대신 피고용자,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다. 현재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는 달리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남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거나 남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최근 크게 줄고 있다.

(9) 1965-90년 기간 중 매 5년간 시·군부간 인구가동에 의한 군부인구의 감소율은 -9.1%에서 -15.2%까지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1990-95년 기간에는 -8.4%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0-95년 기간에 있었던 통합시를 비롯한 일련의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도 있으나, 주로 도시→농촌 이동인구의 감소와 농촌→도시 이동인구의 증가에 의한 도·농간 인구가동 추세의 변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료상의 제한 때문에 정확한 추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군인구의 성장수준을 판별하는 데 유의한 변수는 거주지 물리적 조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속여부(고속도로가 군의 경계내를 통과하는가?)와 농지면적, 행정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수와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교육문화 변수중 30-34세 인구중 고졸이상의 구성비, 경제관련 변수중 농가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종업원수, 인구변수중 20-24세 및 25-29세 인구의 성비등 10개 변수였다. 이중 판별에 가장 기여가 큰 단일변수로는 20-24세 인구의 성비였다.

농촌의 가구구성과 가족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1960년 이래 농촌의 평균가구원수가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수가 도시보다 더 적어졌다. 전통적으로 농촌가구는 도시와는 달리 가구원수가 많은 것이 주요한 특성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성은 199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여 도시의 평균 가구원수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1인가구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면부에서 크게 늘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는 시부의 경우와는 달리 고령으로 인한 사별이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는 농촌에서 가족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각 군 1인가구의 비율은 10%미만에서 22%이상까지 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분포의 모양은 상향이동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도 보여 장래에는 20%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군간에 동질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60년이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인구변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노령인구를 주축으로 하는 인구구조로 변모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농촌의 인구는 55세이상의 고령인구의 높은 구성비율과 가임여성인구의 절대수 감소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율이 떨어짐에 따라 농촌의 인구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젊은 인구의 도시이주로 인한 가구분화현상도 농촌인구의 노령화추세를 한층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시 종래와는 다른 형태로 농촌생활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서 한국에서 전형적인 농촌인구로 간주되는 면부인구는 급격하게 탈농업적 취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와 가족구조의 주요한 변화중 가장 관심사가 되는 특성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증가, 고연령층의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증대 등이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농촌간의 이동인구와 그들의 구성이 농촌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1인가구는 도시와는 달리 대부분이 도시화로 인한 가구분화현상과 배우자의 사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가구로서 대부분이 여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노인가구가 특별히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생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 가구는 노동력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업을 자영하고 있는 가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인구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표자료 Ⅱ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 양승주 연구위원

五十年來

五十年來

五十年來

五十年來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정책방안

김태홍 · 양승주

(한국여성개발원)

- 목 차 -

I. 서 론

II.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특성

III. 지역별 맞벌이가구의 특성과 유형

IV. 지역별 여성의 취업구조와 특성

V. 지역별 여성정책의 과제와 방향

I. 서 론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우리 나라 여성인구의 구조와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여성인구의 변화는 가족, 사회 및 경제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여성 인구구조는 과거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앞으로 새로운 사회 및 경제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성비불균형, 여성의 만혼, 이혼여성의 증가로 인해서 미혼여성 단독가구와 모자가구가 증대할 것이고, 출생아동수의 감소와 여성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서 여성의 탈자녀양육기와 빈둥지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기혼여성의 자아실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가족문제가 대두되고,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의 증대로 인해서 보육시설과 같은 여성 취업지원시설 및 제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¹⁾ 또한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진학률의 증대로 인해서 여성인력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인구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 진전과 노인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복지예산지출에 대한 압력 증대와 함께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인구특성 및 구조변화는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를 대두시킬 것으로 보인다.

1) 장영식 외(1996), 통계청(1995).

여성인구와 관련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의 발생은, 여성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대하고 정확한 여성정책의 방향설정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반증해준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의 진전으로 인해 제반 여성정책들이 지역단위로 수립시행될 것이고, 지역특성에 따른 여성정책의 수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여성인구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특성

1. 여성인구의 지역별 분포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1995년 현재 4,509만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2,270만명, 여성이 2,239만명으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약간 많다. 성별 인구증가율을 보면 1980년대에는 여성 인구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반전되어 남성의 인구증가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 그 결과 여성인구비율은 1980년 49.54%에서 1989년 49.69%로 증가하였다가, 1991년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49.63%가 되었다.

1995년 우리 나라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전체 인구의 23.0% 그리고 경기도에 17.3%, 인천시에 5.2%가 거주하고 있다. 즉, 총인구의 4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인구의 지역별 분포변화를 보면, 6개 市 중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비해서 각각 감소한 반면에,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의 여성인구분포는 증가하였다. 9개 도를 보면 경기도와 경남의 여성인구분포는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7개 도의 인구분포는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1990년에 14.2%에서 1995년에는 17.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1〉 남녀인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1990			199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성비
서울	24.4	24.4	24.4	23.0	22.9	22.9	100.9
부산	8.6	8.9	8.7	8.5	8.6	8.6	99.3
대구	5.1	5.2	5.1	5.5	5.5	5.5	101.5
인천	4.2	4.2	4.2	5.2	5.1	5.2	102.0
광주	2.6	2.6	2.6	2.8	2.8	2.8	99.4
대전	2.4	2.4	2.4	2.9	2.8	2.9	102.2
경기	14.2	14.1	14.2	17.3	17.0	17.1	102.0
강원	3.7	3.6	3.6	3.3	3.3	3.3	102.1
충북	3.2	3.2	3.2	3.1	3.1	3.1	100.5
충남	5.8	5.7	5.8	4.0	4.0	4.0	101.1
전북	4.7	4.8	4.8	4.2	4.3	4.3	98.3
전남	4.7	4.6	4.6	4.6	4.7	4.6	98.1
경북	6.6	6.6	6.6	6.0	6.0	6.0	99.6
경남	8.5	8.5	8.5	8.6	8.6	8.6	101.2
제주	1.2	1.2	1.2	1.1	1.2	1.1	97.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8

출처 : 통계청(1991, 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지역별 여성인구증가율을 보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1990년-95년 사이에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외에도 대전과 광주의 여성인구증가율이 2%대로서 다소 높았고, 경남(1.1%), 서울(0.5%), 부산(0.2%), 대구(0.4%), 충북(0.3%), 제주(0.3%)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남(-2.4%), 충남(-1.6%), 강원(-1.6%), 전북(-1.48%), 경북(-0.58%) 등에서는 여성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시도별로 남녀성비를 보면²⁾,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97.2이었다. 즉, 제주도는 여성인구의 상대적인 규모(여성인구-남성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이외에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시, 광주시,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이 중에 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로서 102.2였고 그 다음은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순이었다.

2)성비의 정의는 「남성인구/여성인구*100.

2. 연령계층별 여성인구의 구조

1995년 6개 시의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전체적으로 9개 도보다 높았다. 6개 시의 인구구조를 보면 노령인구비율은 유사했으나, 서울시와 부산시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나머지 4개 시의 구성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9개 도의 인구구조를 보면 경기도는 6개 시의 연령별 인구구조와 유사하여,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4.8%이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69.5%이었다. 이에 따라 9개도의 총부양비는 6개시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경남의 총부양비는 45% 내외로서, 일본의 43.6%(1995년 기준)보다 높고 거의 독일(45.6%) 수준에 육박하였다.

시도별 남녀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남성 생산가능인구비율은 6개 시와 9개 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여성 생산가능인구비율의 차이는 상당히 컸다. 즉, 6개 시의 여성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0-75%인데 비해서 9개 군은 65-69% 수준이었다.

1995년 현재 주요 육아대상 연령층인 만4세미만 아동 수는 3,427,409명이다.³⁾ 4세미만 아동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전체 아동의 23.7%(78.6만명)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은 경기도(20.3%; 67.2만명)이었다. 나머지 시의 만4세미만 아동분포를 보면, 부산이 8.0%, 인천 5.4%, 대구 4.5%, 광주 2.6%, 대전 2.4%였다. 9개 도를 보면 경남이 9.0%, 경북 5.8%, 전남 4.4%, 충남과 전북이 각각 3.5%, 강원과 충북이 각각 2.8%, 제주도가 1.1%이었다. 1995-2000년 동안에 만4세미만 아동인구는 연평균 0.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지역은 경기도였다.(연평균 증가율 3.0%). 6개 시의 증감율을 보면, 인천(연평균 1.75%), 광주(1.14%), 대전시(0.74%)는 증가하는 반면에, 대구(-1.5%), 서울(-1.22%), 부산(-0.97%)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9개 도에서도 충북(0.91%), 경남(0.61%), 제주(0.5%), 경북(0.18%) 등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강원(-1.75%), 전남(-1.63%), 전북(-1.21%), 충남(-0.61%)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보육대상아동의 규모와 변동추이는 시도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한번 투입된 재원은 회수가 곤란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수립 및 시행해야 할 것이다.⁴⁾

3) 1995년의 만4세 미만 아동 수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의 자료이고, 지역 통계자료는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임.

4) 1997년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보육을 희망하는 여성근로자가 없다'(전체 조사대상기업의 50.6%)와 같은 보육에 대한 수요부족이었다. 김태홍(1997),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 정무장관(제2실), p. 59.

〈표 II-2〉 지역별 여성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서울	21.2	74.6	4.2	22.2	74.8	3.0	20.2	74.3	5.5
부산	21.9	73.5	4.6	23.2	73.6	3.2	20.6	73.4	6.0
대구	22.9	72.6	4.5	24.7	72.1	3.2	21.0	73.1	5.9
인천	25.6	69.9	4.5	26.4	70.4	3.2	24.9	69.3	5.8
광주	24.7	70.7	4.6	25.7	71.1	3.2	23.7	70.3	6.1
대전	24.4	71.0	4.6	25.6	71.2	3.2	23.3	70.9	5.8
경기	25.7	69.5	4.8	26.4	70.0	3.6	25.0	69.0	6.0
강원	21.8	70.2	8.0	22.2	71.5	6.3	21.3	68.8	9.9
충북	22.6	69.3	8.1	23.5	70.1	6.4	21.6	68.4	10.0
충남	21.2	68.9	9.9	21.8	70.4	7.8	20.5	67.4	12.1
전북	21.9	69.0	9.1	22.7	70.4	6.9	21.1	67.7	11.2
전남	21.7	67.6	10.7	22.5	69.5	8.0	20.9	65.7	13.4
경북	21.3	69.0	9.7	22.8	69.7	7.5	19.9	68.4	11.7
경남	24.5	69.1	6.4	25.8	69.7	4.5	23.2	68.5	8.3
제주	23.4	69.9	6.7	24.6	71.7	3.7	22.2	68.1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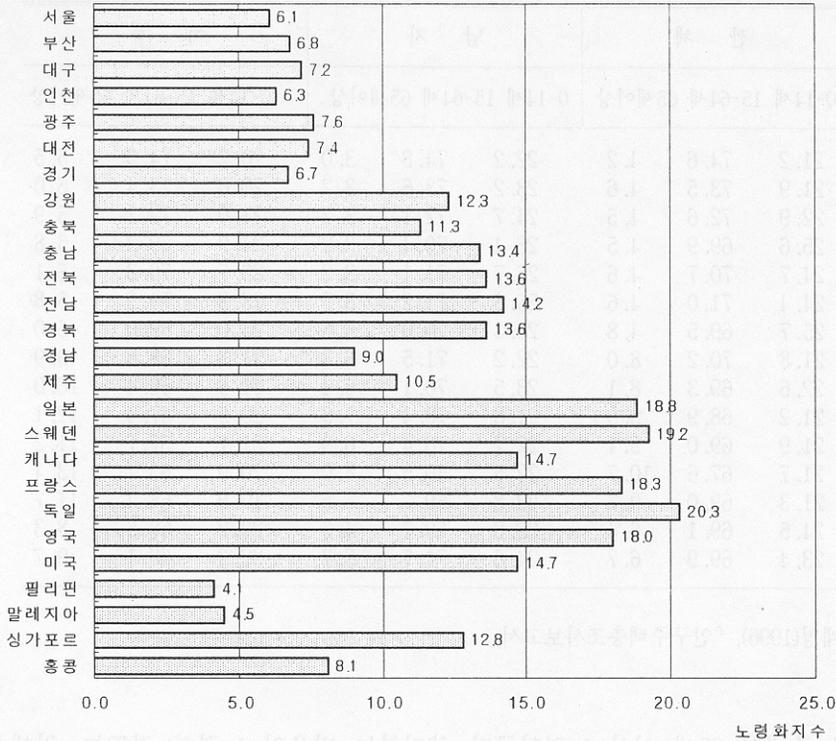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령화 정도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남성보다 여성인구에서 더욱 심하다. 이와 같은 인구의 노령화는 향후 더욱 진행되어, 6개 시의 남녀 노령인구비율은 1995년에 각각 3%내외, 6%내외에서 2000년에 4%내외, 7%내외로 증가될 것이다. 9개 도의 경우는 노령화 정도가 더욱 심하여, 1995년에 남녀 각각 7%내외, 10%내외에서 2000년에 8%내외, 12%내외로 증가될 것이다.

2000년에 여성인구의 노령화 지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높아서 14.2%, 전북과 전남이 각각 13.6%, 충남이 13.4%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은 노령화 정도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영국보다는 낮으나, 캐나다와 미국의 노령화 정도와 유사한 수준이다.(<그림 II-1>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여성노인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대책의 수립을 시급하게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고, 여성정책도 이와 같은 측면에 역점을 두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1> 각국의 여성 노령화 전망(2000년)

(단위: %)



자료 :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E. Bos, M.T. Vu, A. Levin and R.A. Bulatao(1993),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 교육정도별 여성인구의 구조

여성인구 중에서 고학력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체로 6개 시가 9개 도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시(6세 이상) 여성인구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전체 여성의 13.2%가 대졸, 7.5%가 전문대졸로서 전국에서 고학력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고학력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시로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10.2%가 대졸이었고 8.0%가 전문대졸이었다. 9개 도 중에서 고학력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전문대졸 이상; 13.1%)이었고, 그 다음은 제주도, 전북, 경남, 강원도 순이었다.

1990-95년 동안 고학력 여성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개 시에서 고학력 여성인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로서 동 기간에 대졸과 전문대졸 여성인구가 각각 연평균 10.5%, 16.1%(대전시 6세이상 여성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인천시로서 각각 13.8%, 10.5%(4.9%), 광주시가 각각 13.1%, 9.0%(2.1%) 증가하였다. 9개 도에서 경기도는 대졸과 전문대졸 여성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2%, 14.6%이었다.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에서도 6세 이상 전체여성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및 전문대졸 여성인구는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II-3> 지역별 여성 교육인구의 구성(1995)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체
서울	13.5	15.3	16.7	33.9	7.5	13.2	100.0
부산	15.7	19.0	20.1	31.1	6.6	7.5	100.0
대구	16.6	19.0	19.1	29.0	7.6	8.6	100.0
인천	17.6	17.7	17.4	36.5	4.7	6.1	100.0
광주	17.3	17.3	17.3	29.6	8.7	9.7	100.0
대전	16.9	18.4	17.2	29.4	8.0	10.2	100.0
경기	18.1	17.5	16.2	35.1	4.9	8.2	100.0
강원	23.4	26.2	17.5	23.2	5.0	4.7	100.0
충북	23.4	25.3	16.6	24.9	5.1	4.6	100.0
충남	25.8	29.9	16.5	20.9	3.6	3.2	100.0
전북	25.4	24.9	16.7	21.9	5.4	5.7	100.0
전남	30.0	28.6	15.9	19.4	3.0	3.0	100.0
경북	26.0	25.7	16.6	23.3	4.5	3.8	100.0
경남	22.9	20.4	17.2	29.5	4.7	5.3	100.0
제주	23.9	20.4	15.9	27.4	6.5	5.9	100.0

자료 : 통계청(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4. 지역별 여성인구 이동

지역별로 (만5세 이상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한) 남녀인구의 전출입현황을 보면, 1990-95년 사이에 6개 시 중에서 서울과 부산은 전입(in-migrants)보다 전출(out-migrants)이 많아서 순이동이 마이너스(-)이었다.⁵⁾ 이와 같은 6개 시의 인구이동을 1985-90년의 인구가

5) 본 논문에서 (전출인구-전입인구)는 순이동,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면 순전출(전출초과), 반대 현상이면 순전입(전입초과)라고 했음.

등과 비교하면 다른 지역은 1980년대 후반과 거의 같으나, 부산시 만 1990년 초반에 접어들면서 인구의 전출이 전입보다 더 많은 구조로 전환되었다. 9개 도의 인구이동을 보면 경기도와 경남, 제주도, 충북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더 많았다. 그 외 나머지 5개 도는 전출인구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1985-1990년의 인구이동과 비교해보면, 경남과 제주도가 전출초과지역에서 전입초과지역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의 인구이동패턴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한 구조를 보였다.

<표 II-4> 지역별 여성인구의 전출입 현황(1990-1995년)

(단위: 명)

	1990-95년						1985-90년	
	전입	남성 전출	순이동	전입	여성 전출	순이동	전체 순이동	전체 순이동
서울	9189	18830	-9,641	10303	19087	-8784	-18425	-1347
부산	2090	4228	-2,138	2266	4531	-2265	-4403	323
대구	2367	2014	353	2584	2337	247	600	1612
인천	4337	2385	1,952	4473	2452	2021	3973	4627
광주	1826	1253	573	1923	1352	571	1144	1332
대전	2481	967	1,514	2500	1024	1476	2990	1886
경기도	18349	7401	10,948	18883	7561	11322	22270	12870
강원도	1363	2501	-1,138	1351	2196	-845	-1983	-3028
충북	1590	1399	191	1556	1531	25	216	-1514
충남	1803	2265	-462	1634	2536	-902	-1364	-3539
전북	1087	1819	-732	1073	2054	-981	-1713	-3206
전남	1292	2944	-1,652	1412	3242	-1830	-3482	-5492
경북	2309	3179	-870	2412	3426	-1014	-1884	-4217
경남	3914	2835	1,079	4045	3144	901	1980	-284
제주	318	295	23	343	285	58	81	-23

자료 : 통계청(1991, 1996),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6개 시의 지역간 여성인구의 순이동(net-migration)구조를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여성인구의 전출초과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4개시는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여성인구의 순이동구조를 지역간, 이동인구의 인적특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인천시와 대전시는 모든 지역으로 여성인력이 순전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혼인상태, 학력, 연령별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인구의 이동구조를 보면,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다.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에 대해서는 순전출을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순전입구조를 보였다. 인적특성별로 보면 20-24세 연령층의 미혼여성들은 서

울시로 순전입하였고, 나머지 계층의 여성들은 순전출하였다. 부산시의 여성인구는 모든 지역(특히 수도권과 경남)으로 순전출하는 구조를 보였으며, 여성의 인적특성에 관계없이 이와 동일한 이동구조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인구의 전입초과현상을 보이는 광주와 대전은 똑같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순전출구조를, 나머지 지역(특히 광주는 전라남북도, 대구는 경상남북도)으로 부터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들 지역의 25-34세(광주:25-29세)의 대졸여성들은 순전출하는 구조를 보였고, 나머지 계층의 여성은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다.

9개도의 여성인구이동을 보면, 경기도, 충북, 경남, 제주도는 순전입을 그리고 나머지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순전출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여성인동인구의 인적특성별 이동구조를 보면, 경기도 여성인력은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순전출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순전입하였다. 경남은 수도권과 경북에 대해서는 여성인구의 순전출,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순전입되었다. 인적특성별로는 15-24세의 미혼이며 전문대졸 여성은 순전출하는데 비해서 나머지 여성들은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다. 강원도, 전남, 전북은 대체로 전 지역으로 순전출되는 구조를 가졌으며, 인적특성별로 구분해서 보아도 모든 여성들이 순전출하는 구조를 보였다. 충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으로 여성인력들이 순전출되었으며, 15-29세의 고졸 여성인력들은 순전출하고 나머지 여성집단은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다. 충남은 수도권과 대전으로 상당수의 여성 순전출이 있었던 반면에 나머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여성인구가 순전입되었다. 충남에서 30-34세의 대졸 여성인구들은 순전입되었는데 비해, 나머지 집단은 순전출되었다. 경북은 부산, 강원도 등으로부터 여성인구의 순전입이 있었던데 비해,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과 대구로의 많은 수의 여성 순전출이 있었다. 인적특성별로는 30-34세, 50-54세 대졸여성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으나, 나머지 집단은 순전출하는 구조를 보였다.

III. 지역별 맞벌이가구의 특성과 유형

1. 지역별 맞벌이가구의 분포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73.4%가 유배우가구이었다. 이들 유배우가구를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부부 중 남편만 취업한 가구(이하 남편외벌이가구)가 전체가구의 40.8%로 가장 많고,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구가 24.5%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비취업자인 가구는 6.4%이며 부부 중 부인만 취업한 가구(이하 부인외벌이가구)는 1.7%로 매우 드물었다.

시부의 경우 남편외벌이가구가 전체의 45.6%이고 맞벌이가구가 20.0%로 나타나, 전국

가구의 분포에 비해 남편외별이 가 많고 맞벌이가구가 적었다. 군부는 이와 반대로 맞벌이가구가 40.4%로 가장 많고 남편외별이가구가 24.6%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군부의 경우 농사일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이 많은데 기인한다.⁶⁾ 그러나 부인외별이가구나 부부 비취업형가구의 분포는 시부와 군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 지역별 가구유형별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단위: %)

	유배우가구					무배우가구		미혼 가구 주	미상	전체 가구수
	맞벌이 가구	남편 외별이	부인 외별이	부부 비취 업	소계	사별 가구 주	이혼 가구 주			
전국	24.5	40.8	1.7	6.4	73.4	10.8	2.2	9.4	4.1	100.0
시부	20.0	45.6	1.7	6.7	74.0	8.6	2.5	10.9	4.1	100.0
군부	40.4	24.6	1.9	5.1	72.0	18.3	1.4	4.5	3.8	100.0
서울	18.7	45.4	1.7	6.7	72.5	7.8	2.8	12.6	4.4	100.0
부산	20.0	43.9	2.5	8.0	74.4	10.8	3.2	7.6	4.0	100.0
대구	19.9	43.6	1.9	7.0	73.4	10.5	2.7	10.1	4.3	100.0
인천	20.0	49.3	1.3	6.0	76.6	7.8	2.3	9.8	3.4	100.0
광주	19.7	41.7	1.5	8.1	71.0	9.7	2.0	12.0	5.4	100.0
대전	19.8	44.1	1.6	7.2	72.7	7.5	2.3	12.5	5.2	100.0
경기	22.7	47.0	1.5	6.2	77.4	7.8	2.1	9.2	3.5	100.0
강원	27.6	33.9	2.1	7.2	70.8	13.0	1.8	9.0	5.4	100.0
충북	30.9	35.5	1.7	5.6	73.7	11.2	1.9	9.3	3.9	100.0
충남	37.7	28.9	1.5	5.7	73.8	14.6	1.2	6.5	3.8	100.0
전북	32.6	30.4	1.8	6.7	71.5	15.8	1.5	7.1	4.1	100.0
전남	39.0	24.9	1.9	4.8	70.6	19.0	1.3	4.7	4.6	100.0
경북	33.1	30.3	1.7	5.6	70.7	16.3	1.5	7.8	3.7	100.0
경남	26.9	40.1	1.7	5.0	73.7	13.2	2.0	7.5	3.7	100.0
제주	34.1	24.6	2.0	4.0	64.7	18.9	3.3	8.6	4.6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6) 생애사건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추이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로환경이 상당히 경직적이어서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에 따라 결혼·출산과 함께 대부분 퇴직한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 자신이 업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임금근로자가 직면하는 남녀차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여도 취업을 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진 군부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제조업, 금융업,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시부보다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보다 세분하여 유배우가구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6개 시는 맞벌이 가구비율이 낮아서 20% 내외였고, 9개 도에서는 경기와 강원, 그리고 경남을 제외하면 모두 30%를 상회하였다. 9개 도에서 맞벌이 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충남(37.7%)이었으며, 전남(39.0%), 제주(34.1%), 경북(33.1%), 전북(32.6%), 충북(30.9%)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기도는 9개 도 중에서 22.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강원도(27.6%)와 경남(26.9%)이었다.

2. 지역별 맞벌이가구의 취업특성

맞벌이가구의 경제활동상태별 유형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가진 가구가 69.3%이고, 나머지 30.7%의 맞벌이 부부는 경제활동유형이 달랐다. 6개 시에서는 서울, 대전, 부산시가 그리고 9개 도에서는 전남, 제주도,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맞벌이 모두 '주로 일하는'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⁷⁾ 이에 비해 충남, 경북, 경남, 강원도는 남편은 주로 일하고 부인은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는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충남은 맞벌이 가구의 50.4%가 남편은 주로 일하고 부인은 틈틈이 일하는 유형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36.1%는 부부가 동일한 종사상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3.9%는 부부가 서로 다른 종사상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6개 시는 맞벌이 부부 모두가 임금근로자인 가구가 40-45% 정도이었고, '남편이 자영업자-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가 20-30% 정도였다. 6개시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는 상대적으로 부부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광주시는 '남편 자영업자-부인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9개 도를 보면 경기도는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가 6개 시와 유사하였다. 전남, 충남, 전북, 경북은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율이 65% 이상이었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율은 극히 낮아서 대체로 15% 미만이었다. 특이한 점은 제주도와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남편이 기업주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남과 강원도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이고 부인이 자영업자인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가 상당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여성은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된다. 따라서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은, 6개 시와 경기도, 제주도는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취업지원정책이

7) 맞벌이 부부 모두가 주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75.5%, 부산시 75.0 대전시 75.5%, 전남 77.8%, 제주도 76.9% 등이었다.

나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정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맞벌이 가구 중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높은 전남, 충남, 전북, 경북, 충북, 강원, 경남 등에서는, 무급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맞벌이부부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64.5%이고, 서로 다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맞벌이가구가 35.5%이었다. 6개 시의 맞벌이 취업업종을 보면 대구와 인천은 상대적으로 부부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약 19% 내외로 높았다. 광주와 대전시는 부부 모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한 광주시는 부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10.2%로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남편 금융업-부인 금융업', '남편 금융업-부인 사회서비스업'의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단위 : %)

	남편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기업주	기타	맞벌이 전체
	부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무급가족	유형	
서울		44.7	6.6	5.9	5.0	17.8	8.4	11.6	100.0
부산		42.7	10.0	4.6	4.3	22.0	7.8	8.6	100.0
대구		39.2	9.4	5.6	5.5	24.4	8.0	7.9	100.0
인천		46.0	7.7	5.1	4.6	19.9	6.1	10.6	100.0
광주		34.0	11.1	4.8	3.5	28.9	8.5	9.2	100.0
대전		39.7	10.9	3.9	5.3	22.2	8.4	9.6	100.0
경기		41.7	7.7	5.6	4.9	25.1	6.0	9.0	100.0
강원		21.1	8.7	3.0	6.7	49.3	4.8	6.4	100.0
충북		21.0	7.1	4.7	3.2	55.4	0.2	8.4	100.0
충남		11.8	4.7	4.1	5.6	66.5	3.3	4.0	100.0
전북		14.9	6.0	2.2	3.4	65.2	4.2	4.1	100.0
전남		9.1	6.4	1.4	3.4	73.2	3.3	3.2	100.0
경북		14.8	6.1	3.1	4.3	64.9	3.0	3.8	100.0
경남		24.8	9.2	3.2	3.8	48.7	4.8	5.5	100.0
제주		20.0	8.5	2.4	3.9	51.4	7.0	6.8	100.0
전국		30.3	7.5	4.3	4.5	40.3	5.7	7.4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9개 도를 보면 경기도는 부부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다른 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으나 6개 시도보다는 높아서 13.6%였고, 부부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도 14.8%로서 나머지 8개도 뿐만 아니라 광주나 대전시보다도 높았다. 나머지 도를 보면 지역경제구조를 반영하여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60% 내외였다. 그리고 경남과 충북은 부부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부부 모두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혹은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직종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58.7%이었고, 직종이 서로 다른 경우가 41.3%이었다. 지역별로는 6개 시는 9개 도에 비해서 부부 모두가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판매직, 기능원, 단순노무직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농어업직인 가구의 비율은 낮았다. 6개 시는 맞벌이가구의 직종구조가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대전과 광주는 상대적으로 부부 모두가 전문가인 가구비율이 높았다. 인천시는 부부 모두가 준전문가인 가구비율은 나머지 5개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서비스 및 판매직인 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과 부산은 부부 모두가 기능원인 가구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특징을 보였다.

9개 도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취업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부부 모두 농어업관련 숙련근로자인 가구비율이 상당히 높고, 부부 모두가 서비스 및 판매직근로자인 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이외 경기, 전북, 경남, 강원도는 부부가 전문직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남은 남편이 기능공-부인 판매서비스직, 부부가 모두가 기능원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제주도는 부부 모두가 단순노무직인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 맞벌이부부의 직종별 고용구조

(단위 : %)

	남	전문가	준	준	준전문가	서비스	농	기능원	기능원	단순	기타	맞벌이
	편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판매직	어업직	기능원	기능원	노무직	기타	맞벌이
부	전문가	준	사무	서비스	서비스	농	서비스	기능원	단순	유형	전체	
인	전문가	전문가	직원	판매직	판매직	어업직	판매직	기능원	노무직	유형	전체	
서울	3.9	2.4	3.4	2.8	22.5	0.3	3.9	9.0	2.6	49.2	100.0	
부산	3.2	1.8	1.1	2.8	22.4	3.6	5.2	8.6	2.9	48.4	100.0	
대구	3.9	1.4	0.7	1.1	22.4	5.0	4.0	7.2	2.0	52.3	100.0	
인천	1.9	3.3	1.8	2.9	16.9	6.5	4.7	7.6	2.1	52.3	100.0	
광주	4.8	2.1	1.1	2.4	21.3	10.0	3.5	3.5	3.2	48.1	100.0	
대전	5.5	2.7	2.3	3.1	23.4	4.7	5.1	3.7	2.3	47.2	100.0	
경기	2.3	2.8	1.7	2.5	16.3	13.3	3.7	4.8	2.4	50.2	100.0	
강원	2.0	1.5	0.7	1.4	16.9	38.2	2.7	1.6	2.4	32.6	100.0	
충북	1.5	1.4	0.5	1.5	13.0	44.6	2.1	1.5	1.7	32.2	100.0	
충남	1.6	1.0	0.5	0.9	9.7	61.8	1.5	1.4	0.9	20.7	100.0	
전북	2.3	0.8	0.7	1.1	11.3	56.7	1.7	1.9	1.2	22.3	100.0	
전남	1.1	0.8	0.3	1.1	9.1	66.3	1.5	1.5	1.3	17.0	100.0	
경북	1.2	1.0	0.3	1.0	8.9	59.0	1.7	1.5	1.1	24.3	100.0	
경남	2.1	1.2	0.8	1.6	12.8	39.4	3.1	2.0	1.4	35.6	100.0	
제주	1.6	0.4	0.7	1.6	13.4	44.0	2.3	0.8	3.2	32.0	100.0	
전국	2.5	1.9	1.3	2.0	16.0	28.3	3.1	4.4	2.0	38.5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IV. 지역별 여성의 취업구조와 특성

1.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특징

1995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53.7%는 유업상태에 있는 반면에, 46.3%는 무업상태에 있었다.8)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유업율은 72.3%로서 여성의 36.5%보다 훨씬 높았다. 지역별 여성 유업율을 보면, 군부는 51.1%인데 비해서 시부는 33.9%에 지나지 않았다. 유업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해서 보면, 남성은 대부분이 주로 일하고 있었고(남성 생산가능인구의 71.0%), 일하지 않은 남성인력은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14.2%), 연로연소하기 때문(6.8%)이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였던 남성도 5.3%로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서 여성은 주로 일하는 비율이 28.9%, 가사를 돌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비율이 43.7%,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11.5% 등이었다.

<표 III-33> 지역별 남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전 지역			시 부			군 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서울	51.3	70.6	33.4	51.3	70.6	33.4	-	-	-
부산	49.3	67.7	32.5	49.3	67.7	32.5	-	-	-
대구	49.6	69.1	31.9	49.6	67.1	31.9	-	-	-
인천	53.6	76.3	31.6	53.6	76.3	31.6	-	-	-
광주	47.3	65.1	30.5	46.3	65.1	30.5	-	-	-
대전	48.8	67.6	31.0	48.8	67.6	31.0	-	-	-
경기도	55.2	76.8	34.4	54.7	77.0	33.3	57.3	75.9	38.9
강원도	53.3	69.0	38.5	50.4	66.4	35.5	59.9	75.0	45.5
충북	54.9	70.7	39.9	50.2	67.8	33.3	62.6	75.6	50.6
충남	61.3	74.5	45.8	57.7	73.5	42.7	61.3	75.4	48.7
전북	53.9	69.0	40.5	50.4	66.8	35.5	67.8	77.5	59.5
전남	61.3	75.1	49.3	52.3	71.5	35.1	68.9	78.1	61.0
경북	58.6	74.5	44.3	56.0	73.0	40.6	66.4	79.1	55.6
경남	56.5	75.5	39.2	54.4	75.0	35.2	65.0	77.7	54.4
제주	61.2	73.1	50.9	57.4	72.0	44.8	67.9	75.1	61.8
전체	53.7	72.3	36.5	52.1	71.5	33.9	63.2	76.7	51.1

자료 : 통계청(1997),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8)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로 일하였음은 '199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이었음. 그러나 1995년 조사에서 주로 일하였음은 '지난 1개월 동안 15일 이상 돈벌이 또는 생업에 주로 종사한 사람'이고 또한 틈틈이 일함은 '지난 1개월동안 3일 이상 15일 미만 수입있는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지역별 전체 유업율을 보면, 대체로 6개 시도보다는 9개도의 유업율이 더 높았다. 6개시 중에서는 인천(53.6%), 서울(51.3%)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광주(47.3%)의 유업율이 가장 낮았다. 9개 도에서는 충남(61.3%), 전남(61.3%)의 유업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의 유업율(53.3%)이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6개 중에서 여성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3.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0.5%)이었다. 9개 도에서는 제주의 유업율(50.9%)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34.4%)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산업구조를 가진 시도는, 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에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시도보다 유업율이 높았다. 따라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유업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부(urban sector)에서 여성유업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44.8%), 충남(42.7%), 경북(40.6%) 등이었고, 낮은 지역은 광주(30.5%), 대전(31.0%) 등이었다. 군부(rural sector)에서는 제주, 전남, 전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경기도의 여성유업율이 가장 낮았다. 즉, 시부와 군부를 불문하고 6개 시의 여성 유업율은 9개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제주도는 시부와 군부를 불문하고 여성 유업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지역별 무업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 무업자는 여성에 비해서 구직활동, 통학, 기타(연로, 질병 등)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하고 있지 않은 남성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21.2%), 대구(20.4%), 강원도(20.2) 등이었고, 이들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충남, 전남, 전북이었다. 여성무업자의 경우에는 구직으로 인해서 무직에 있는 여성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4.6%), 인천(4.2%), 대구(4.1%), 전남(4.1%)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도, 충북, 제주도 등이었다. 따라서 부산, 인천, 대구, 전남 등에서는 여성을 위한 고용안정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사나 육아로 인해서 무직상태에 있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 강원도, 제주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에 여성취업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별로 연령계층별 여성의 유업율곡선을 보면, 모든 여성의 연령계층별 유업율 곡선은 M자형 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M자형곡선의 저점을 보면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에서는 저점이 25-29세 연령층에서 발생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연령이 늦어져, 저점이 30-34세 연령층에 발생되었다. 또한 M자형 곡선의 2차 정점을 이루는 연령대를 보면, 광주를 제외한 5개시, 경기도와 강원도는 40-44세에서 2차 정점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50-54세 연령층에서 2차 정점을 보였다.

15-19세 연령층의 여성 유업율을 보면 대전과 경기도, 인천, 서울 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15-19세 연령층의 유업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학생비율이 높거나 혹은 학생이 시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1차 정점에서의 유업율과 저점에서의 유업율 차이를 지역별로 구하였다. 제1차 정점과 저점 간의 격차를 보면, 6개 시 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커서 30.2% 포인트였고 그 다음은 부산(21.7% 포인트), 서울(20.9% 포인트)였다. 9개도 중에서는 경기도(26.9%), 경남(25.2%), 경북(17.3%)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세 이상 여성의 유업율을 보면 6개 시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았고, 9개도 중에서는 전남(45.8%), 제주(43.7%), 충남(37.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세 이상 여성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도, 강원도 등이었다.

<표 III-35> 지역별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서울	10.4	54.9	46.2	34.0	37.5	38.2	34.9	30.3	22.4	7.7
부산	9.9	54.3	40.4	32.6	39.0	41.6	38.6	35.1	26.3	8.1
대구	7.7	49.5	36.4	33.5	39.3	40.9	39.8	34.4	27.8	9.3
인천	11.3	57.3	33.2	27.1	35.4	41.6	39.1	35.9	26.7	11.2
광주	6.7	44.9	40.0	35.7	36.0	38.0	38.9	32.9	27.6	9.9
대전	18.2	46.0	39.4	34.1	37.6	39.7	36.1	31.1	27.3	8.5
경기도	12.8	57.4	34.9	30.5	39.2	46.0	43.4	41.7	32.3	13.9
강원도	6.9	50.4	39.6	41.2	46.1	51.4	48.8	49.4	51.0	25.3
충북	9.3	46.1	35.5	37.0	45.4	54.3	55.1	58.6	54.0	31.4
충남	8.2	53.0	37.7	43.6	52.5	63.2	64.5	68.3	63.9	37.5
전북	5.9	39.2	37.6	42.4	47.8	53.8	57.3	58.1	62.3	32.8
전남	6.4	46.0	38.6	45.7	53.4	65.8	68.9	75.2	73.7	45.8
경북	6.6	52.1	34.8	39.8	47.5	56.7	64.4	65.6	64.4	37.0
경남	9.7	57.0	31.8	31.2	41.9	50.1	52.9	57.1	54.6	33.2
제주	9.2	58.0	50.9	49.9	59.9	63.1	72.7	70.2	64.5	43.7
전체	9.3	53.2	38.9	34.3	40.9	45.9	45.5	45.3	42.1	23.1

자료 : 통계청(1997),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지역별로 학력별 유업율을 보면, 남녀 모두 초대졸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을 높아질수록 유업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여성 유업율은 학력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여성 유업율을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無學인 여성의 유업율은 9개도에서는 대체로 30-50% 수준을 보이거나 6개시에서는 15% 내외의 극히 낮은 유업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9개도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저학력여성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지나,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6개시에서는 無學여성에게 취업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등학교졸업 여성에게도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중졸이하 여성집단부터는 6개시의 여성유업율과 9개도의 유업율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 대졸여성의 경우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61.3%)였고, 그 다음은 강원도(55.9%), 전남(54.8%), 광주(52.8%), 충북(51.5%) 순이었다. 여성 대졸자의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도, 서울, 대전, 대구 등으로써, 이들 지역은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촉진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유무별 유업율을 보면 남성가구주(87.3%)과 여성가구주(52.4%)의 유업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남성비가구주(39.8%)와 여성비가구주(34.1%) 간의 유업율 차이를 그렇게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구주의 유업율은 50.0% 내외에 지나지 않아서, 여성 가구주의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훨씬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III-36> 지역별 학력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남 자						여 자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서울	34.5	51.0	47.5	82.0	43.4	89.0	12.3	24.2	25.5	40.1	29.7	44.4
부산	32.4	50.7	51.6	81.1	47.3	87.9	14.5	28.3	27.3	38.4	31.2	48.9
대구	34.6	55.5	52.1	82.1	47.7	88.8	15.3	30.8	26.2	37.0	28.8	47.3
인천	38.8	58.4	57.0	87.2	64.3	92.2	14.8	28.9	25.7	35.7	33.3	48.4
광주	37.8	51.1	41.7	80.1	32.8	88.2	14.4	29.0	21.0	34.7	26.0	52.8
대전	39.9	52.5	48.4	80.3	41.2	89.1	15.1	27.7	24.0	36.0	30.2	45.9
경기도	44.2	61.3	57.9	87.3	60.5	91.4	18.7	34.5	29.4	38.0	33.7	42.5
강원도	52.6	69.2	53.7	81.4	42.6	90.1	31.3	45.8	28.0	41.8	33.1	55.9
충북	57.4	73.3	54.1	84.4	38.8	89.3	37.6	50.8	30.7	38.8	24.6	51.5
충남	62.3	79.9	59.8	82.9	53.4	92.7	40.7	60.6	33.4	43.2	33.5	49.6
전북	58.1	74.6	52.9	81.8	30.7	88.0	40.3	55.5	27.9	37.7	22.9	49.3
전남	67.9	79.4	60.3	83.3	56.4	91.0	51.5	67.0	32.7	39.1	30.9	54.8
경북	63.6	75.9	58.5	84.3	60.9	92.7	44.2	58.8	33.5	37.7	38.6	49.1
경남	63.4	68.5	56.1	87.5	58.4	91.9	41.1	49.8	29.5	37.3	34.6	48.0
제주	57.6	65.8	56.3	83.7	58.3	92.4	48.6	59.8	38.2	53.5	44.9	61.3
전체	54.0	65.2	53.6	83.9	49.3	89.9	31.4	41.6	28.0	38.6	31.1	46.4

자료 : 통계청(1997),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지역별로 여성 유업율을 가구주유무별로 보면, 먼저 6개 시에서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은 서울이 가장 높아서 53.8%이고 광주가 가장 낮아서 43.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성 비가주의 유업율은 6개 시가 30% 내외로 거의 같았다. 9개 도에서는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61.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서 47.2%이었다. 9개 도의 여성비가주의 유업율을 보면,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48.4%인데 비해서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32.2%에 불과했다. 즉, 여성 비가주의 유업율은 6개 시의 경우는 거의 편차가 없었던 비해서, 9개 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이 낮은 지역인 광주(43.9%), 강원도(47.2%), 부산 및 대구(각각 47.9%) 등은 이들 여성가구주의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지역별 여성유업자의 고용구조

유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어 6개시는 9개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다만 9개도 중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기도는 6개시와 유사한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를 보였다.

여성유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를 보면 6개 시는 상대적으로 기업주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9개 도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개 시 중에서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높은 시는 대전, 서울이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광주, 그리고 임금근로자는 서울, 인천, 부산시였다. 9개 도에서 경기도, 경남, 충북,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충남과 전남, 전북, 경북 등에서는 여성유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기업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4> 지역별 종사상지위별 여성 유업자 분포

(단위: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서울	4.3	12.3	10.8	72.6
부산	3.6	14.4	14.0	68.0
대구	3.3	16.6	14.8	65.4
인천	3.7	14.9	12.7	68.7
광주	3.8	20.2	15.8	60.2
대전	5.0	16.1	15.5	63.4
경기도	3.5	18.4	12.8	65.4
강원도	3.4	35.0	20.2	41.3
충북	2.1	40.7	15.6	41.7
충남	1.4	51.3	18.5	28.8
전북	2.0	47.3	19.2	31.5
전남	1.5	53.9	24.3	20.3
경북	2.0	46.7	20.6	30.7
경남	2.7	32.8	20.9	43.6
제주	3.2	33.2	23.9	39.7
전체	3.2	26.9	15.6	54.1

자료 : 통계청(1997),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여성유업자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지역별 보면, 전남은 여성유업자의 6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충남, 전북, 경북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유업자 비율이 50% 이상이었 고, 강원도, 충북, 경남, 제주도가 30% 이상이였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등으로 25-30% 수준이였고, 6개시는 대 체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6개시와 경기도,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도소매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다른 지 역에 비해서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가사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 유업자의 직종구조를 보면, 대체로 6대 시는 9개 도에 비해서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생산관련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⁹⁾

9) 전문관리직은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및 기술공을 포함함.

<표 IV-5> 지역별 직종별 여성 유업자 분포

(단위: %)

	입법 공무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및 판매직	농어업 종사 숙련직	기능 근로자	기계 조작원 조립공	단순 노무자
서울	1.0	8.9	12.8	22.3	32.8	0.2	11.5	2.4	8.1
부산	0.7	6.5	8.0	17.6	35.3	2.2	15.3	4.0	10.2
대구	0.4	7.5	9.5	16.4	34.7	3.7	11.5	9.9	6.5
인천	0.5	5.5	12.3	18.4	30.6	4.7	11.8	9.3	7.0
광주	0.7	10.2	11.0	16.4	36.7	7.5	6.1	3.9	7.3
대전	0.5	9.5	9.2	19.0	39.8	3.6	6.8	2.7	9.0
경기도	0.7	5.6	11.2	16.4	29.4	9.8	8.0	8.9	10.0
강원도	0.4	5.0	6.8	10.4	33.3	30.2	3.9	1.8	8.1
충북	0.2	3.9	5.7	9.1	24.3	38.1	3.4	6.8	8.5
충남	0.0	3.0	4.0	7.5	18.5	55.0	3.3	4.3	4.5
전북	0.2	3.7	5.2	8.8	20.9	50.0	4.1	2.0	5.1
전남	0.1	2.6	3.1	5.6	18.0	63.5	2.4	0.9	3.8
경북	0.9	3.3	5.4	6.7	19.8	51.6	3.8	4.6	4.1
경남	0.5	4.3	7.0	12.3	25.4	33.6	4.5	5.3	7.2
제주	0.4	3.7	3.7	12.4	28.4	40.0	1.5	0.6	9.3
전 체	0.6	5.9	8.7	14.8	28.5	21.6	7.7	4.7	7.5

자료 : 통계청(1997),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그리고 6개 시에서 부산, 인천, 대구는 생산관련직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사무직원과 전문관리직의 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높았다. 그리고 광주와 대전시는 생산관련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광주시는 농어업관련 숙련공과 전문가 및 준전문가, 대전시는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도 여성유업자의 직종구조는 나머지 8개도 보다는 6개 시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해당 지역 여성유업자의 50% 이상이 농어업관련 숙련근로자이었다. 제주도, 충북, 경남, 강원도는 농어업직 여성비율이 30%대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충북과 생산관련직의 비율, 경남은 생산관련직과 사무직원, 제주, 강원도는 사무직원과 서비스 및 판매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

V. 지역별 여성정책의 과제와 방향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인구의 구조와 특성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인구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전라남북도, 충남, 강원, 경북은 여성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여성인구 이동구조를 보면 이들 지역과 함께 서울시, 부산시는 여성인구의 전출초과현상을 보였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북은 여성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총부양비도 서구의 일부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뿐만 아니라 6개 시와 경기도는 부부가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제주도는 여성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광주와 경기도는 6개 시와 9개 도에서 각각 가장 낮았다.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과 서울, 임금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경기도, 경남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북도, 충북, 경북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인구는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역별 여성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개략적으로 요약하였다.

① 지역별 여성인구관련 정책

지역별 인구구조와 변화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인구 고령화 정도의 지역간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여성노인문제가 남자노인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북은 2000년에 총부양비가 약 45%,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1-14%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 및 건간복지 증진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이들 지역은 노동력 감소 그리고 사회복지비용 증대와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확대 등이 나타날 것이므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② 지역별 맞벌이가구 지원정책

맞벌이가구 중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자영업자이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이면, 여성은 직장과 가정 일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6개 시와 경기도는 부부가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들 가구의 가사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보육시설, 방과후아동시설, 학교급식 등의 정책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 부산, 서울시는 만4세 미만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육시설이나 방과후아동시설의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도내 시군별로 제한적으로 확대보급하고 건물설립 보다는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또한 이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중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높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북에서는 이들 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③ 지역별 여성의 취업확대정책

지역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과 잠재여성인력의 특성도 다르므로, 여성고용정책도 지역사정에 맞게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부산, 인천, 대구, 전남과 같이 구직활동 중에서 있는 여성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여성실업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산, 인천, 대구, 전남은 여성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서울, 대전, 대구는 고학력 여성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학력여성의 취업촉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고학력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도 여성인구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강원도, 부산 및 대구의 여성 가구주 취업율은 상당히 낮음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여성 가구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④ 지역별 여성취업자의 지원정책

지역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의 취업구조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여성 농어민비율이 높은 전남, 전북, 충남, 경북에서는 여성을 농어민후계자로 육성 지원, 여성농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 부산, 서울, 경기도, 경남, 경북 등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결혼출산으로 인한 퇴직율을 낮추는 각종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여성 자영업자가 높으므로, 여성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그리고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경기도, 강원 등에서는 여성창업지원, 여성 경제인 경영지원과 관련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권태환·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최진호(1995), 『한국의 인가와 가족』, 일신사.
- 김수곤(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 김성이(1995), “인구변천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비교”,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2호.
- 김유경(1995),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 한국인구학회지 제19권 1호.
- 김태현(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인구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_____(1996), “농촌인구의 특성과 변화”, 한국인구학, 19권 2호.
- 김태홍(1995),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_____(1996), 『여성의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_____(1996), “노동시장 전망과 잠재인력활용방안”, 경제학연구 제44집 3권, 한국경제학회.
- 노미혜외(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박상하, 김응익(1996), “한국의 출생성비의 시계열적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19권 2호.
- 송위섭(1995), “인구변동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2호.
-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분석”, 『여성연구』 제11권 3호.
- 어수봉(1991),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호(1996),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KDI정책연구』, 봄호.
- 이효수(1991), 『고학력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장영식 외(1996),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구조의 변화』.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1989,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Allat,P., Keil, T., Bryman, A. and Bytheway, B.(eds)(1987), Women and the
Life Cycle: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London: Macmillan.

Blundell, R. and Walker, I.(1984), "A Household Production Specification of Demographic
Variables in Demand", Economic Journal, Vol.94.

E. Bos, M.T. Vu, A. Levin and R.A. Bulatao(1993),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utz, H. P. and Ward, W. P.(1979),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 S.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9.

Carol, W., Sally L.(1994), Women and Careers-Issues and Challenges, SAGE
Publications.

Cynthia Lloyd(1993),"Family and gender issues for population policy",
The Population Council, Working papers, No.41, New York.

Dixon-Mueller, Ruth(1993),Population Policy & Women's Rights, Praeger: London.

Ermisch, E., Ogawa, N.(1994),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eing Societies, Clarendon Press: Oxford

Hans-Peter Blossfeld(eds), The New Role of Women-Family formation in
Modern Societies, San Francisco:Westview Press.

Lorraine Harding(1996), Family, State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Press.

- OECD(1994), Women and Structural Change.
- Ogawa(1989), "Population Ageing and Household Structural Change in Japan",
J.M.Eekelaar and d. Pearl(eds.), An Aging World: Dilemmas and
Challenges for Law and Social Policy, Oxford:Clarendon Press.
- Prestone, S. H.(1982),"Relations between Individual Life Cycles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Apr.).
- Ribar,D.C.(1991),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Doctoral Thesis, Brown University Press.
- Smith, J. P.(1980),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eresa Rees(1992),Women and the labor Market,London:Routledge.
- Unites Nations(1992),Demographic Yearbook-Special Issue: Population
Ageing and Situation of Elderly Persons, New York.
- 總理府編(1995),『女性の現状と 施策』.
- 雇用政策研究会(1992),『労働力需給の 展望と 課題』.
- 渡辺恵知子(1989),“国内人口移動と 地域経済隔差”, 人口学研究, 日本人口學會, vol. 12.
- 日本労働省(1988),『労働力 需給の 長期予測』.
- 水野朝夫(1995),『労働力の 供給制約と 日本経済』, 大明堂.
- 清家編(1993),『高齢化社会の 労働市場』, 東洋経済新聞社.
- 丸尾直美(1994),“人口
高齢化と 福祉政策の 課題”, 人口学研究, 日本人口學會, vol. 17.

[요약]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정책방안

김태홍 · 양승주

(한국여성개발원)

1. 지역별 여성인구특성

▷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1995년 현재 4,509만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2,270만명, 여성이 2,239만명으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약간 많음. 인구의 분포는 서울에 전체 인구의 23.0% 그리고 경기도에 17.3%, 인천시에 5.2%가 거주하고 있어 총인구의 45.5%가 수도권에 거주함.

▷ 시도별로 남녀성비를 보면,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97.2(남성/여성)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로서 102.2임.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시, 광주시,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

▷ 노령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6개 시보다 9개 도가 큼. 2000년에 전남(14.2%), 전북(13.6%), 경북(13.6%)의 여성인구의 노령화 정도는 2000년의 미국(14.7%)이나 캐나다(14.7%)의 수준에 육박할 것임.

▷ 전국에서 고학력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는 서울시임. (여성의 13.2%가 대졸, 7.5%가 전문대졸). 그 다음으로 고학력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시로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10.2%가 대졸이었고 8.0%가 전문대졸임. 9개 도 중에서 고학력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대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8.2%, 4.9%임.

2. 지역별 맞벌이가구의 특성과 유형

▷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73.4%가 유배우가구이며 이들 유배우가구를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부부 중 남편만 취업한 가구가 전체가구의 40.8%로 가장 많고,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구가 24.5%임. 부부 모두 비취업자인 가구는 6.4%이며 부부 중 부인만 취업한 가구는 1.7%로 나타남.

▷ 시부의 경우 남편외벌이가구가 전체의 45.6%이고 맞벌이가구가 20.0%로 나타냈으나 군부는 이와 반대로 맞벌이가구가 40.4%로 가장 많고 남편외벌이가구가 24.6%의 분포를 보임. 이러한 차이는 군부의 경우 농사일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이 많은데 기인한것임.

▷ 유배우가구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6개 시는 맞벌이 가구비율이 낮아서 20% 내외였고, 9개 도에서는 경기와 강원, 그리고 경남을 제외하면 모두 30%를 상회하였음. 9개 도에서 맞벌이 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충남(37.7%)이었으며, 전남(39.0%), 제주(34.1%), 경북(33.1%), 전북(32.6%), 충북(30.9%)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기도는 9개 도 중에서 22.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강원도(27.6%)와 경남(26.9%)이었음.

3. 지역별 맞벌이가구의 취업특성

▷ 맞벌이가구에서 부부가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가진 가구가 69.3%이고 6개 시에서는 서울, 대전, 부산시가 그리고 9개 도에서는 전남, 제주도,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맞벌이 모두 '주로 일하는'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에 비해 충남, 경북, 경남, 강원도는 남편은 주로 일하고 부인은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는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36.1%는 부부가 동일한 종사상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3.9%는 부부가 서로 다른 종사상지위를 가지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6개 시는 맞벌이 부부 모두가 임금근로자인 가구가 40-45% 정도이었고, '남편이 자영업자-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가 20-30% 정도였다. 9개 도를 보면 경기도는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가 6개 시와 유사하나 전남, 충남, 전북, 경북은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율이 65% 이상이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율은 극히 낮아서 대체로 15% 미만임.

▷ 맞벌이부부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64.5%이고, 서로 다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맞벌이가구가 35.5%임. 6개 시의 맞벌이 취업업종을 보면 대구와 인천은 상대적으로 부부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약 19% 내외로 높음. 광주와 대전시는 부부 모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한 광주시는 부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10.2%로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남편 금융업-부인 금융업', '남편 금융업-부인 사회서비스업'의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9개 도를 보면 경기도는 부부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다른 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으나 6개 시보

다는 높아서 13.6%였고, 부부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도 14.8%로서 나머지 8개도 뿐만 아니라 광주나 대전시보다도 높았음. 나머지 도를 보면 지역경제구조를 반영하여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60% 내외임.

▷ 맞벌이 부부의 직종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58.7%이었고, 직종이 서로 다른 경우가 41.3%이었으며 지역별로는 6개 시는 9개 도에 비해서 부부 모두가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판매직, 기능원, 단순노무직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농어업직인 가구의 비율은 낮음. 9개 도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취업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부부 모두 농어업관련 숙련근로자인 가구비율이 상당히 높고, 부부 모두가 서비스 및 판매직근로자인 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4.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특징

▷ 1995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53.7%는 유업상태에 있는 반면에, 46.3%는 무업상태에 있었으며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유업율은 72.3%로서 여성의 36.5%보다 훨씬 높음.

▷ 지역별 전체 유업율을 보면, 대체로 6개 시보다는 9개도의 유업율이 더 높았고 6개시 중에서는 인천(53.6%), 서울(51.3%)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광주(47.3%)의 유업율이 가장 낮았으며 9개 도에서는 충남(61.3%), 전남(61.3%)의 유업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의 유업율(53.3%)이 가장 낮음.

▷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6개 중에서 여성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3.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0.5%)임. 9개 도에서는 제주의 유업율(50.9%)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34.4%)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 여성 유업율을 보면, 군부는 51.1%인데 비해서 시부는 33.9%에 지나지 않았음.

▷ 가구주유무별 유업율을 보면 남성가구주(87.3%)과 여성가구주(52.4%)의 유업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남성비가구주(39.8%)와 여성비가구주(34.1%) 간의 유업율 차이를 그렇게 크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지역별로 여성 유업율을 가구주유무별로 보면, 먼저 6개 시에서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은 서울이 가장 높아서 53.8%이고 광주가 가장 낮아서 43.9%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여성비가구주의 유업율은 6개 시가 30% 내외로 거의 같았음. 9개 도에서는 여성가구주의 유업율

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61.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서 47.2%임. 9개 도의 여성비가주의 유업율을 보면,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48.4%인데 비해서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32.2%에 불과했음. 즉, 여성 비가구주의 유업율은 6개 시의 경우는 거의 편차가 없었던 비해서, 9개 군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5. 지역별 여성의 고용구조

▷ 여성유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를 보면 6개 시는 상대적으로 기업주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9개 도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6개 시 중에서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높은 시는 대전, 서울이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광주, 그리고 임금근로자는 서울, 인천, 부산시가 높았음. 9개 도에서 경기도, 경남, 충북,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음. 그리고 충남과 전남, 전북, 경북 등에서는 여성유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기업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유업자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지역별 보면, 전남은 여성유업자의 6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충남, 전북, 경북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유업자 비율이 50% 이상 이었고, 강원도, 충북, 경남, 제주도가 30% 이상임.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등으로 25-30% 수준이었고, 6개시는 대체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음.

발표자료 Ⅲ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

연 세 대 학 교

구 성 열 교수

卷之二

卷之二

卷之二

卷之二

우리나라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¹⁾

구성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동안 고속경제성장과 급속한 인구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연평균 7-9%의 고도성장은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의 수요는 적어도 1990년까지는 높은 상태에 머물러 왔다. 반면 급속한 인구변천의 결과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수준에서 1%이하로 저하되었고 노동력인구의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연평균)도 1963-73년간 3.76%, 1973-83년간 2.86%, 1983-93년간 3.16%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²⁾. 이와 같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계층별로 엇갈린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초과수요, 즉 인력부족문제에 봉착하였고 해외인력의 수입, 자본의 대외진출, 노동절약적 산업구조의 개편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야기된 노동력 공급의 증가둔화추세는 경제활동율에 다소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전시킬 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 공급의 증가둔화세는 어느 정도의 산업구조개편(노동절약)을 가정하여도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예컨대 노동의 양적공급측면에 한정하여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노동공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2%수준, 2000년대 1%수준, 2010년대에는 0.5%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용흡수력이 1990년대의 0.31에서 2010년대에는 0.26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된다고 하여도 한국경제의 연평균 잠재성장율은 1990년대 6%, 2000년대 3% 2010년대 2%등으로 저하될 전망이다³⁾.

1.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전과정에 걸쳐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강병규군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2.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12.
3. 구성열,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과제와 전망”, 윤기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편, 『윤기중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7.2., pp.151-168.

그렇다면 그간의 급속한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귀결된 것인가? 경제학자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은 인구변천과정이 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자원부존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는 인구증가의 억제가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론적 혹은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된 바 있다⁴⁾.

인구의 양적증가둔화는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노동력의 공급증가둔화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저축율과 투자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만일 양적증가둔화가 질적증가제고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술발전과 연계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인구의 양적증가둔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효과보다 큰가 작은가에 좌우된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자본과 기술수준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자본과 기술수준아래서도 노동의 질적 수준에 의하여 달라진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인구변천과정을 인구증가율의 둔화과정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인구의 양적증가둔화가 질적향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⁵⁾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구의 질은 1인당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뜻하며 이는 건강, 교육, 직업훈련, 인구가 동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행위를 통하여 제고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원래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⁶⁾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산력과 연계되고⁷⁾ 최근에는 소위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출산력과 더불어 내생적으로 취급되어 경제성장모형의 현실설명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⁸⁾ 특히 교육수준의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⁹⁾

4. 인구증가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1970년대이전부터 수익 비용분석, 인구함정모형, 시뮬레이션모형등의 형태로 계량분석된 바 있다.

5. Robert Willis,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2, Part II, March-April 1973, pp.514-569, Gary S. Becker,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6. Theodore W. Schultz,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 December 1960, pp.571-83.

7. Gary S.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ri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8. Robert J. Barro and Xav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 Hill, 1995.

9. Zvi Griliches, "Education, Human Capital and Growth: A personal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i)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는 질적(교육수준)으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 (ii) 노동공급을 질을 포함하는 인적자본의 개념으로 파악한다고 할 때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공급은 질적요인에 의하여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그리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인적자본흡수력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iii) 인적자본으로 파악된 노동공급은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율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본고의 목적은 위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론에 앞서 우선 분석방법을 논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제 1 절. 분석방법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고용증가율의 함수로 나타낼수 있다.

$$\tilde{Y} = \varepsilon_{YL}(E, K, T) \cdot \tilde{L}$$

Y=GNP, L=고용량, E=노동의 질, \tilde{Y} =성장율, $\varepsilon_{YL}(E, K, T)$ =GNP의 고용탄력도로서 E, K, T의 함수임.

위의 식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생산요소별로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 ε_{YL} 은 양적노동(고용량) 이외의 생산요소, 즉 노동의 질, 자본과 기술수준의 함수가 된다.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1945, January, 1996.
Robert J. Barro and Jong-Hwa Le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3, pp.363-394.
홍성덕,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1963-92)",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1994, pp.147-178.

노동에 대한 수요는 ϵ_{YL} 이 주어진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tilde{L} = \frac{\tilde{Y}}{\epsilon_{YL}(E, K, T)} = \epsilon_{LY}(E, K, T) \cdot \tilde{Y}$$

ϵ_{LY} 는 ϵ_{YL} 의 역수로서 고용의 경제성장탄력도로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성장의 고용흡수력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한편 노동공급은 다음과 같이 경제활동을, 인구의 연령구조 및 인구규모의 함수로 정의된다.

$$L = \sum_a L_a = \sum_a l_a \frac{P_a}{P} F$$

L =경제활동인구, P =인구규모, l =경제활동율, a =나이

위의 식에서 \tilde{Y} 및 ϵ_{YL} 에 대한 값이 주어지면 노동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고 P , P_a , l_a 의 값이 주어지면 노동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노동수급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지식정보산업등으로 연성화되고 노동의 공급측면이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이행됨에 따라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인적자본이론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의 질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노동력의 수급전망을 분석하려 한다면 위의 분석체계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져야 할 것이다.

우선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이 고용량에 대하여 갖는 관계를 고용량 대신 노동의 질을 내포하는 인적자본의 양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즉

$$\tilde{H} = \epsilon_{HY}(K, T) \cdot \tilde{Y}$$

H =인적자본량, ϵ_{HY} =인적자본의 경제성장탄력도, 또는 성장의 인적자본 흡수력으로서 K , T 의 함수임.

노동의 공급측면 또한 인적자본의 공급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H = \sum_a \sum_e w_{ae} \frac{L_{ae}}{L_a} \cdot L_a$$

w = 노동의 질(생산성 또는 임금)지수, e =교육수준.

따라서 인적자본의 공급변화는 연령별 학력별 질(생산성 또는 임금)지수가 시간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진다.

$$\delta H = \sum_a \sum_e \delta \left(w_{ae} \frac{L_{ae}}{L_a} \right) \cdot L_a + \sum_a \sum_e \left(w_{ae} \frac{L_{ae}}{L_a} \right) \cdot \delta L_a$$

위의 식 우변의 첫번째항은 인적자본의 질적변화에 기인한 변화분이며 두번째항은 인적자본의 양적인 변화에 기인한 변화분이 된다.

본연구는 이러한 분석체계아래서 우리나라의 1965-1995년간 인적자본의 수급추이를 분석하고 1995-2020년간 전망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제 2 절. 인구의 학력구조변화와 인적자본의 공급추이 : 1965-1995

1. 추정방법과 자료

새로운 분석체계에서 노동력수급을 분석하려면 분석기간별로 노동수요측면에서 ϵ_{HY} , 노동공급측면에서 (Lae/La), Wae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Lae/La) 및 Wae에 대한 연도별 추정은 불가능하므로¹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화가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i) Wae: 모든 시점에 대하여 동일하다.

(ii) $\frac{L_{ae}}{L_a} = \frac{E_{ae}}{E_a} = \frac{P_{ae}}{P_a}$, 단 E=취업인구수.

즉 모든 연령계층에 대하여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조=취업인구의 학력구조=인구의 학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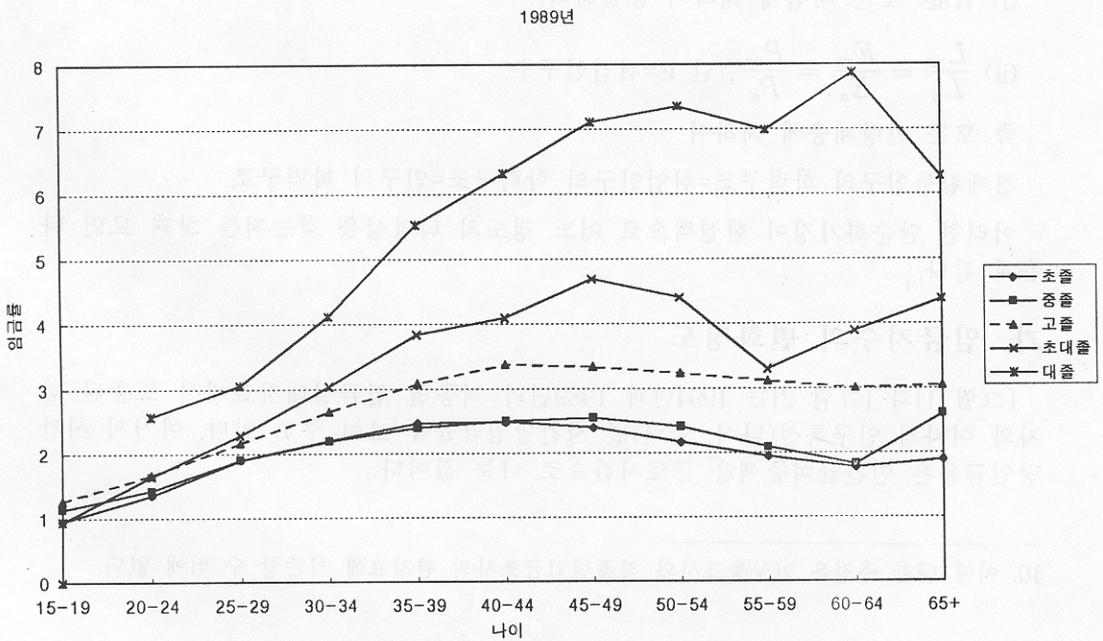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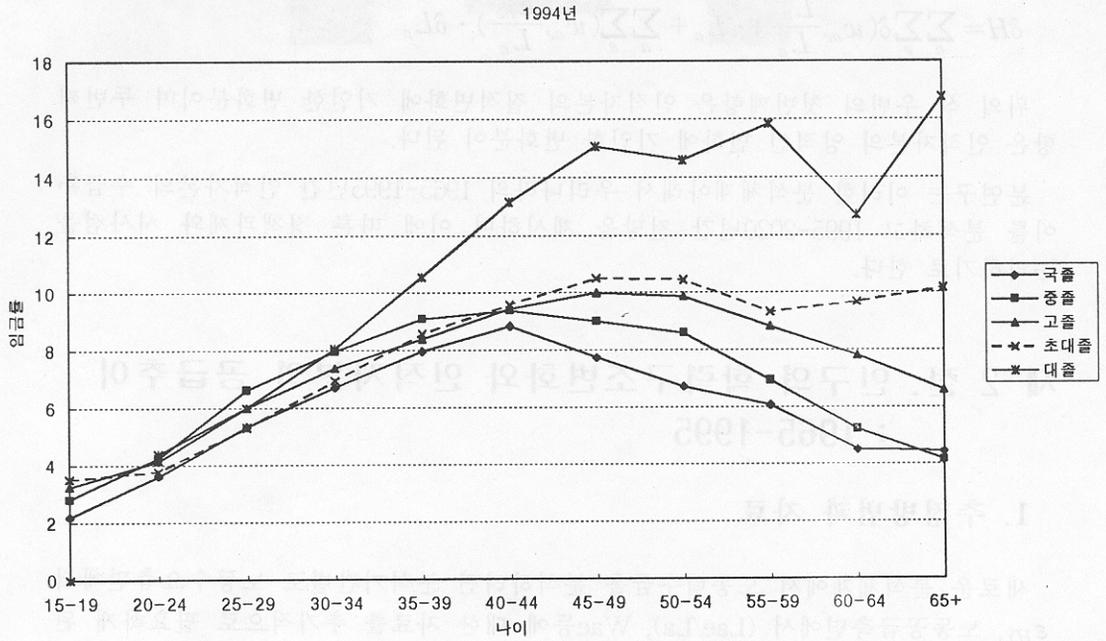
이러한 단순화가정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금지수의 변화정도

[그림 1]과 [그림 2]는 1994년과 1989년의 직종별 임금실태자료에서 도출된 남자와 여자의 인구특성(나이, 학력)별 시간당임금률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시간당임금률은 연간급여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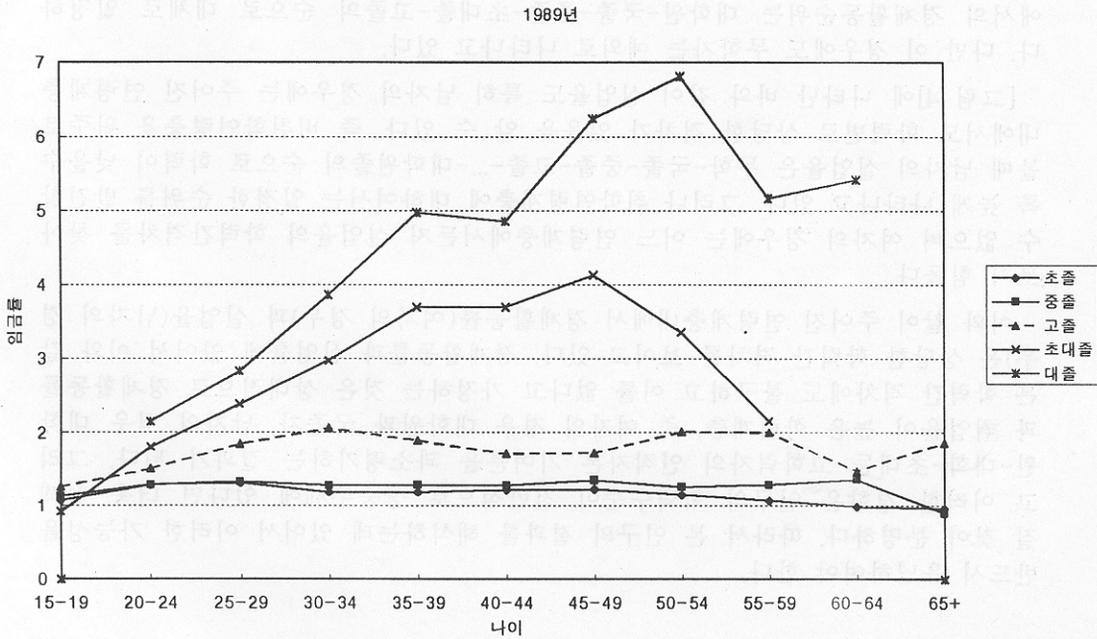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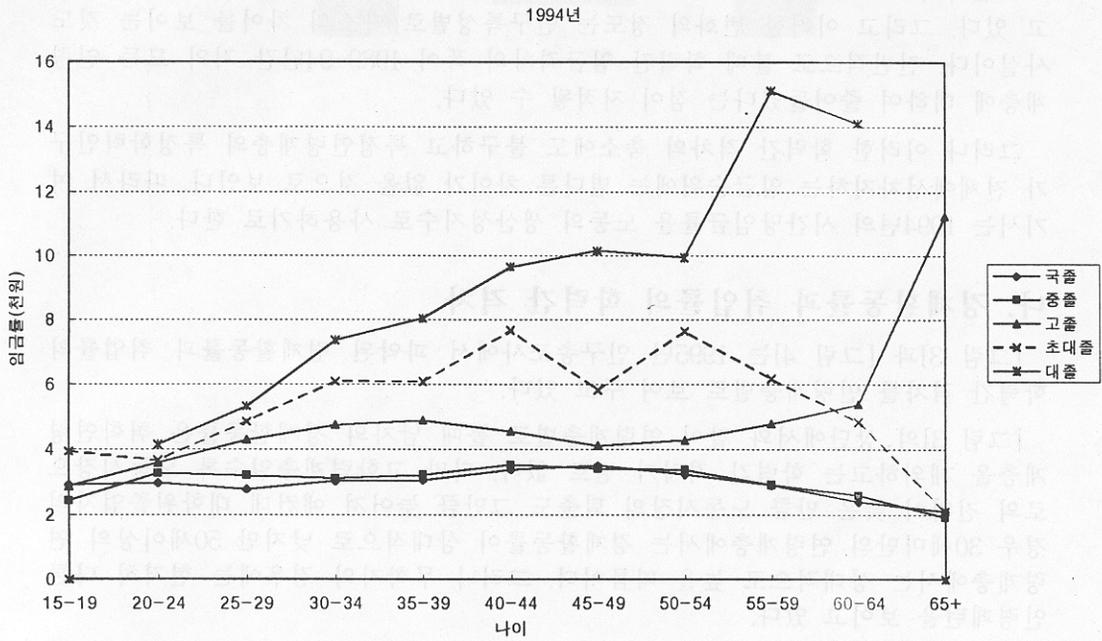
10. 이에 대한 추정은 인구총조사와 직종별임금조사의 원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림1] 인구특성별 시간당 임금률



자료: 부표 1

[그림2] 인구특성별 시간당 임금률(여자)



자료: 부표 1.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률은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인구특성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볼때 학력간 임금격차의 폭이 1989-94년간 거의 모든 연령계층에 대하여 줄어들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력간 격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특정연령계층의 특정학력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임금순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1994년의 시간당임금률을 노동의 생산성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경제활동률과 취업률의 학력간 격차

[그림 3]과 [그림 4]는 1995년 인구총조사에서 파악된 경제활동률과 취업률의 학력간 격차를 연령계층별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의 상단에서와 같이 연령계층별로 볼때 남자의 경제활동률은 취학연령계층을 제외하고는 학력간 격차가 별로 없다. 다만 고학력계층일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은 만큼 노동시장의 퇴출도 그만큼 늦어져 예컨대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30세미만의 연령계층에서는 경제활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50세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따름이다. 그러나 무학자의 경우에는 현저히 다른 연령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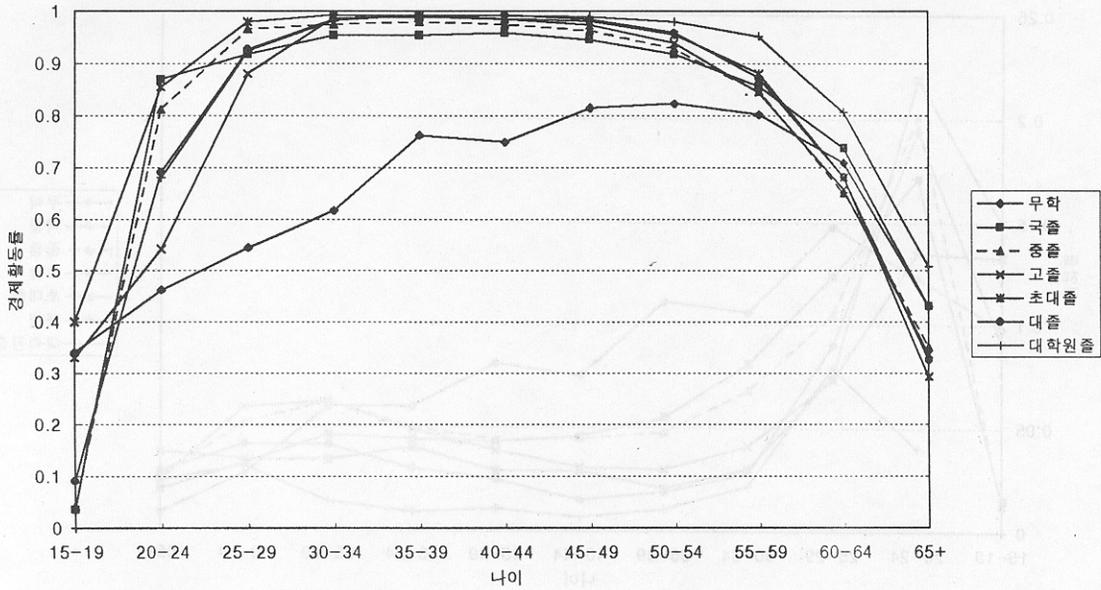
여자의 경제활동률은 [그림 3]의 하단에서와 같이 모든 연령계층에서 현저한 학력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계층을 제외한다면 주어진 연령계층내에서의 경제활동순위는 대학원-국졸-중졸-초대졸-고졸의 순으로 대체로 일정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학자는 예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률도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주어진 연령계층내에서도 학력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취학연령층을 위주로 볼때 남자의 실업률은 무학-국졸-중졸-고졸...-대학원졸의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계층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순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어느 연령계층에서든지 실업률의 학력간격차를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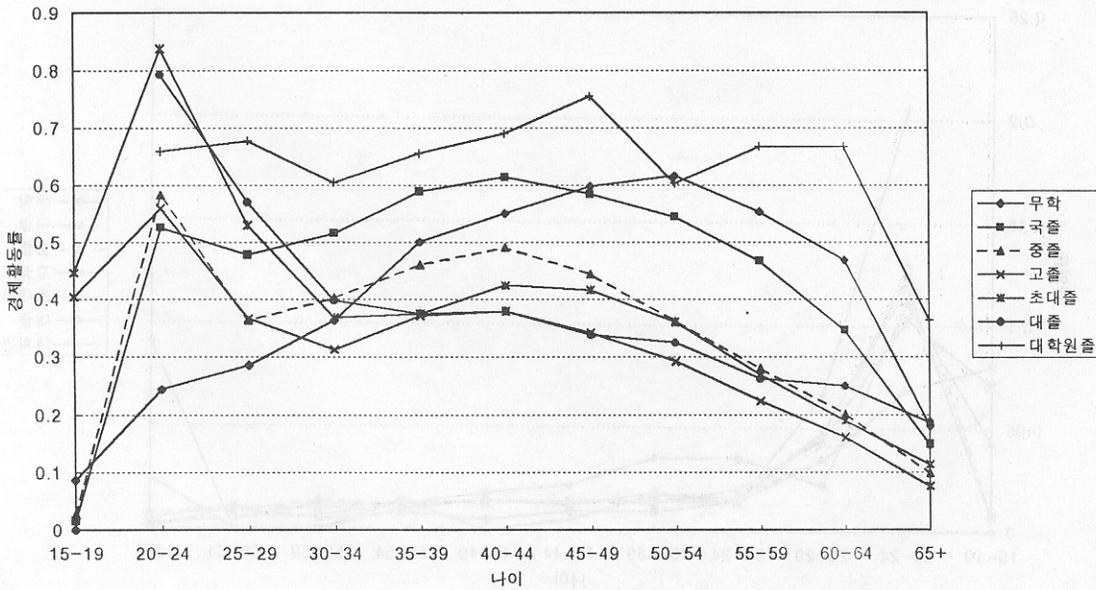
이와 같이 주어진 연령계층내에서 경제활동률(여자의 경우)과 실업률(남자의 경우)은 상당한 학력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률과 실업률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학력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률과 취업률이 높은 학력계층, 즉 여자의 경우 대학원과 국졸자, 남자의 경우 대학원-대학-초대등 고학력자의 인적자본 기여분을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인구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면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그림3] 인구특성별 경제활동률의 학력간 격차(1995년)

남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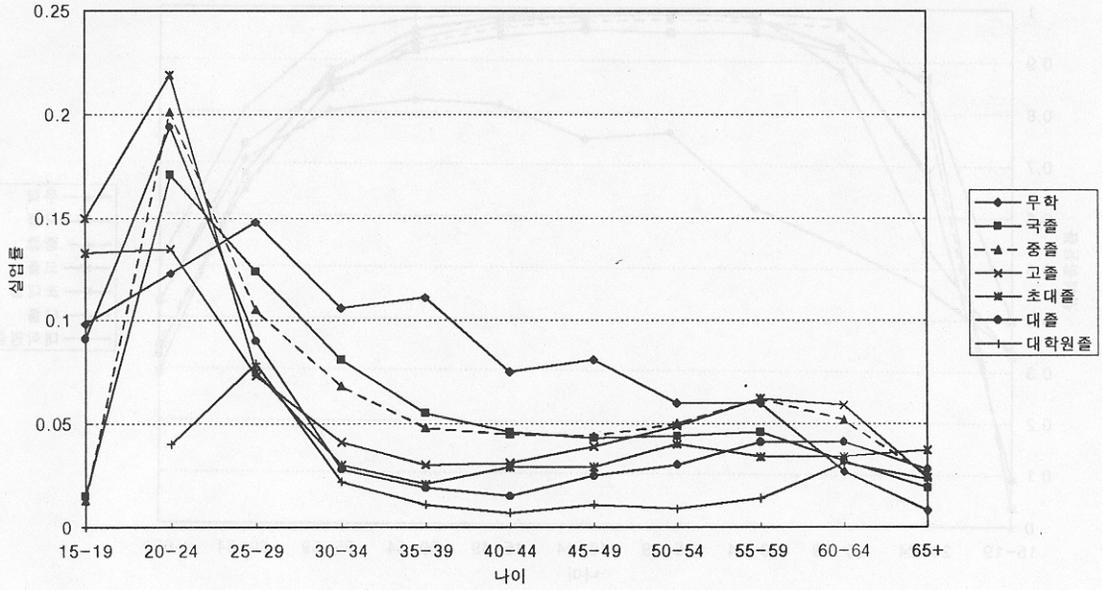
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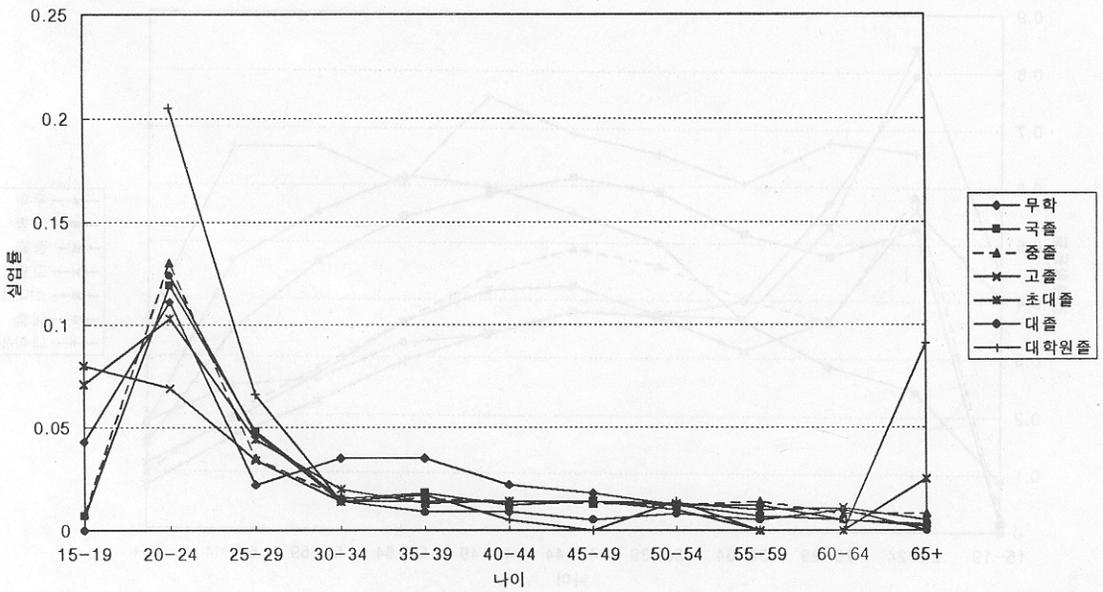
자료: 부표 2

[그림4] 인구특성별 실업률의 학력간 격차(1995년)

남 자



여 자



자료: 부표 3

2. 인구의 학력구조 변화추이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는 인구총조사의 보고서에서 매 5년 간격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총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인구의 학력구조자료를 5년 간격별로 1965-95년간에 걸쳐 파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자료입력의 노력도 문제이지만 인구총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학력구조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접연도의 인구총조사보고서를 비교하여 보면 학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도(5년제)하의 중학졸업학력의 처리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취학연령계층에 속하는 인구의 경우에도 생산율의 학력간 격차를 초과하는 정도로 학력이 상승하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나타난 1995년 인구총조사의 2%표본에서 관찰된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거의 학력구조 추이를 파악하였다.

가. 비취학 연령인구의 학력구조 추이

<표 1>을 보면 남자의 경우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극대가 되는 연령계층은 초대졸은 25-29세, 대졸은 30-34세, 대학원졸은 35-39세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학력에 속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이 한계연령에 이르게 되면 졸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하의 연령계층은 아직도 상당수가 재학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학력자의 비취학 연령은 이러한 한계연령, 즉 초대 25세, 대학 30세, 대학원 35세 이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의 구성비가 최소가 되는 연령계층은 무학은 15-19세, 국졸은 20-24세, 중졸은 25-29세가 된다. 따라서 저학력자의 비취학 연령은 이러한 한계연령, 즉 무학 15세, 국졸 20세, 중졸 25세 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비취학기에 이르는 한계연령이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학력자의 비취학 한계연령은 초대 20-24세, 대학과 대학원은 25-29세가 된다. 또한 저학력자의 비취학 한계연령도 무학, 국졸, 중졸 모두 20-24세가 된다.

비취학 연령, 즉 한계연령이상에 해당하는 인구의 학력구조 추이는 <표 1>의 학력구조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단 고졸자의 경우에는 여타학력계층의 구성비가 산출된 다음 잔여로 산출하게 된다.

$$E_{a,g,T-t} = E_{a+t,g,T}$$

E=학력별 인구구성비, a=나이, t=년도, g=학력수준, T=1995년.

[그림 5]는 <표 1>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위에서 도출될 인구의 학력구조가 어떠한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1>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1995년 인구총조사 2% 표본)

남자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0-4		1	0	0	0	0	0
5-9		1	0	0	0	0	0
10-14	0.482639	0.510478	0.006883		0	0	0
15-19	0.001125	0.155007	0.619835	0.222634	0.001097	0.000302	0
20-24	0.002147	0.011197	0.062062	0.832045	0.047001	0.044722	0.000826
25-29	0.002225	0.013476	0.057925	0.571035	0.092994	0.246998	0.015347
30-34	0.004373	0.031611	0.089484	0.483938	0.071271	0.288316	0.031006
35-39	0.006187	0.061968	0.146244	0.470403	0.056136	0.22189	0.037171
40-44	0.010602	0.112081	0.196039	0.439468	0.031996	0.174994	0.034821
45-49	0.015862	0.168002	0.222835	0.397842	0.016426	0.152623	0.02641
50-54	0.035665	0.247162	0.225978	0.323777	0.008513	0.131164	0.02774
55-59	0.061923	0.319664	0.199858	0.270354	0.006444	0.118386	0.023371
60-64	0.119693	0.374004	0.161861	0.210839	0.008405	0.108752	0.016447
65-69	0.21688	0.407899	0.141413	0.132009	0.012108	0.079817	0.009874
70-74	0.376848	0.367381	0.104468	0.080219	0.012955	0.053313	0.004816
75-79	0.492949	0.324034	0.076947	0.056714	0.011649	0.034028	0.003679
80-84	0.599053	0.261663	0.060852	0.043949	0.010142	0.023665	0.000676
85-89	0.627078	0.213777	0.047506	0.047506	0.026128	0.033254	0.004751
90-94	0.686869	0.171717	0.050505	0.040404	0.010101	0.040404	0
95+	0.807692	0.076923	0	0.038462	0	0.076923	0
합계	0.235014	0.142948	0.143144	0.318205	0.029445	0.115776	0.015468
여자							
0-4		1	0	0	0	0	0
5-9		1	0	0	0	0	0
10-14	0.478621	0.513264	0.008115		0	0	0
15-19	0.001285	0.150588	0.600704	0.245774	0.001565	0.000084	0
20-24	0.001139	0.006783	0.035535	0.747684	0.092685	0.115059	0.001114
25-29	0.002221	0.01364	0.069276	0.610795	0.086894	0.206071	0.011103
30-34	0.00403	0.04853	0.161312	0.552219	0.054753	0.16902	0.010135
35-39	0.008269	0.116792	0.26105	0.471387	0.032662	0.101351	0.008489
40-44	0.017789	0.224971	0.302311	0.354081	0.016692	0.077938	0.006218
45-49	0.044424	0.3481	0.279213	0.254292	0.00921	0.060677	0.004084
50-54	0.11567	0.468895	0.206809	0.160235	0.004782	0.040119	0.003491
55-59	0.231344	0.494555	0.142871	0.104632	0.00261	0.02203	0.001957
60-64	0.380387	0.456488	0.083776	0.063762	0.002775	0.011572	0.00124
65-69	0.561405	0.346172	0.045777	0.037727	0.002605	0.005841	0.000474
70-74	0.706857	0.244181	0.023275	0.019186	0.002307	0.003879	0.000315
75-79	0.791103	0.176421	0.014208	0.013024	0.002199	0.002706	0.000338
80-84	0.843526	0.128912	0.01292	0.009762	0.002297	0.002584	0
85-89	0.883489	0.095872	0.009321	0.008655	0.001997	0.000666	0
90-94	0.933025	0.046189	0.002309	0.013857	0	0.004619	0
95+	0.953704	0.027778	0.018519	0	0	0	0
합계	0.268072	0.185838	0.155174	0.293224	0.026894	0.066951	0.003847

나. 취학연령인구의 학력구조 추이

원칙적으로 취학연령인구의 학력구조는 과거의 인구총조사자료에서 따 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취학연령인구의 학력구조가 취학한계연령인구의 학력구조와 일정한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단순화하여 1995년에 관찰된 비례상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단 고졸자의 경우에는 여타학력계층의 구성비가 산출된 다음 잔여로 산출하였다.

$$E_{a'.g.t} = k_{a'.g.T} \cdot E_{A.g.t}$$

a' = 취학 연령으로서 $a' < A$, A = 취학 한계연령

$k_{a'.g.T}$ = 1995년 인구 총조사에 나타난 $E_{a'.g.T} / E_{A.g.T}$ 비율.

3. 인적자본의 공급추이와 변동요인: 1965-1995

위에서 제시된 전제아래서 우리나라의 1965-95년간 인적자본의 공급추이와 그 변동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적자본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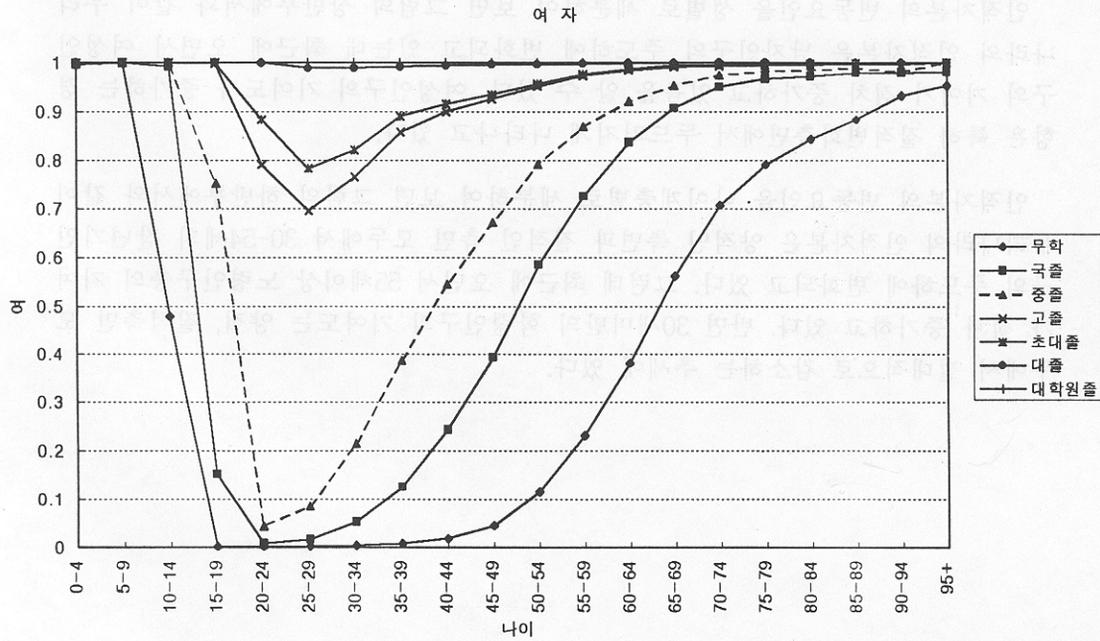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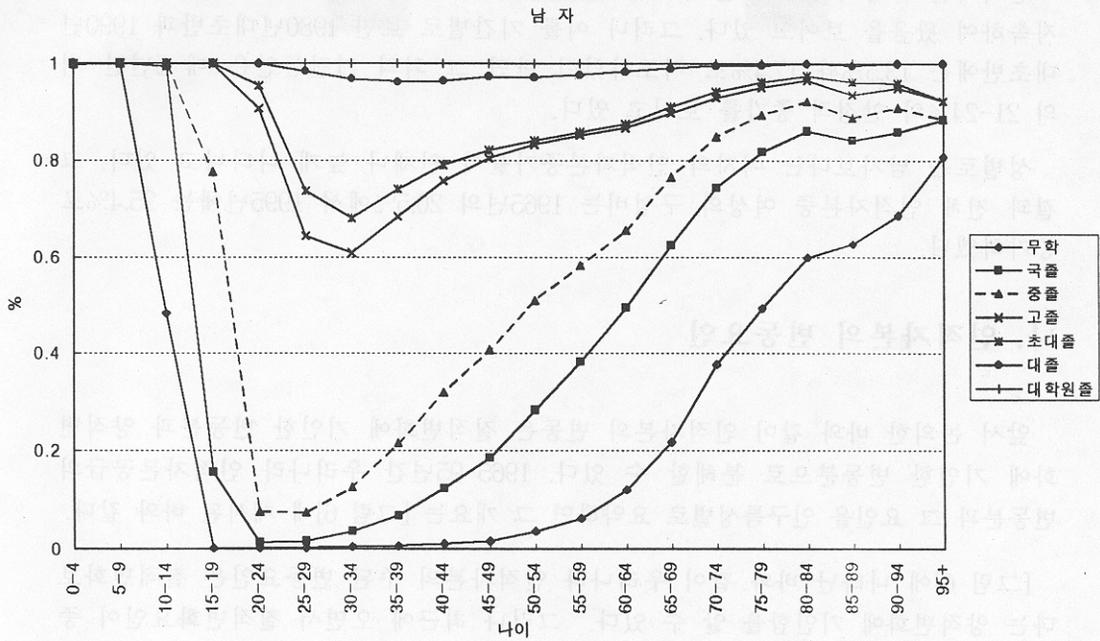
<표 2>는 1965-95년간 인적자본의 규모와 기간별 변동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인적자본은 인구 1000명당 시간당 임금률(1000원/시), 즉 100만원/시를 단위로 한 것이다. 이러한 측정단위를 전제로 할때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규모는 1965년의 432억원/시에서 30년후인 1995년에는 1301억원/시로 거의 4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우리나라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추이: 1965-1995년

	1965-69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기초 인적자본(100만원/시)						
총계	43209	52659	65178	78783	89452	110827
남자	34348	41545	51362	61058	68560	83050
여자	8861	11114	13816	17725	20892	27778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9450	12519	13605	10669	21375	19257
남자	7197	9817	9696	7502	14489	13974
여자	2253	2702	3909	3167	6886	5283
기간별 변동율						
총계	0.21870	0.23774	0.20874	0.13542	0.23895	0.17375
남자	0.20953	0.23631	0.18878	0.12287	0.21134	0.16826
여자	0.25426	0.24310	0.28296	0.17866	0.32958	0.19018

[그림5]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1995년)



인적자본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이 매 5년간 20%내외의 성장을 지속하여 왔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간별로 보면 1980년대초반과 1990년대초반에는 13.5%와 17.4%로 저조하였던 반면 그 외의 기간동안은 매 5년간 거의 21-24%의 안정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인적자본증가율이 언제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인적자본중 여성의 구성비는 1965년의 20.5%에서 1995년에는 25.4%로 증가하였다.

나. 인적자본의 변동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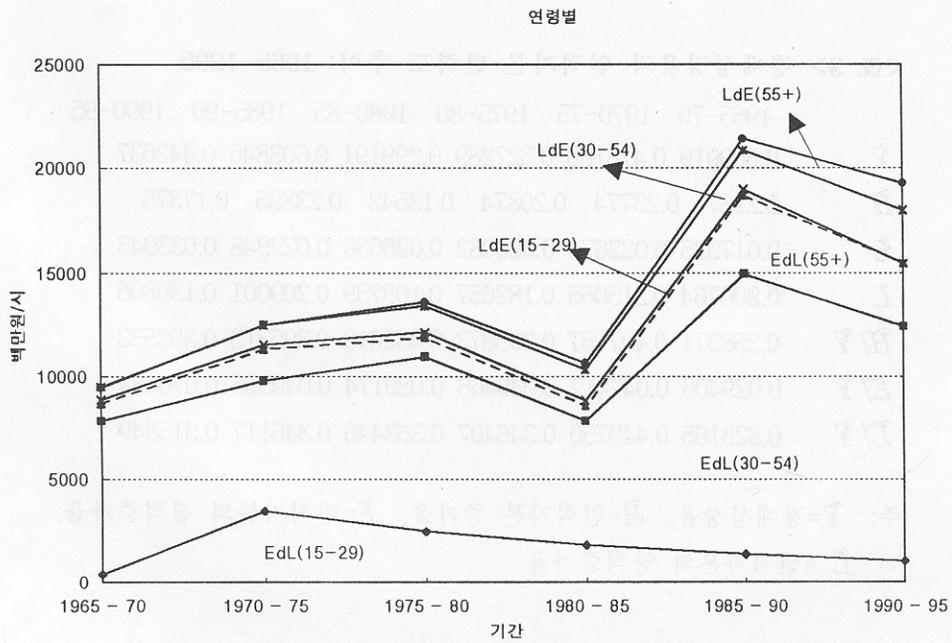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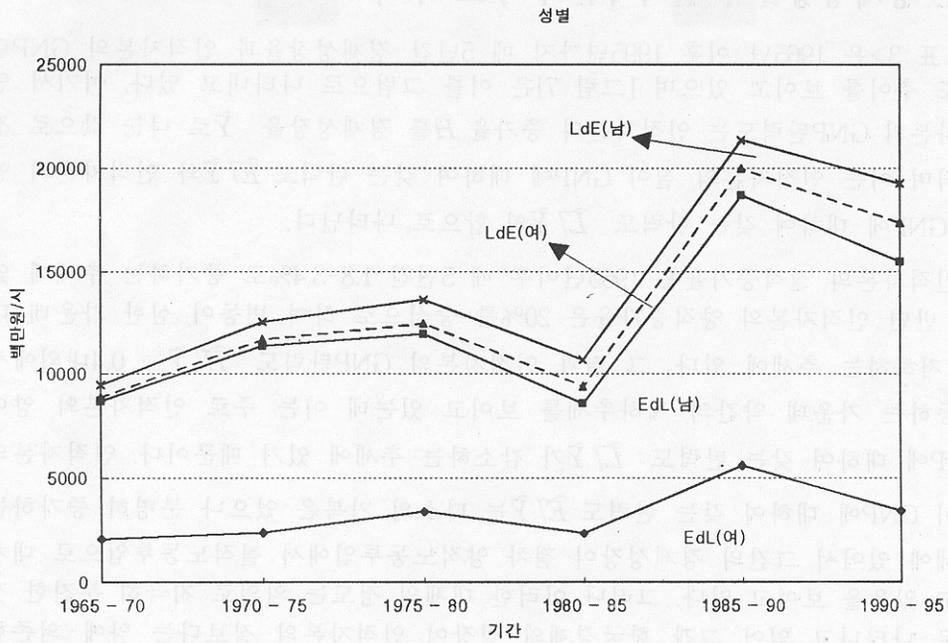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의 변동은 질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과 양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1965-95년간 우리나라 인적자본공급의 변동분과 그 요인을 인구특성별로 요약하면 그 개요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주된 변동요인은 질적변화보다는 양적변화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질적변화요인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적자본의 변동요인을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그림의 상반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은 남자인구의 주도하에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오면서 여성인구의 기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인구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특히 질적변화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적자본의 변동요인을 나이계층별로 세분하여 보면 그림의 하반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30-54세의 장년기인구의 주도하에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55세이상 노령인구층의 기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30세미만의 학령인구의 기여도는 양적, 질적측면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6] 인적자본스톡 변동과 인구특성별 구성분



자료: 부표 3

4.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수요 추이

<표 3>은 1965년 이후 1995년까지 매 5년간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GNP탄력도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7]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인적자본의 GNP탄력도는 인적자본의 증가율 \hat{H} 를 경제성장율 \hat{Y} 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는 인적자본의 질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E}/\hat{Y} 와 인적자본의 양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L}/\hat{Y} 의 합으로 나타난다.

인적자본의 질적증가율은 1965년이후 매 5년간 1.8-3.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인적자본의 양적증가율은 20%를 중심으로 하여 변동이 심한 가운데 다소 저하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인적자본의 GNP탄력도 \hat{H}/\hat{Y} 는 0.4내외에서 변동하는 가운데 약간의 저하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적자본의 양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L}/\hat{Y} 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의 질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E}/\hat{Y} 는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간의 경제성장이 점차 양적노동투입에서 질적노동투입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의 정도는 의외로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간 한국경제의 성장이 인적자본의 질보다는 양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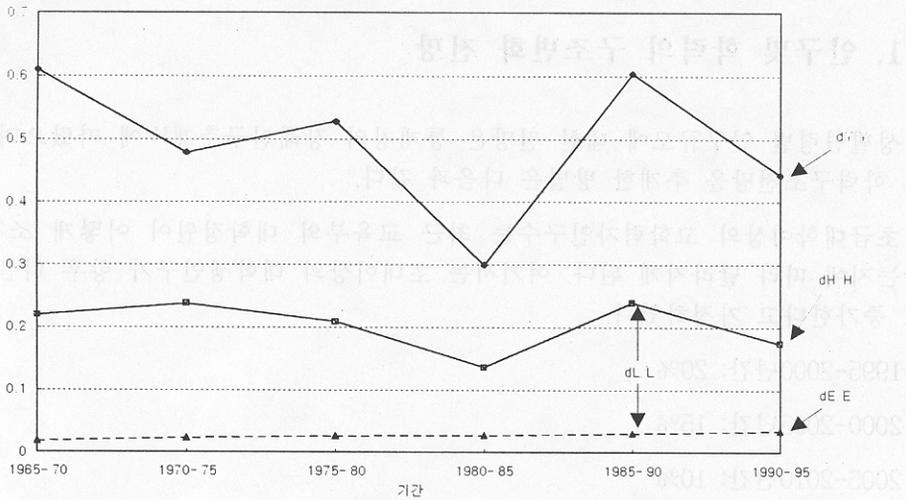
<표 3>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탄력도 추이: 1965-1995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hat{Y}	0.609919	0.478188	0.527289	0.299191	0.603846	0.442637
\hat{H}	0.2187	0.23774	0.20874	0.13542	0.23895	0.17375
\hat{E}	0.017935	0.022674	0.026082	0.026680	0.029948	0.033943
\hat{L}	0.200764	0.215065	0.182657	0.108739	0.209001	0.139806
\hat{H}/\hat{Y}	0.358571	0.497167	0.395873	0.452619	0.395713	0.392533
\hat{E}/\hat{Y}	0.029406	0.047417	0.049466	0.089174	0.049596	0.076684
\hat{L}/\hat{Y}	0.329165	0.449750	0.346407	0.363445	0.346117	0.315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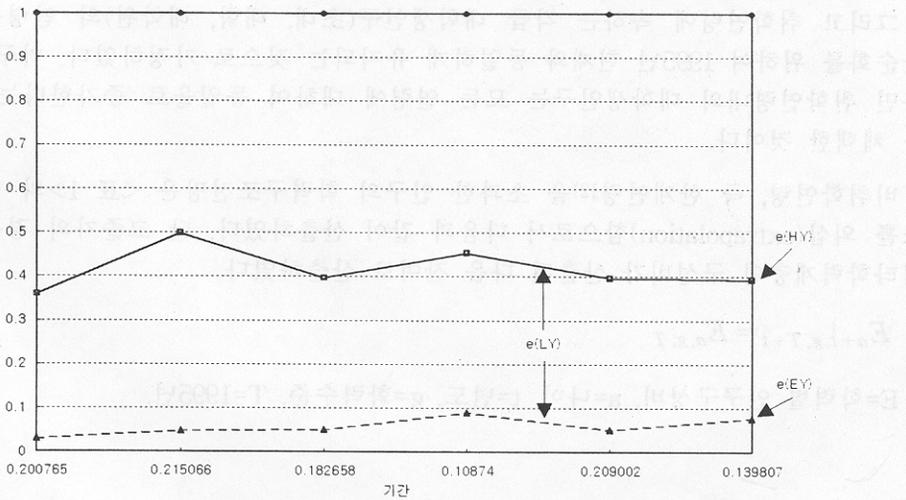
주: \hat{Y} =경제성장율, \hat{H} =인적자본 증가율, \hat{E} =인적자본의 질적증가율,
 \hat{L} =인적자본의 양적증가율

[그림 7] 경제성장률과 인적자본의 GNP 탄력도 추이(5년간)

경제성장률(dY/Y)과 인적자본 증가율(dH/H)



인적자본의 GNP 탄력도($e(HY)$)



(주) $e(HY) = e(LY) + e(EY)$

제 3 절.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공급전망: 1995-2020

1.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 전망

성별연령별 인구규모에 대한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¹¹⁾에 따랐으며 인구의 학력구조전망을 추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급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인구수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정원이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초대이상의 대학생인구가 향후 다음의 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1995-2000년간: 20%

2000-2005년간: 15%

2005-2010년간: 10%

2010년 이후 매5년간: 5%

그리고 취학연령에 속하는 각급 대학생인구(초대, 대학, 대학원)의 연령분포는 단순화를 위하여 1995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취학연령내의 대학생인구는 모든 연령에 대하여 동일율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채택한 것이다.

비취학연령, 즉 한계연령¹²⁾을 초과한 인구의 학력구조전망은 <표 1>의 학력구조를 외삽(extrapolation)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단 고졸자의 경우에는 여타학력계층의 구성비가 산출된 다음 잔여로 산출하였다.

$$E_{a+t, g, T+t} = E_{a, g, T}$$

E=학력별 인구구성비, a=나이, t=년도, g=학력수준, T=1995년.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12. 남자의 경우 대학원 35-39세, 대학 30-34, 초대 25-29, 중학 25-29세, 초등 20-24세, 무학 15-19세, 여자의 경우 대학원 및 대학 25-29세, 초대 20-24, 중학-무학 20-24세.

2. 경제활동률의 변동과 민간 경제활동인구 전망

향후의 경제활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학률, 출산력, 퇴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출산력과 취학률은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경제활동률에 미칠 한계적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의 경제활동률은 공급측면보다는 그 밖의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와 수요측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학령인구와 가임기 여성인구 및 노령인구등 지금까지 한계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온 인구계층의 경제활동률에 민감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별 경제활동률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와 가임기여성인구의 경제활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55세이상 노령인구의 경제활동률은 상대적으로 높다¹³⁾.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률은 앞으로 사회경제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패턴을 따를 것으로 전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지표나 인구조표면에서 한국보다 30년정도 선행하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성별나이별 경제활동률이 2020년에 일본의 199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고 1995-2020년간 1992년에 관찰된 한일간 성별나이별 경제활동률 격차가 매년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결과는 <부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위에서 예측된 경제활동률을 민간인구규모에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단, 민간인구는 총인구에서 군인,전경등 비민간집단인구를 제외한 인구로 정의된다. 여기서는 비민간 집단인구의 규모를 남자 15-29세 계층에 한하여 적용하였다¹⁴⁾. 즉,

$$L_{a,s,t} = l_{a,s,t} \cdot (P_{a,s,t} - I_{a,s,t})$$

L=경제활동인구, l=경제활동률, P=인구, I=비민간 집단인구, 하첨자 a,s,t=나이, 성, 연도.

13. 구성열,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과제와 전망", 윤기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편, 『윤기중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5, pp.151-168.
14. 1995-2020년간 비민간 집단인구의 규모가 남자 15-19세 14.7만명, 20-24세 64.5만명, 25-29세 9만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비민간 집단인구의 총규모 88.2만명은 1995 인구센서스 2%표본자료와 1995 인구센서스 전수조사보고서 인구의 차이로서 여기서는 이를 남자 15-29세인구에 안분한 것이다.

3. 인적자본의 공급전망과 변동요인: 1995-2020

위에서 제시된 전제아래서 우리나라의 1995-2020년간 인적자본의 공급전망과 그 변동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적자본의 변동전망

1995-2020년간 인적자본의 규모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년의 1323억 원/시에서 2020년에는 2148억 원/시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⁵⁾. 이는 1965-95년간의 4배증가에 비할때 현저히 둔화된 것이다.

인적자본의 변동을 기간별로 보면 1995-2000년간 14.5%에서 출발하여 거의 매 5년간 2%포인트씩 감소하여 2015-2020년간은 5.6%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표 4>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이러한 공급둔화는 여성인구보다는 남성인구의 경우 시기적으로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둔화추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공급전망: 1995-2020

	1995-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기초 인적자본의 공급전망(100만 원/시)					
총계	132297	151447	170844	187999	203404
남자	98744	112302	125885	138065	148502
여자	33553	39145	44959	49935	54901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19150	19398	17155	15404	11377
남자	13558	13583	12180	10438	7397
여자	5592	5815	4975	4966	3980
기간별 변동율(dHK/HK)					
총계	0.14475	0.12808	0.10041	0.08194	0.05593
남자	0.1373	0.12095	0.09675	0.0756	0.04981
여자	0.16665	0.14855	0.11066	0.09946	0.0725

15. 1995년의 인적자본규모가 <표 2>에서의 추정치인 1301억 원/시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 2>의 경우에는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데 비하여 <표 4>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표 4>의 경우 1995년의 경제활동인구는 실제치가 아니라 <부표 5>의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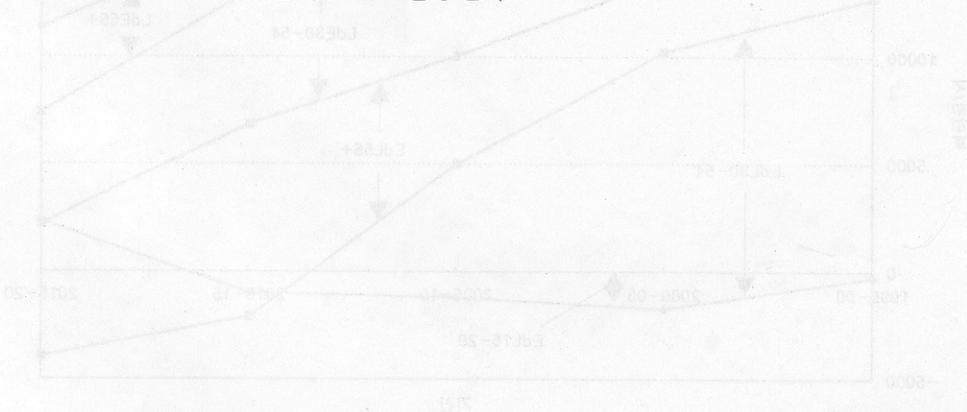
나. 인적자본 공급증가의 둔화요인

[그림 8]은 우리나라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을 질적변화와 양적변화로 나누고 이를 인구특성별로 나누어 그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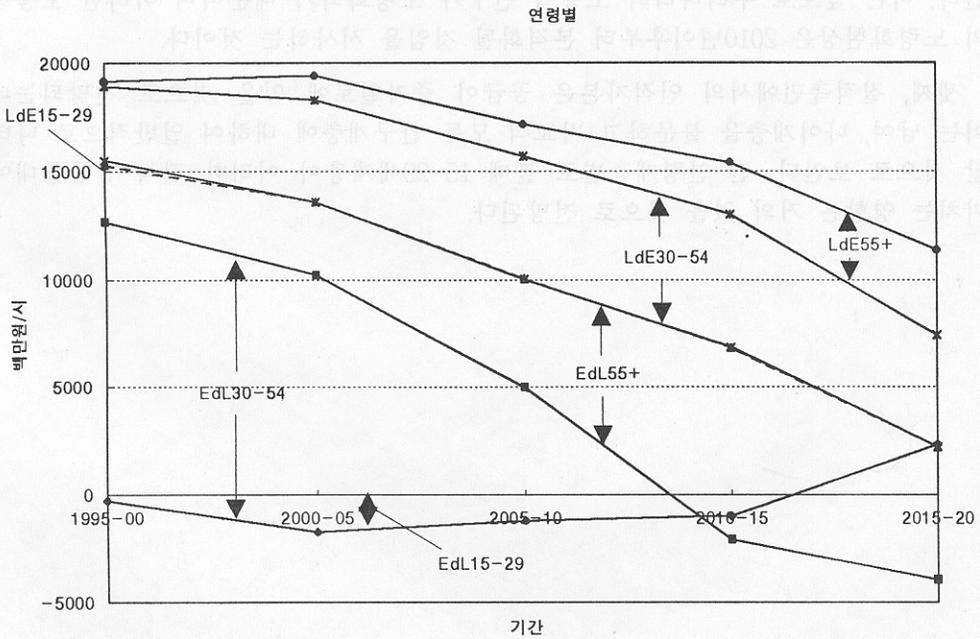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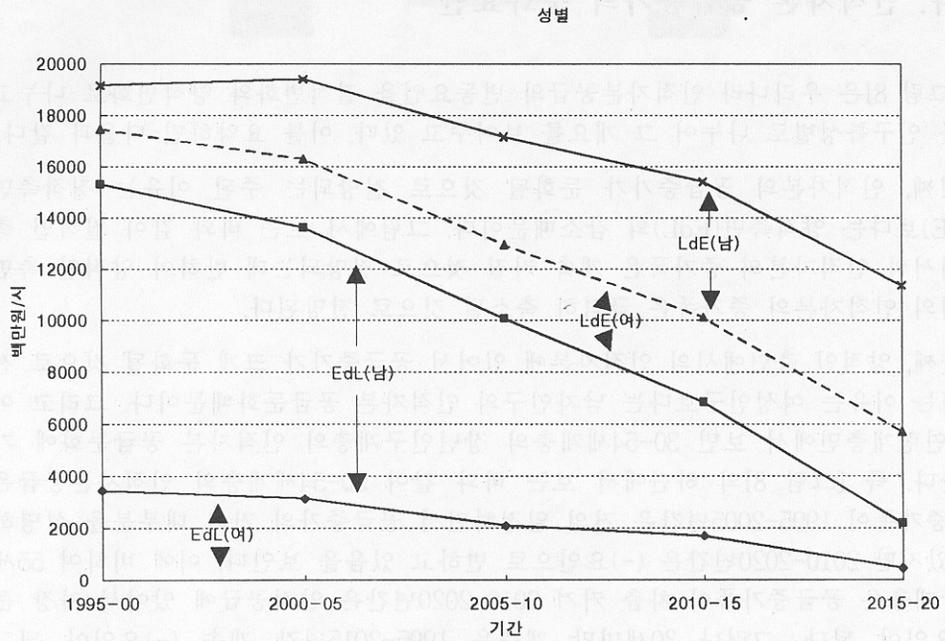
첫째, 인적자본의 공급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된 이유는 질적측면(LdE)보다는 양적측면(EdL)의 감소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의 증가폭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하여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의 증가폭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에 있어서 공급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여성인구보다는 남자인구의 인적자본 공급둔화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연령계층층에서 보면 30-54세계층의 장년인구계층의 인적자본 공급둔화에 기인한다. 즉 [그림 8]의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54세계층의 인적자본공급은 그 증가폭이 1995-2005년간은 거의 일정하면서 공급증가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2010-2020년간은 (-)요인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55세 이상계층은 공급증가폭이 차츰 커져 2010-2020년간은 양적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러나 30세미만 계층은 1995-2015년간 계속 (-)요인이 되고 2015-2020년간 (+)요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노동력의 노령화현상은 2010년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질적측면에서의 인적자본은 공급이 증가일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남녀, 나이계층을 불문하고 비교적 모든 인구계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 연령계층별로 볼때 15-29세계층이 이러한 질적 공급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인적자본스톡 변동요인과 인구특성별 구성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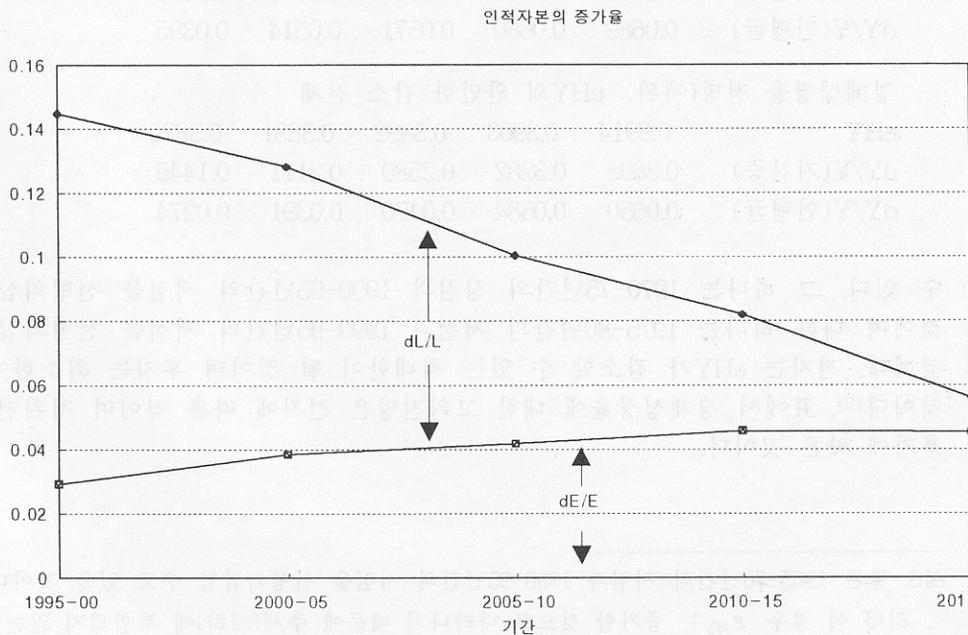
자료: 부표 6.

4. $\epsilon_{HY}(K, T)$ 의 가정에 따른 대안적 경제성장률 전망

1995-2000년간 우리나라 인적자본 공급의 증가율을 양적요인(dL/L)과 질적요인(dE/E)으로 나누어 보면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인적자본의 증가율(dH/H)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질적요인이 증가되는 데 비하여 양적요인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부터는 우리나라 인적자본 공급의 주된 증가요인은 질적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자본 공급증가율이 이와 같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경제성장률도 둔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인적자본 공급증가율 둔화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지는 탄력도 ϵ_{HY} 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좌우된다. 여기서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ϵ_{HY} 의 향후추세에 대한 두가지 대안적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 보았다.

ϵ_{HY} 에 대한 전망은 [그림 7]의 추세치를 두가지 방법으로 연장함으로써 구해볼 [그림 9] 인적자본의 요인별 증가율 전망



<표 5> $\epsilon_{HY}(K, T)$ 의 가정에 따른 대안적 경제성장을 전망

	1995-20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인적자본 증가율:					
dH/H	0.1448	0.1281	0.1004	0.0819	0.0559
dE/E	0.0291	0.0382	0.0416	0.0456	0.0452
dL/L	0.1156	0.0899	0.0588	0.0363	0.0107
구성비:					
H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	0.2011	0.2984	0.4141	0.5565	0.8089
L	0.7989	0.7015	0.5859	0.4435	0.1912
경제성장율 전망(고위): eHY의 급속한 감소 전제					
eHY	0.3664	0.3402	0.3141	0.2879	0.2617
dY/Y(기간중)	0.3951	0.3765	0.3197	0.2846	0.2137
dY/Y(연평균)	0.0689	0.0660	0.0571	0.0514	0.0395

경제성장율 전망(저위): eHY의 완만한 감소 전제					
eHY	0.3914	0.3903	0.3892	0.3881	0.3870
dY/Y(기간중)	0.3698	0.3282	0.2580	0.2111	0.1445
dY/Y(연평균)	0.0650	0.0584	0.0470	0.0391	0.0274

수 있다. 그 하나는 1970-75년간의 정점과 1990-95년간의 저점을 선형외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75-80년간의 저점과 1990-95년간의 저점을 선형외삽하는 것이다. 전자는 eHY가 감소할 수 있는 최대한이 될 것이며 후자는 최소한이 될 것이다¹⁶⁾. 표에서 경제성장율에 대한 고위전망은 전자에 따른 것이며 저위전망은 후자에 따른 것이다.

e16. 물론 1965-70년간의 저점과 1990-95년간의 저점을 선형외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ϵ_{HY} 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저하)에 부합되지 않는다.

17. 근로시간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긴 편이므로 연장할 여지가 없는 편이다.

그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1995-2000년간은 6.89-6.50%에서 2015-2020년간은 3.95-2.74%로 매 5년간 거의 1%포인트씩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인적자본증가율에서의 구성비(표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의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정책과제와 시사점

잠재성장율은 결국 공급측면에서 노동의 양과 질, 수요측면에서 성장의 고용흡수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향후의 저성장전망을 어떻게 극복 내지 개선할 수 있는가를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전망은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볼때 양적공급의 둔화때문이다. 양적공급은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율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인구증가율을 정책변수로 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율만이 정책변수로 남는다¹⁷⁾.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율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폐탄에 접근할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활동율 폐탄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50세이상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율은 높지만 학령인구와 25-40세의 가입기여성인구의 활동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의 양적노동공급은 학령인구와 가입기여성인구의 경제활동율을 현재의 일본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그만큼 본고의 전망치보다 높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구와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잠재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향후 양적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가 되며 이에 따라 잠재성장율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성장의 고용흡수력, 즉 ϵ_{HY} 에 대한 가변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잠재성장율을 전망하였다. 과연 ϵ_{HY} 는 본고에서 제시한 범위내에 머물 것인가? 머문다고 하더라도 보다 바람직한 변화(저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ϵ_{HY} 가 저하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뜻하므로 이 문제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직결된다. 지난 30년간의

17. 근로시간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긴 편이므로 연장할 여지가 없는 편이다.

경제성장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자본과 그에 체화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기술의 모방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 산업 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노동절약적)인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일정산업부문내에서도 보다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노동생산성상승이 주로 하드웨어적 유형자본을 통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한다면 향후의 그것은 소프트웨어적 무형자본을 통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한다거나 자체개발을 하는데는 가중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기술이전을 기피하거나 이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단가가 누적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자체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반도체산업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투자 규모가 소요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요컨대 향후의 노동생산성향상, 즉 ϵ_{HY} 의 저하는 과거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노동생산성저하가 유형의 자본보다는 무형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기술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방향도 기업단위보다는 산업체원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구조와 생산기술의 이러한 변화전망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 인구의 고학력화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임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의력함양과는 거리가 있고 대학교육도 산업생산성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도 기업고유의 기술과 관련된 부문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속성상 고급인력의 직업훈련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의 학력향상을 생산성의 향상, 나아가서는 잠재성장율의 상승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서는 교육제도와 직업훈련등 인력양성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표 1>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율

	1994년					1989년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남자										
15-19	2.19	2.80	3.23	3.50	3.23	0.95	1.13	1.26	0.94	1.26
20-24	3.61	4.26	4.14	3.77	4.38	1.35	1.42	1.66	1.64	2.57
25-29	5.34	6.62	5.99	5.31	5.99	1.90	1.90	2.16	2.28	3.05
30-34	6.71	7.96	7.38	6.95	8.04	2.20	2.19	2.64	3.03	4.12
35-39	7.96	9.07	8.38	8.56	10.55	2.46	2.39	3.07	3.83	5.52
40-44	8.83	9.37	9.41	9.57	13.15	2.48	2.49	3.36	4.09	6.31
45-49	7.73	8.99	9.98	10.50	15.04	2.39	2.54	3.33	4.69	7.11
50-54	6.72	8.58	9.85	10.45	14.58	2.16	2.40	3.23	4.40	7.35
55-59	6.07	6.94	8.81	9.31	15.82	1.94	2.08	3.11	3.29	6.99
60+	4.51	5.22	7.81	9.66	12.71	1.77	1.82	3.00	3.88	7.87
여자										
15-19	2.91	2.43	2.86	3.93	2.86	1.06	1.12	1.25	0.91	1.25
20-24	2.96	3.26	3.58	3.66	4.14	1.28	1.28	1.50	1.80	2.15
25-29	2.78	3.19	4.27	4.83	5.30	1.30	1.32	1.84	2.39	2.83
30-34	3.02	3.10	4.73	6.07	7.35	1.18	1.27	2.06	2.97	3.86
35-39	3.06	3.20	4.87	6.06	8.03	1.18	1.28	1.89	3.70	4.97
40-44	3.37	3.51	4.53	7.66	9.64	1.21	1.27	1.71	3.70	4.85
45-49	3.49	3.40	4.10	5.81	10.15	1.22	1.34	1.72	4.13	6.24
50-54	3.22	3.37	4.26	7.64	9.94	1.14	1.25	2.01	3.36	6.81
55-59	2.91	2.91	4.77	6.16	15.12	1.06	1.28	2.00	2.16	5.16
60+	2.40	2.59	5.36	4.82	14.11	0.98	1.35	1.47	5.34	5.41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조사 1994, 1989

<부표 2> 인구특성별 경제활동률의 학력간 격차 (1995년)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대학원
남자							
15-19	0.341	0.036	0.042	0.330	0.400	0.091	0.000
20-24	0.462	0.870	0.812	0.542	0.855	0.691	0.680
25-29	0.545	0.917	0.965	0.881	0.979	0.926	0.923
30-34	0.617	0.953	0.974	0.987	0.992	0.984	0.982
35-39	0.762	0.953	0.979	0.989	0.991	0.991	0.992
40-44	0.749	0.957	0.974	0.984	0.985	0.992	0.991
45-49	0.815	0.945	0.962	0.973	0.980	0.984	0.989
50-54	0.823	0.917	0.928	0.938	0.954	0.957	0.979
55-59	0.802	0.857	0.847	0.845	0.881	0.873	0.951
60+	0.709	0.737	0.650	0.658	0.681	0.682	0.806
여자							
15-19	0.098	0.015	0.013	0.133	0.150	0.091	0.000
20-24	0.123	0.171	0.201	0.135	0.219	0.194	0.040
25-29	0.148	0.124	0.105	0.073	0.075	0.090	0.079
30-34	0.106	0.081	0.068	0.041	0.030	0.028	0.022
35-39	0.111	0.055	0.048	0.030	0.021	0.019	0.011
40-44	0.075	0.046	0.045	0.031	0.029	0.015	0.007
45-49	0.081	0.043	0.044	0.039	0.029	0.025	0.011
50-54	0.060	0.044	0.050	0.049	0.040	0.030	0.009
55-59	0.060	0.046	0.062	0.062	0.034	0.041	0.014
60+	0.027	0.032	0.052	0.059	0.034	0.041	0.031

<부표 3> 인구특성별 실업률의 학력간 격차 (1995년)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대학원
남자							
15-19	0.087	0.016	0.027	0.404	0.446	0.000	0.000
20-24	0.244	0.526	0.583	0.560	0.838	0.793	0.659
25-29	0.286	0.478	0.363	0.366	0.530	0.570	0.677
30-34	0.363	0.516	0.402	0.313	0.368	0.398	0.605
35-39	0.501	0.589	0.460	0.371	0.375	0.375	0.655
40-44	0.551	0.614	0.491	0.379	0.424	0.379	0.690
45-49	0.598	0.584	0.444	0.341	0.416	0.338	0.755
50-54	0.616	0.545	0.362	0.292	0.360	0.324	0.603
55-59	0.554	0.467	0.280	0.224	0.269	0.262	0.667
60+	0.469	0.346	0.202	0.161	0.191	0.250	0.667
여자							
15-19	0.043	0.007	0.008	0.080	0.071	0.000	0.000
20-24	0.111	0.119	0.130	0.069	0.103	0.124	0.205
25-29	0.022	0.048	0.035	0.034	0.044	0.047	0.066
30-34	0.035	0.015	0.016	0.014	0.020	0.014	0.014
35-39	0.035	0.018	0.015	0.014	0.013	0.009	0.017
40-44	0.022	0.012	0.014	0.014	0.014	0.009	0.005
45-49	0.018	0.014	0.013	0.014	0.014	0.005	0.000
50-54	0.012	0.012	0.012	0.013	0.010	0.008	0.014
55-59	0.012	0.007	0.014	0.010	0.000	0.005	0.000
60+	0.005	0.005	0.008	0.011	0.000	0.010	0.000

<부표 4>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 1965-1995년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9450	12519	13605	10669	21375	19257
15-29	583	3688	2711	2067	1664	994
30-54	8068	7266	9781	7545	15403	13939
55+	798	1566	1113	1057	4308	4325
남자	7197	9817	9696	7502	14489	13974
15-29	-248	2808	1611	1238	54	164
30-54	6867	5796	7306	5614	11178	10472
55+	577	1214	778	649	3257	3339
여자	2253	2702	3909	3167	6886	5283
15-29	831	879	1100	828	1611	830
30-54	1201	1470	2474	1932	4223	3467
55+	220	352	335	407	1051	986
질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LdE)						
총계	775	1194	1700	2102	2679	3762
15-29	196	225	243	269	295	-34
30-54	624	942	1286	1503	1826	2531
55+	-45	27	170	330	559	1264
남자	598	877	1181	1277	1385	1904
15-29	115	101	89	45	-37	-262
30-54	530	755	931	927	935	1165
55+	-46	22	160	304	487	1001
여자	177	317	519	826	1294	1858
15-29	81	124	155	224	332	229
30-54	96	189	355	577	889	1367
55+	1	4	10	26	72	263
양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EdL)						
총계	8675	11325	11905	8567	18696	15495
15-29	387	3463	2467	1798	1368	1027
30-54	7445	6323	8494	6042	13578	11407
55+	843	1539	943	727	3749	3061
남자	6599	8941	8515	6225	13104	12070
15-29	-363	2708	1522	1193	89	426
30-54	6338	5040	6376	4687	10244	9305
55+	624	1192	618	346	2771	2338
여자	2076	2384	3391	2341	5592	3425
15-29	750	755	946	606	1279	601
30-54	1105	1281	2119	1355	3334	2101
55+	220	348	325	381	979	724

<부표 5> 경제활동율 전망

	1995		2000		200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0.111	0.168	0.127	0.169	0.143	0.171
20-24	0.578	0.653	0.610	0.673	0.642	0.693
25-29	0.911	0.459	0.921	0.494	0.931	0.529
30-34	0.973	0.478	0.974	0.487	0.975	0.497
35-39	0.971	0.595	0.973	0.601	0.975	0.606
40-44	0.967	0.634	0.970	0.647	0.973	0.661
45-49	0.950	0.617	0.956	0.637	0.962	0.657
50-54	0.918	0.583	0.928	0.601	0.938	0.619
55-59	0.854	0.536	0.870	0.540	0.886	0.544
60+	0.523	0.266	0.523	0.262	0.522	0.258

	2010		2015		202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0.159	0.172	0.175	0.174	0.191	0.176
20-24	0.674	0.712	0.706	0.732	0.739	0.752
25-29	0.942	0.563	0.952	0.598	0.962	0.633
30-34	0.977	0.506	0.978	0.516	0.980	0.525
35-39	0.977	0.612	0.979	0.617	0.981	0.623
40-44	0.976	0.675	0.979	0.689	0.981	0.702
45-49	0.967	0.676	0.973	0.696	0.979	0.716
50-54	0.949	0.637	0.959	0.655	0.969	0.672
55-59	0.901	0.548	0.917	0.552	0.933	0.556
60+	0.522	0.255	0.521	0.251	0.521	0.248

<부표 6>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 1995-2020년

1995-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19150	19398	17155	15404	11377
15-29	-75	-1782	-1227	-969	2312
30-54	16380	16667	11813	5031	-1021
55+	2845	4512	6568	11343	10087
남자	13558	13583	12180	10438	7397
15-29	-188	-1365	-731	-823	1508
30-54	11501	11460	7886	2689	-1284
55+	2246	3488	5024	8572	7172
여자	5592	5815	4975	4966	3980
15-29	113	-417	-496	-146	803
30-54	4879	5207	3928	2342	263
55+	599	1024	1544	2771	2914

질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LdE)

총계	3852	5789	7104	8572	9202
15-29	205	-17	-2	37	5
30-54	3412	4687	5635	6157	5260
55+	234	1120	1471	2379	3938
남자	1697	3111	4221	5296	5667
15-29	-20	-26	-49	14	0
30-54	1648	2420	3341	3787	3463
55+	69	715	929	1496	2205
여자	2155	2679	2883	3276	3535
15-29	226	10	46	23	6
30-54	1764	2265	2294	2369	1797
55+	165	403	543	884	1732

양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EdL)

총계	15298	13608	10051	6832	2175
15-29	-283	-1765	-1224	-1006	2306
30-54	12967	11981	6178	-1125	-6281
55+	2611	3393	5096	8964	6150
남자	11861	10472	7959	5142	1730
15-29	-168	-1340	-682	-837	1508
30-54	9853	9040	4545	-1098	-4746
55+	2177	2771	4095	7077	4968
여자	3436	3136	2092	1691	445
15-29	-113	-426	-542	-169	798
30-54	3115	2941	1634	-27	-1534
55+	434	621	1001	1887	1182

< 참고문헌 >

- 구성열,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과제와 전망”, 윤기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편, 『윤기중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7.2., pp.151-168.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1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 홍성덕,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1963-92)”,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1994, pp.147-178.
- Barro, Robert J. and Jong-Hwa Le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3, pp.363-394.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 Hill, 1995.
- Becker, Gary S.,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ri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Griliches, Zvi, "Education, Human Capital and Growth: A personal Perspective."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1945, January, 1996.
- Schultz, Theodore W.,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 December 1960, pp.571-83.
- Willis, Robert,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2, Part II, March-April 1973, pp.514-569,

[요약]

우리나라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

구 성 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동안 연평균 7-9%의 고속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급속한 인구변천의 결과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수준에서 1%이하로 저하되었고 노동력인구의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연평균)도 1963-73년간 3.76%, 1973-83년간 2.86%, 1983-93년간 3.16%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계층별로 엇갈린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초과수요, 즉 인력부족문제에 봉착하였고 해외인력의 수입, 자본의 대외진출, 노동절약적 산업구조의 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 공급의 증가둔화추세는 반전시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산업구조개편(노동절약)을 가정한다 해도 향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그러나 인구변천과정은 인구증가율의 둔화과정일 뿐 아니라 인구의 양적증가둔화가 질적향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는 1966-90년간 우리나라 국민중 중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20.4%에서 67.6%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때 명백하다. 따라서 노동력인구의 질적(교육수준)향상을 고려한다고 할 때 인구변천의 결과 경제성장의 저하로 귀결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력인구를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으로 분해하여 1965-95년간과 1995-2020년간 노동력수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잠재성장을 전망을 제시하였다.

(i)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의 양적·질적(교육수준)변화 정도와
경제성장

질적측면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동력의 증가율은 과거 30년동안 매5년간 13.5%-23.9%의 범위에서 하향추세를 보이면서 변동하여 왔다. 이를 양과 질로 구분하여 보면 양적인 노동력의 증가율은 20%를 중심으로 하여 변동이 심한 가운데 다소 저하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질적수준은 1965년 이후 매 5년간 1.8-3.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그간의 경제성장이 점차 양적노동투입에서 질적노동투입으로 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체정도는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간 한국경제의 성장이 노동력의 질적수준 상승보다는 양적증가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노동력추이의 변동요인을 인구특성별로 구분하면 과거의 노동력공급은 주로 남성인구, 30-54세의 장년기인구의 주도하에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55세 이상 노령인구층의 기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ii) 노동공급의 향후 변화와 경제성장률 전망

향후 질적측면을 포함한 노동력의 증가율은 1995-2000년간 14.5%에서 2015-20년간 5.6%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질적수준의 증가율이 1995-2000년간 2.91%에서 2015-20년간 4.52%로 그 증가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양적증가율은 11.56%에서 1.07%로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력에서 양으로부터 질로의 대체가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연령계층면에서 보면 30-54세 계층의 장년인구계층의 공급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55세 이상 계층은 공급증가폭이 차츰 커져 노동력 인구의 노령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노동력의 공급증가 둔화는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고용흡수력 저하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95-2000년간의 6.89-6.50%에서 2015-2020년간의 3.95-2.74%로 매 5년간 거의 1%포인트씩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양적 노동력보다는 질적수준에 더욱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iii) 정책과제와 시사점

장래 경제성장률은 결국 공급측면에서 노동의 양과 질, 수요측면에서 성장의 노동력 의존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향후의 저성장전망을 어떻게 극복 내지 개선할 수 있는가를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전망은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양적공급의 둔화 때문이다. 인구증가율이 정체상태라고 가정할 때 노동시간은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으므로 경제활동률만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여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학력인구와 가임기여성인구의 경제활동률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여성인구와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잠재인력의 활용정도가 향후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의 노동력 의존도가 문제가 된다.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직결되는데, 앞으로의 노동생산성 제고는 유형의 자본보다는 무형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기술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방향도 기업단위보다는 산업차원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구조와 생산기술의 이러한 변화전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인구의 고학력화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의력함양과는 거리가 있고 대학교육도 산업생산성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도 기업고유의 기술과 관련된 부문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속성상 고급인력의 직업훈련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의 학력향상을 생산성의 향상,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서는 교육제도와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료 IV

한국사회 직업
구조의 특성과 변화

국방대학원

김병조 교수

1911年

1911年

1911年

1911年

1911年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

김 병 조
(국방대학원)

1. 머리말 : 자료 및 직업분류

본고는¹⁾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을 지난 40년간의 직업구조 및 내부구성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직업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인구주택총조사」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단기간의 인력수급정책이나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지만, 「국민생활구조」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자료의 포괄성이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정부수립후 최초로 실시된 인구센서스는 1949년에 실시된 『제1회총인구조사』이다. 그러나 『제1회총인구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으며 또한, 이후 우리가 경험한 한국전쟁과 분단상황으로 인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구조 분석에는 1949년의 자료가 부적절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대 분류 수준에서 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1955년에 실시한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부터 활용하고자 한다.²⁾ 따라서 1955년에서 1990년까지는 그 동안 발간된 인구센서스 조사 보고서를 활용하고, 1995년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1985년의 경우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중 『경제활동편』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연보』 중 1985년 자료를 대체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직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직업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를 말한다. 일의 계속성이란 주기적(매일, 매주, 매월), 계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확한 주기가 없더라도 현재 하는 일에 대하여 의사와 능력을 갖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통계청, 1997:5)³⁾ 그러

- 1)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수행을 위해 홍두승·김병조·조동기가 실시한 연구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2) 그러나 1955년 센서스 조사결과와 자료수집의 정확성이나 통계작성의 치밀성 등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1960년대이후의 변화가 중점적으로 분석된다.
- 3) 다음과 같은 활동은 직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소작료, 권리금 등 재산수입.
 - (2) 연금법이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

나 개개인의 직업활동은 말그대로 천차만별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조사항목인 연령, 성,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등은 구분이 단순하고, 사회변동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분류가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직업활동은 사회변동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분류체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⁴⁾

따라서 기존의 직업분류가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분류를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통계청이 1974년이래 사용해왔던 직업분류방식을 1992년 말에 전면 개정한 것이 바로 사회변동양상을 직업분류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표1>은 1974년 구분류체계와 1992년 신분류체계를 대분류수준에서 비교한 것이다.

<표1> 직업분류체계(대분류) 비교, 1974-1992년도 (한국표준직업분류)

1974년도	1992년도
0/1 전문직·전문기술직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2 행정직·관리직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사무직	4 사무직원
4 판매직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5 서비스직	
6 농·림·수산	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7/8/9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X 분류불능	.0 군인

자료 : 통계청 (1974, 1992).

시계열 분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전망하는 것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새로운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전에 조사된 직업분류를 최신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재분류해야 한

(3) 자기집에서의 가사활동.

(4) 정규 주간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5) 법률위반행위(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수형자의 활동) 등.

4) 예컨대 1986년 10,451개였던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994년 현재 11,537개로 추정된다(홍두승, 1997). 즉 10년이 채되지 않는 시기에 직업수가 10%정도 증가한 것이다.

다. 그러나, 이 경우 현실적인 면에서 각년도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직업이란 특성상, 여러 직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통합되기보다 하나의 직업이 여러 개로 분화되는 경우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시계열분석은 현재의 분화된 분류보다 과거의 미분화된 분류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가 1992년말 개정된 직업분류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 대 분류가 가장 간략한 1974년 분류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직업구성과 취업환경 :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직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 분석대상자가 취업자에 한정된다. 이는 직업구성의 변화추세에 대한 분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은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또한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의미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경제가치로 환산되지 못하고, 직업활동으로도 간주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⁵⁾ 그밖의 여러 이유로 직업구조 밖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나 직업구성이 취업자 내부의 관계, 또는 취업자와 실업자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이건, 1997참조). 따라서 직업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직업구조의 환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2〉, 〈표3〉은 성별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⁶⁾ 여기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성별 취업구조나 노동시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먼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2〉를 해석하기에 앞서 1970년 조사결과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97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남성 20대의 경제활동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⁷⁾

이를 감안하고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난 특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 5) 최근들어 '전업주부'라는 용어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직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 6) 경제활동가능인구로 분류되는 연령기준이 그동안 약간 변화였다. 1960년은 만13세이상, 1955년 및 1966년에서 1980년은 만14세이상, 1985년이후는 만15세이상이었다. 여기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5세미만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였다.
 - 7) 이유는 모르겠으나 1970년 센서스 남성 경제활동인구에서 20-24세의 경우 130만명중 미상이 35%에 이르며, 24-29세는 100만명중 8%가 미상이었다. 이처럼 미상이 많은 경우는 여타 센서스에서 찾을 수 없다.

첫째, 15-19세 및 20-24세의 경우 1980년을 고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동일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 대신에 취학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30대, 40대의 경우는 대략 95%이상이 경제활동참가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사회 남성 30-40대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연령층임을 보여준다. 셋째, 50대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60세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짐에도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넷째, 전체적으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55-1975년까지 80%전후였으나, 1980년대 이후 줄어들다가 1995년에 다시 늘고 있다. 30-40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변화가 없음을 고려하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0대와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은 앞으로도 취학률이 높을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 20대 후반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표2>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남성) 1955-1995

(단위 : %)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55 ¹⁾	85.9	61.7	85.9	97.1	99.2	99.4	99.5	99.4	99.4	99.2	83.6	57.8
1960	78.9	45.2	75.9	90.9	95.7	96.3	96.9	96.4	91.1	88.5	71.1	39.3
1966	81.0	52.8	81.1	93.6	95.7	95.8	95.6	95.0	92.2	83.9	63.6	30.1
1970	74.8	45.9	50.3	85.7	95.6	96.6	95.9	95.2	91.9	85.4	67.9	35.1
1975	80.7	46.3	84.3	96.1	98.5	98.6	98.0	96.8	93.7	85.6	68.3	34.4
1980	75.1	26.1	71.2	92.7	97.3	97.4	96.8	95.2	90.6	82.6	68.9	40.6
1985 ²⁾	72.3	14.5	63.3	90.8	96.4	96.5	94.9	93.3	88.1	77.3	44.2	
1990	68.3	8.4	40.2	82.1	93.7	94.5	93.5	91.4	87.1	77.5	61.3	36.1
1995	77.5	10.6	58.5	90.6	98.2	98.5	97.8	96.6	93.0	85.3	69.8	40.5

주 : ¹⁾ 1955년은 14세이상, 나머지는 15세이상.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이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표3>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955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취업개념으로 조사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 여성의 경우도 몇가지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남성과의 경제활동참여율 격차 35%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둘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1975년이

고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75년이다.⁸⁾ 비록 1995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1975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리라는 상식적인 기대와 어긋나는 점이다.⁹⁾ 셋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20-24세에서 가장 높았다가 25-29세에서 급락한 다음, 다시금 서서히 높아지다 45-49세를 정점으로 다시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쌍봉형 경제활동참여율이 지난 한 세대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결국 여성이 결혼이후 직업생활을 지속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여성의 경우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초기 상승하다가 1975년 이후 낮아져서, 이제는 남성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정도로 낮아졌다.

<표3>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1955-1995

(단위 : %)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55 ¹⁾	63.7	79.0	62.9	56.4	58.6	63.6	67.8	72.1	75.2	75.8	41.3	18.5
1960	28.0	25.4	30.7	26.6	29.0	32.9	34.8	35.2	32.8	29.3	16.8	9.2
1966	32.0	32.5	36.3	29.4	32.6	37.4	40.9	41.0	36.0	30.0	17.9	6.3
1970	38.4	40.3	43.9	31.7	36.3	43.1	47.2	48.6	45.2	39.1	26.9	10.6
1975	46.7	47.6	56.5	35.6	42.1	51.2	57.8	59.8	57.1	50.9	33.6	12.0
1980	39.5	34.0	53.0	30.2	33.5	43.0	49.0	51.3	49.0	43.2	31.3	13.0
1985 ²⁾	41.9	21.1	55.1	35.9	43.6	52.9	58.2	59.2	52.4	47.2	19.2	
1990	32.6	16.7	51.4	29.7	28.0	35.3	40.4	43.6	42.9	38.8	29.1	11.3
1995	38.9	11.0	61.3	42.7	35.8	42.4	47.2	46.8	46.2	43.1	36.8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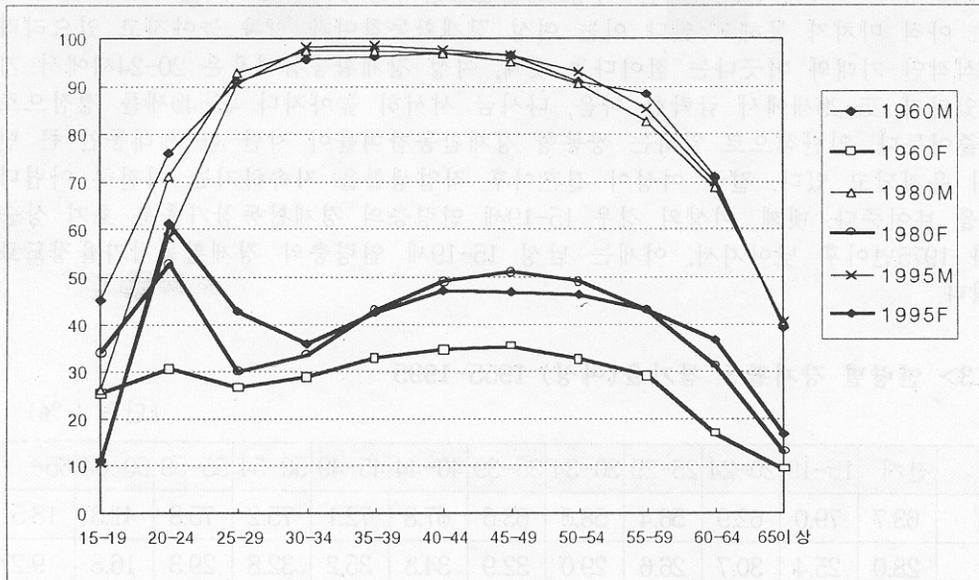
주 : ¹⁾ 1955년은 14세이상, 나머지는 15세이상.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8) 남성의 경우도 1975년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처럼 그리 두드러지는 않다.

9)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단 1970년대 중반에 한국 노동시장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논의나 경제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그림1]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성 및 변화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19세 및 20-24세 층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으며, 10대 경제활동참가율 이하로 쌍봉형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인구중 남성 30-40대(넓게는 50대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지만, 여타 연령층의 남성이나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3. 직업구조의 변화

이제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40년간의 직업구조 변화에 대해 개괄적인 윤곽을 그려보자. <표4>에서 나타난 직업구성의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회변화의 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 직업구성의 변화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임·수산업 종사자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 중반 취업자의 79.5%를 차지했던 농·임·수산업 종사자가 1995년이 되면 그 비중이 16.1%로 줄어든다. 이는 한국사회가 1차산업사회를 급속한 속도로 탈피했음을 의미한다. 농·임·수산업 종사자가 감소하는 속도는 1955-1970년까지가 매우 빨랐고, 1970-1975년의 조정기를 거쳐 1975년 이후 다시 가속화되었다. 현재는 그 비중자체가 1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직업구조

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겠지만,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감소는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¹⁰⁾

<표4> 직업구조의 변화(대분류)¹⁾: 1955-1995

(단위 : %)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전문직	1.6	2.4	2.8	3.2	3.3	4.5	5.8	7.4	10.5
관리직	1.2	1.3	0.9	1.0	0.8	1.1	1.5	2.1	4.3
사무직	2.4	2.6	4.3	5.9	6.7	9.5	11.5	15.4	14.5
판매직	4.5	8.3	10.7	10.2	10.5	12.1	15.5	14.0	15.8
서비스직	2.1	5.2	5.4	6.7	6.5	7.1	10.8	8.8	11.8
생산직	8.7	13.4	19.2	21.8	23.0	28.1	30.3	31.6	27.0
농·임·수	79.5	66.7	56.8	51.2	49.2	37.6	24.6	20.7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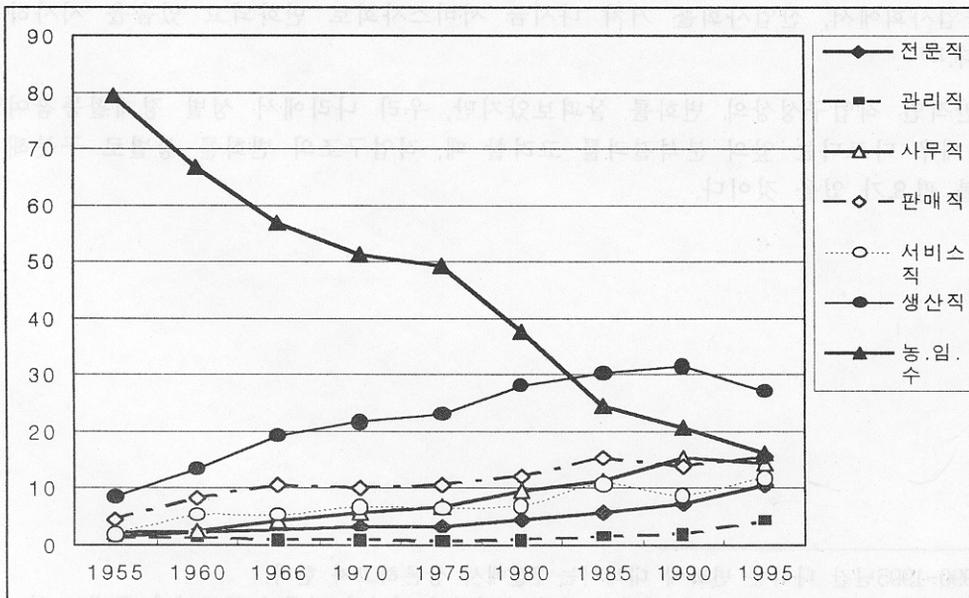
주 : ¹⁾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분류불능자 및 군인(1960년, 1995)제외.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그림2] 직업별 구성의 변화 : 1955-1995

(%)



10) 특히 초기 감소기에 젊은 층의 감소가 큰 폭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농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었다.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는 농·임·수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여타 직업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변화추세는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그림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감소는 산업화초기 생산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하였다. 생산직 종사자는 1955년 8.7%에서 1985년에 30.3%까지 급상승함으로써, 취업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더니, 1990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다.¹¹⁾ 1995년도의 경우도 생산직 종사자가 가장 많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의 방향으로 변할 것이 예상된다.¹²⁾ 그러나 1985년 중반을 고비로 한국사회에서 생산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사무직 종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1955년 2.4%, 1960년 2.6%에서 1990년에는 15.4%까지 증가한다. 그 결과 1990년에는 사무직 종사자가 그동안 보다 많았던 판매직 종사자를 구성비율상 추월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도 1990년을 고비로 줄어 들고 있다.

반면에 생산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문직 종사자, 관리직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는 1955년보다 그 비중이 커졌을 뿐 아니라, 1990년에 비해서도 1995년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리직과 전문직이 최근 들어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직업구성의 변화는 한국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다시금 서비스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¹³⁾

전반적인 직업구성상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성별 경제활동참여형태가 매우 다르다는 앞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직업구조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1990-1995년간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는 7절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12) 한편, 이 부분은 1980년대말 이래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기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설동훈(1996) 참조..

13) 부분적으로는 직업 분류체계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표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남자)¹⁾ 1955-1995

(단위 : %)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전문직	2.3	2.8	3.3	3.8	4.1	5.2	5.9	7.0	9.9
관리직	1.9	1.5	1.2	1.4	1.3	1.6	2.3	3.0	6.3
사무직	3.8	3.5	5.6	7.6	8.5	10.0	12.4	15.3	13.7
판매직	5.3	7.8	10.1	10.5	11.1	12.3	13.6	13.6	14.8
서비스직	1.8	3.4	3.4	4.5	4.6	5.4	6.9	6.4	8.5
생산직	12.5	15.9	21.6	25.7	27.4	32.9	36.0	37.0	33.9
농·임·수	72.4	65.2	54.7	46.3	43.0	32.5	22.7	17.5	1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¹⁾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분류불능자 및 군인(1960년, 1995)제외.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표5>를 <표4>와 비교하면 남성 직업별 구성비의 변화가 전체 직업구성비 변화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남성 경제활동참여가 여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 남성 직업별 취업구성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였지만, 전체와 비교하면 모든 직업군에서 변화율이 조금씩 완만하다. 둘째, 보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관리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직 종사자의 구성비가 적다. 셋째, 비록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성 취업자중 생산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현재 33.9%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이다.

여성의 경우도 <표6>을 기반으로 직업구성 변화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여성의 경우도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여성 취업자중에서 농·임·수산업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둘째, 1970년대까지는 농·임·수산업 종사자와 판매직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생산직 종사자가 여성 취업자의 9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이래 매 5년마다 여성 사무직 종사자가 2배가량씩 늘면서 급기야 1990년에는 사무직종사자 수가 판매직 종사자나 서비스직 종사자보다 많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여성 사무직 종사자의 증가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셋째, 전문직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1990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넷째, 최근들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관리직 종사자는 매우 적다.

<표6>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여자)¹ 1955-1995

(단위 : %)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전문직	0.6	1.5	1.8	2.1	2.1	3.5	5.3	8.3	11.8
관리직	0.1	0.8	0.0	0.0	0.0	0.0	0.1	0.2	0.6
사무직	0.4	0.5	1.5	2.8	4.0	8.6	10.2	15.5	16.0
판매직	3.2	9.7	11.8	9.6	9.5	11.6	18.3	14.6	17.7
서비스직	2.4	9.7	9.5	10.8	9.3	9.9	17.0	13.3	17.8
생산직	3.1	7.2	14.0	14.7	16.2	19.9	21.3	21.0	14.2
농, 임, 수	90.2	70.5	61.4	59.8	58.8	46.4	27.6	27.0	2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¹⁾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분류불능자 및 군인(1960년, 1995)제외.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표7> 직종별 여성비의 변화¹⁾ : 1955-1995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66.6	40.8	46.8	54.3	64.7	57.7	63.8	50.7	54.9
전문직	18.0	21.6	25.5	29.6	33.8	38.6	54.7	60.4	65.7
관리직 ²⁾	2.6	23.0	2.0	3.6	3.9	1.5	3.8	3.7	5.3
사무직	6.6	11.8	12.3	20.4	30.4	49.8	52.7	51.6	64.0
판매직	39.8	50.7	54.5	50.2	56.4	54.4	86.2	54.7	65.7
서비스직	84.8	116.4	128.8	131.5	132.8	105.1	157.5	105.5	115.1
생산직	16.6	18.4	30.2	31.5	38.8	35.0	37.9	29.0	23.0
농, 임, 수	83.1	43.9	52.5	70.8	89.6	82.2	77.6	78.7	92.3

주 : ¹⁾ 여성비는 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로 산출됨.

²⁾ 1960년의 경우 여성 관리직이 과도하게 잡힌 것으로 보임.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변화 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종이라고 간주되던 일부 직종에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표7>참조). 특히 그 현상은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두드러진다. 전문직의 경우 1960년대 20%에 있던 여성비가 1990년 60%를 넘고 1995년에는 65.7%가 되었으며, 사무직의 경우도 1960년대 10%대에서 1995년에는 6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농·임·수산업에서도 여성화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 50%내외였던 여성비가 1970년 70%가 넘게된 것이다. 1975년 여성비 89.6를 고비로 점차 줄어들다가 1995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종사자를 제외하면 농·수·임업종사자에서의 여성비가 여타 직종에서의 여성비보다 높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가 줄어드는 직종도 존재한다. 이는 생산직의 경우이다. 생산직에서는 1970년초반까지 높아지던 여성비가 1980년대 정체하더니 199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에서의 여성비 감소는 남성의 여성취업분야 진출확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이 생산직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¹⁴⁾

4. 직업별 연령구성의 변화

성별 직업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성별로 직업별 연령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대표값으로 연령분포상의 중앙값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직업이 젊어서 입직하고 나이가 들면 퇴직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값에 대한 검토는 직업별 연령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직업마다 어떤 연령층을 중심으로 충원되는지도 함께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8>은 남성의 직업별 연령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인 취업자 연령 중앙값은 1955년 34세에서 1997년 37세로 약간 높아졌다. 이는 인구구조의 성숙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 연령구조 변화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4)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영역에 남성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 지적할 수 있겠지만, 대분류수준에서의 전반적인 추세는 생산직을 제외하고 남성 직종에 여성의 참여폭이 커지는 점이 보다 우세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8>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남성) : 1955-1995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¹⁾	1990	1995
전체	35세	-	34세	34세	34세	35세	36세	37세	37세
전문직	32세	-	35세	35세	36세	36세	36세	36세	35세
관리직	31세	-	42세	42세	42세	42세	44세	43세	42세
사무직	27세	-	36세	34세	34세	33세	34세	35세	35세
판매직	37세	-	37세	36세	36세	36세	38세	42세	42세
서비스직	30세	-	30세	31세	33세	35세	37세	39세	46세
생산직	36세	-	27세	31세	31세	31세	33세	34세	36세
농·임·수	35세	-	35세	33세	37세	42세	46세	50세	54세

주 : ¹⁾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먼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경우 1955년을 예외로 간주하면 그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연령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이들 직종은 젊은 층이 유입되고, 나이가 들면 유출되는 구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타 직종에서는 유입구조나 유출구조상에 변화를 겪었음을 나타내준다. 판매직의 경우 보통 36-38세였던 중앙값이 1990년 이후 42세로 갑자기 높아진다.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중, 장년층이 판매직에 참가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서비스직의 경우는 1970년 이후 중앙값이 점차 커지더니 1990-95년사이 갑자기 39세에서 46세로 높아진다. 이는 젊은층의 서비스 직종으로의 진입이 점차 줄다가, 1990-95년사이에 중,장년층의 서비스 업종진출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남성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1970년 이후 연령구조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1995년의 경우 남성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연령분포상 중앙값은 54세에 이른다. 젊은 층의 1차산업 진입이 매우 적다는 점과 1차산업종사자의 노령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생산직의 경우를 보면, 남성의 경우 1960년대, 1970년대 한때 연령이 줄어들다가 1980년을 고비로 점차 연령구조가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생산직에 유입되는 젊은 남성이 점차 줄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9>에서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의 경우도 전체 취업자 연령구조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약간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직종에 따라 연령구조의 변화양상이 크게 다르다.

<표9>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여성) : 1955-1995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¹⁾	1990	1995
전체	33세	-	33세	33세	33세	34세	36세	35세	37세
전문직	23세	-	26세	26세	26세	27세	27세	27세	28세
관리직	30세	-	39세	35세	42세	42세	42세	39세	35세
사무직	22세	-	23세	22세	22세	22세	22세	23세	24세
판매직	37세	-	39세	38세	37세	37세	38세	36세	36세
서비스직	21세	-	22세	22세	24세	32세	37세	38세	40세
생산직	28세	-	24세	22세	20세	21세	30세	29세	38세
농,임,수	37세	-	36세	37세	39세	43세	47세	51세	55세

주 : ¹⁾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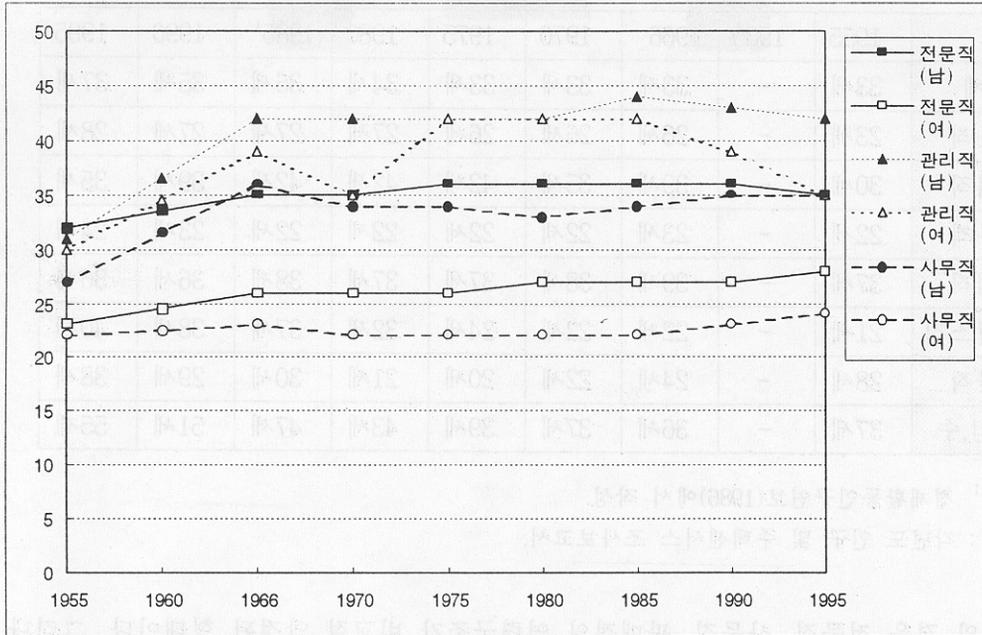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여성의 경우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의 연령구조가 비교적 안정된 형태이다. 그러나 관리직의 경우 기복이 매우 심하다. 결국 여성 관리직 취업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여성 서비스직의 경우는 1970년대 중앙값이 20대초반이었으나, 1980년, 1985년을 거치면서 급히 높아졌고, 1990년도에 들어와서도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성 서비스직종의 구성내용이 1970년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1980년이후에 크게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 농·임·수산업종사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를 겪고 있다. 또한 생산직 종사자의 연령구조변화도 이채롭다 1955년, 1966년에 걸쳐서는 연령이 낮아지다가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공업구조가 1960-70년대의 여성노동자 중심 경공업에서 1980년대는 남성중심의 중공업화 추세로 변했기 때문이며, 최근들어 나타난 급격한 연령상승은 젊은 층의 생산직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론된다.

동일직종내에서 나타나는 성별 연령격차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령격차가 없는 농,임,수산업종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 [그림3]과 [그림4]로 제시하였다.

먼저 [그림3]에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대해 살펴보자. 전문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령격차가 9-10세 존재하다가, 최근들어 7세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남성전문직 연령이 다소 줄고, 여성 전문직 연령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직내에 존재했던 성별 직종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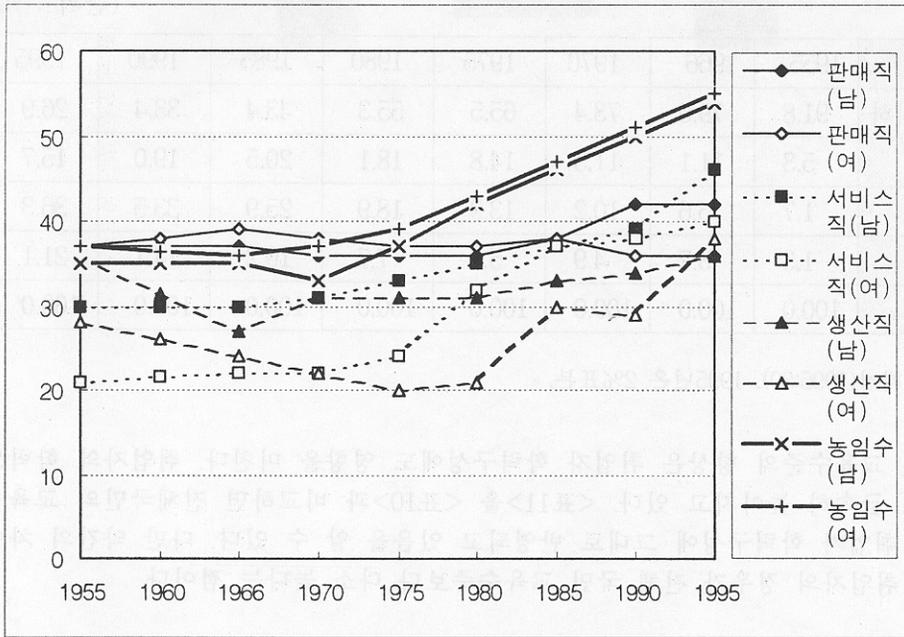
[그림3]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의 성별 연령격차 : 1955-1995



관리직의 경우는 성별 격차가 없는 해도 있고, 성별 연령격차가 갑자기 늘어나는 해도 있다. 이는 남성측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 비중이 작은 여성측에 그 변동요인이 있다. 즉, 여성관리직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부분적인 구성이 변해도 연령구조상에 큰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직의 경우는 1955년을 제외하면 10세 이상의 연령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연령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무직 종사자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사무직을 이탈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여성 사무직의 경우는 젊을 때 채용되어 일정 연령에 이르면 결혼 또는 기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의 경우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무직에서 관리직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및 서비스직의 자영으로 전직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림4]에서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의 성별 연령격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판매직의 경우는 1985년까지 여성이 1-2세 많았지만, 농·임·수산업을 제외하면 가장 성별 연령격차가 없는 직종이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남성 연령층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성별 연령격차가 새롭게 생기고 있다. 그 반대로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경우는 산업화 초기 성별 연령격차가 매우 컸으나, 그 이후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그림4] 판매직·서비스직·생산직 종사자의 성별 연령격차 : 1955-1995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이 강화되면, 성별 연령격차가 커지고, 반대로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현상이 완화되면 성별 연령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결과는 사무직에서 성별 노동시장 분절이 가장 명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들어 남성 중,장년층의 판매직과 서비스직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나, 이는 역으로 이 부분에서의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현상이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직업별 학력구성의 변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사회이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 국민의 학력이 크게 높아졌다. <표10>을 보면 1955년에는 25세 이상 성인인구중 중학교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미만이었으며, 특히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1.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반이상이 고등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특히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1995년에는 20%를 넘게 되었다.

<표10> 국민 학력수준 변화추세 : 1955-1995 (25세이상 성인)

(단위 : %)

	1955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초등학교이하	91.8	79.6	73.4	65.5	55.3	43.4	33.4	26.9
중학교	5.3	11.1	11.5	14.8	18.1	20.5	19.0	15.7
고등학교	1.7	5.6	10.2	13.9	18.9	25.9	33.5	36.3
대학이상	1.3	3.7	4.9	5.8	7.7	10.2	14.1	2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1995:80). 1995년은 2%표본.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은 취업자 학력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취업자의 학력도 마찬가지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표11>을 <표10>과 비교하면 전체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이 취업자 학력구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취업자의 경우가 전체 국민 교육수준보다 다소 높다는 점이다.

<표11> 취업자 학력구성의 변화

(단위 : %)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³⁾	1990	1995
불취학	44.7	32.8	23.8	19.1	14.8	37.7	6.4	4.6
초등학교	39.5	42.7	43.6	43.0	34.3		18.5	15.1
중학교	7.3	20.1	26.4	31.4	43.1	21.1	18.2	14.2
고등학교	6.2					30.9	38.1	41.5
초급대학	2.4	4.4	6.1	6.5	7.9	10.3	4.7	5.1
대학이상							14.1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¹⁾ 중퇴자, 재학자를 각급학교에 포함시킴. ²⁾ 중퇴자 및 재학자는 제외시킴.

³⁾ 경제활동인구연구(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전체 취업자의 학력구성비는 25세이상 성인인구의 학력구성과 유사하지만, 직업에 따라 그 직종에 종사하는데 요구되는 노동력의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종별 학력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된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취업하

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수준의 미세한 차이는 직업대분류수준에서 보다 하위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단 일반적으로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로 양분하는 관습을 받아들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정신노동자 직업군에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이 포함되고, 육체노동자에는 생산직 및 농·임·수산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그리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그 중간적인 성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에 분석한 직업구성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정신노동자의 특성이 매우 강한 전문·관리직을 함께 묶고, 생산직 종사자와 농·임·수산업 종사자는 분리한 다음, 나머지 사무직·판매직·서비스직을 한데 묶어 학력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학력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12>) 이는 전체 취업자의 학력구성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문·관리직 종사자도 점차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관리직에 요구되는 학력수준이 처음부터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학력수준의 상승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경우는 대학이상 학력에서, 대학원이상의 고학력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12> 전문·관리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단위 : %)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³⁾	1990	1995
불취학	7.3	1.7	1.3	0.9	0.6	4.3	0.2	0.1
초등학교	19.0	6.8	7.4	5.7	2.4		1.3	0.9
중학교	12.3	45.0	39.3	34.1	31.3	5.3	3.0	2.3
고등학교	35.8					28.8	20.4	24.4
초급대학	25.7	46.5	52.0	59.2	65.7	61.6	11.9	10.5
대학이상							63.2	6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¹⁾ 중퇴자 및 재학자는 각급학교에 포함시킴. ²⁾ 중퇴자 및 재학자는 제외시킴.

³⁾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다음에 중간정도의 학력수준을 갖고 있다고 예상되는 사무·판매·서비스직종사자의 학력구성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표13>).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1966년에는 초등학교 학력자와 중·고등학교 학력자의 구성비가 비슷하였으나, 1990년까지는 점차 중·고등학교 학력자가 늘어난다. 그러다가 1990년이 넘어서면 초급대

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95년에는 대학이상 학력소지자가 20%가 넘게 된다.

그 동안의 사회변동과정에서 이들 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무, 서비스, 판매근로자가 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과정 정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인 학력인플레 현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13>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단위 : %)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³⁾	1990	1995
불취학	24.8	15.9	9.0	7.2	4.9	24.1	1.8	1.4
초등학교	41.7	38.1	35.0	31.1	22.8		10.4	9.1
중학교	12.9	36.2	43.5	49.0	60.7	19.0	14.5	12.7
고등학교	15.0					43.8	49.0	50.0
초급대학	5.6	9.8	12.5	12.8	11.6	13.0	6.5	6.0
대학이상							17.9	2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¹⁾ 중퇴자 및 재학자는 각급학교에 포함시킴. ²⁾ 중퇴자 및 재학자는 제외시킴.

³⁾ 경제활동인구연구(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표14> 생산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단위 : %)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³⁾	1990	1995
불취학	26.2	17.3	9.0	5.9	3.8	32.4	2.1	1.3
초등학교	53.9	50.6	48.1	44.9	34.6		16.1	13.6
중학교	11.6	30.2	39.9	46.3	59.3	33.6	28.9	22.4
고등학교	6.9					32.0	47.3	54.3
초급대학	1.1	1.8	3.0	2.8	2.2	2.1	2.8	3.4
대학이상							2.9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¹⁾ 중퇴자 및 재학자는 각급학교에 포함시킴. ²⁾ 중퇴자 및 재학자는 제외시킴.

³⁾ 경제활동인구연구(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한편 생산직 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단순노무자 등 블루칼라근로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1960년도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80%를 상회하였지만 35년이 지난 1995년에 이르러서는 15%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표14>).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1960년에는 불과 8%에 머물렀으나 1995년에는 6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 다소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의 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거리이다. 결국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중등학교과정 정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농·임·수산업종사자의 학력구성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표15>). 이들도 구성비에 있어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 1960년대는 90%이상이 초등학교졸업이하였으나, 1995년에는 그 비율이 68%로 줄어든다. 그러나 농·수·임업종사자의 경우 여타 직종보다 학력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왜냐하면, 농·수·임업종사자의 학력수준 증가는 고학력자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저학력자의 감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임·수산업에 종사하기에 필요한 직능수준으로 예상되는 중등학교 과정 정도의 교육·훈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2/3나 된다는 점에서, 농·임·수산업에 종사자의 교육수준은 예상보다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다.

<표15> 농·수·임업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단위 : %)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³⁾	1990	1995
불취학	55.7	46.0	38.9	32.7	32.6	75.2	24.4	22.3
초등학교	37.2	44.1	49.0	51.4	47.7		45.9	46.1
중학교	4.6	9.4	11.5	15.3	19.2	13.8	15.9	15.8
고등학교	2.1					10.0	12.1	13.6
초급대학	0.4	0.5	0.6	0.6	0.5	0.9	0.7	0.7
대학이상							1.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중퇴자 및 재학자는 각급학교에 포함시킴. 2) 중퇴자 및 재학자는 제외시킴.

3)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6.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의 구성변화

직업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는 바로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의 감소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농업 등 1차산업이 주로 가족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홍두승, 1983c: 68-69).

<표16>을 보면 1960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봉급근로자가 아닌 고용주,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가 78%였으나, 1995년이 되면 이들의 비율이 40%로 감소하고 있다. 직업구조의 변화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업활동 내용면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직업과 관련된 인간관계면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한 것이다. 임금·봉급 근로자의 증가는 직업생활이 조직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사회가 조직사회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표 2-15> 종사상의 지위 구성비 변화¹⁾

(단위 :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고용주	47.5	40.5	1.8	2.8	4.0	31.3	5.4	7.3
자영업주			33.0	28.0	31.4		24.2	22.1
가족종사자	30.9	27.3	26.2	28.5	21.1	14.6	10.6	10.7
임금·봉급근로자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¹⁾미상 및 군인(1960, 1995)제외,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한편, 직업에 따라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다르다(<표17>). 사무직 종사자는 1960년이래 현재까지 95%이상이 임금·봉급근로자이며, 전문직의 경우는 대체로 85%정도가 임금·봉급근로자이다. 그리고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경우도 종사상의 지위구성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필동·김병조(1995) 참조.

<표17> 직업별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의 변화¹⁾

(단위 :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전 체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전문직	85.7	86.2	-	84.6	85.6	85.8	86.1	85.8
관리직	23.1	59.4	-	38.8	37.2	20.2	13.4	39.7
사무직	97.8	96.7	-	97.5	97.2	97.9	98.5	95.4
판매직	8.6	13.5	-	20.7	17.7	21.3	35.2	43.8
서비스직	86.5	78.9	-	66.8	58.3	56.0	55.3	54.5
생산직	57.3	74.1	-	96.2	78.6	85.6	86.2	79.4
농, 임, 수	6.6	9.2	-	8.8	3.1	10.8	3.3	3.6

주 : ¹⁾미상 및 군인(1960, 1995)제외, ²⁾ 경제활동인구연보(1986)에서 작성.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미상제외

그러나,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점차 비슷해지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판매직 종사자의 경우 1960년에는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10%에 못미쳤으나, 1980년대 20%정도가 되었고, 1990년 이후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가족구성원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영세자영업주의 입지가 최근 들어 급격히 좁아져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반대로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1960년 86.5%가 임금·봉급근로자였으나, 그 비율은 1980년에 58.3%로 줄어들다가, 그 이후는 55%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 근로자가 산업화초기 생산직 및 사무직 종사자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낮아졌으나, 1980년 이후에는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 이후에도 서비스직에서의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이 정체하고 있는 점은, 판매직과는 달리 대형업체가 개인서비스업에는 아직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16) 도·소매업의 대형화 및 영세소매업의 위축에 대해서는 홍두승(1997)참조.

7. 정보화 추세와 직업구조의 변화

앞에서 1980년대 후반이후, 특히 1990-95년간에 직업구조의 변화추이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몇군데에서 지적되었다. 1960년이후 진행된 직업구조의 변화가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에 따라 나타났다면, 1990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보화 추세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시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이다(Castells, 1996; Dordick and Wang, 1993 등).

직업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보사회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Castells, 1996: 203-4). 첫째, 생산성 증가의 원천은 지식의 생산에 있으며, 이는 정보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둘째, 경제활동이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행하게 된다.¹⁷⁾ 셋째, 새로운 경제활동은 고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직업을 더 중요시하므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기술직이 다른 직업군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새로운 사회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이러한 주장을 관리직, 전문직의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이에 관련된 직업이 늘어나게 된다.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등을 정보직업군(informational occupations)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들 직업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분배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중은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가들에서 1990년대 초반에 전체 노동력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Castells and Aoyama, 1994:21).

한국의 직업구조에서 주요 정보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0%미만에서 1995년에는 약 15%정도로 증가하였다(<표18>). 이는 일본의 1990년 수준으로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18> 정보직업군의 크기

(단위 : %)

	한국(1990)	한국(1995)	미국(1991)	일본(1990)
전문·기술직	7.5	10.5	16.9	11.1
행정·관리직	2.1	4.3	12.8	3.8
합	9.6	14.8	29.7	14.9

자료: Castells and Aoyama (1994).

17) 그러나 정보화와 서비스 부문의 확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필요가 있다. 제3세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삼차화(over-tertiarization)는 정보화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직과 같은 주요 정보직업군외에도 광의의 화이트칼라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도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성장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급자족적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줄어들고 시장을 위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분배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판매직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수송, 통신, 신용거래의 확산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어 왔고 새로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판매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늘어나는 정보의 기록, 처리 및 저장에 필요한 사무직 노동도 증가하였다. 사무직은 5년사이에 약간 감소되고 있으나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업분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와 더불어 전문직, 관리직에로의 여성들의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남성은 전문직과 관리직을 지배적으로 차지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하위 화이트칼라 직종과 판매직, 서비스직, 그리고 교사와 간호사 같은 소위 “여성 전문직”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게 된다.

<표19>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직의 여성화는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직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5년의 직업구조에서 여성은 사무직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여성노동력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요컨대 정보화에 따라 전문직·관리직의 확대와 더불어 고학력 노동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 전문직·관리직에 대한 여성들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무직으로 여성들이 몰림에 따라 사무직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9> 직업별 성별 구성 1990-95

(단위 : %)

직업	1990		1995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전문·기술직	62.4	37.6	60.4	39.6
행정·관리직	96.7	3.3	95.0	5.0
사무직	65.9	34.1	60.4	39.6
판매직	64.4	35.6	46.5	53.5
서비스직	48.1	51.9	52.0	48.0
농림수산업	55.8	44.2	52.2	47.8
생산직	79.5	20.5	81.3	18.7
전 체	66.5	33.5	64.6	35.4

한편 정보사회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화사회에서는 전체 산업구조에서 “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던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1,2차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자체내 매우 다양한 성질의 산업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분배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라는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한 싱겔만(Singelman, 1978)의 유형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분배서비스(distributive service)는 도·소매업, 통신, 수송을 지칭하고,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는 경제에서 결정적인 입력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정부의 모든 활동과 집합체적 소비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며,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는 오락에서 음식에 이르는 개인적 소비와 관련된 것이다.

<표20> 산업부문별 종사자비율

(단위 :%)

	한국(1990)	한국(1995)	미국(1991)	일본(1990)
추출 및 제조	51.6	48.9	28.2	40.9
분배서비스	19.9	21.2	20.6	24.3
생산자서비스	5.3	7.9	14.0	9.6
사회서비스	9.8	11.6	25.5	14.3
개인서비스	8.9	9.5	11.7	1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Castells and Aoyama(1994)

<표20>에서 1995년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로서 이는 1990년 일본의 60%, 1991년 미국의 70% 선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각부분이 모두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분배서비스 부문과 개인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홀(Hall, 1988)을 따라서 산업을 정보처리(information-handling) 부문과 재화처리(goods-handling) 부문으로 나누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수도 있다. 재화처리부문에는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 포함되고, 정보처리부문은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정부와 기타 잔여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995년 현재 비농업 부문에서 정보처리부문의 크기는 28.4%로서, 1991년 미국의 48.3%에는 크게 못미치나

1990년 일본의 33.4%에 접근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5년간의 정보처리부문의 확장추세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일본이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지만(Castells and Aoyama, 1994), 정보화의 추세를 반영해 주는 한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표21> 정보처리부문의 변화

(단위 :%)

	한국(1990)	한국(1995)	미국(1991)	일본(1990)
재화처리부문	74.9	71.6	51.7	66.6
정보처리부문	25.1	28.4	48.3	33.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출처: Castells and Aoyama(1994).

8. 맺음말

이상에서 지난 40년간 나타난 직업구조의 변화 및 구성상의 변화를 대분류수준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나타난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징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지적해야할 점으로 전체 직업구조가 남성 30-5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여성과 노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또한 15-19세이하 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둘째, 지난 40년간 직업구조변화상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농·임·수산업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다른 직종의 증가현상이다. 그러나 농·임·수산업종사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1990년이후에는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감소가 다른 직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전문직의 증가, 생산직 및 사무직의 감소 등이 여타 직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종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으로의 여성참여가 늘어났다. 특히, 전문직, 사무직에 여성참여가 늘어난다. 그러나 연령구성상의 변화로 보았을 때, 같은 직업분류내에서의 성별 업무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구구조 성숙을 반영하듯 전체 취업자의 연령도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종별로 변화유형이 크게 다르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경우는 연령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나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연령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다섯째, 사회전체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취업자의 교육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직종별 학력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전문·관리직 종사자와 농·임·수산업종사자간에는 극심한 학력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종사상의 지위를 통해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조직사회화가 급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는 생산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85년이후에는 판매직 종사자의 임금·봉급근로자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째, 한국사회에서 1990-95년간의 직업구조변화를 야기시킨 주요한 추세중의 하나가 정보화라는 것이 밝혀졌다. 주요 정보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이 확대되고 있다. 사무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문·관리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별 직업분절을 고려할 때, 사무직에서의 여성노동력의 증가는 정보화사회에서 사무직의 팽창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상으로도 정보화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지만, 정보의 생산, 처리, 분배와 관련된 서비스 부문의 확산과 정보처리 부문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 직업구조에 대한 매우 초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기본적인 내용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분류수준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직업분화과정 등이 분석되지 못하였다. 둘째, 1995년 자료가 표본자료인 탓으로, 특정 직업이나 직업군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다. 예컨대, 의료인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문제 등이다. 셋째, 연령이나 세대별 분석을 하지 못했다. 20대의 직업분포, 40대 남성의 직업분포 등에 대한 분석도 관심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변화가 극심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직업구조 내지 구성 변화에 대한, 향후 예측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밖에도 이론면에서나 방법론상으로 보다 발전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필동·김병조. 1995. “해방후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조직의 변화,”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4권(사회 편). pp.265-329.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이 건. 1997. “경제활동인구와 고용의 변화,”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1955-1990. 『인구및주택총조사 결과보고서』.
- _____. 1974.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
- _____. 1986. 『경제활동인구연보』.
- _____. 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1992』.
- _____. 1995.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 _____. 1997. 『1995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배포자료.
- 홍두승. 1983c.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pp.65-84. 현대사회연구소.
- _____. 1997. “사회발전과 직업구조의 변화,”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안치민. 1995. “해방 50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와 그 변화,”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4권(사회 편): pp.65-96.
- 홍두승 외 (1996)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MA:Blackwell.
- Castells, M. and Y. Aoyama (1994) "Paths towards the Informational Society: Employment Structure in G-7 Countries, 1920-90".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33, No.1.
- Dordick, H.S. G. Wang (1993) *The Information Society: A Retrospective View*. Newbury Park, CA: Sage.

Hall, Peter. (1988) "Regions in the Transition to the Information Economy" in G. Sternlieb et al.(eds), *America's New Market Geography*. New Brunswick, NJ: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Singelman, Joachim. (1978).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y: From Agriculture to Service Employment*. Beverly Hills, CA: Sage.

[요약]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

김병조
(국방대학원)

본 논문은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을 지난 40년간의 직업구조 및 내부구성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직업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인구주택총조사」 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단기간의 인력수급정책이나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지만, 「국민생활구조」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자료의 포괄성이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몇가지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지적해야 할 점으로 전체 직업구조가 남성 30-5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여성과 노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또한 15-19세이하 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둘째, 지난 40년간 직업구조변화상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농·임·수산업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다른 직종의 증가현상이다. 그러나 농·임·수산업종사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1990년이후에는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감소가 다른 직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전문직의 증가, 생산직 및 사무직의 감소 등이 여타 직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종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으로의 여성참여가 늘어났다. 특히, 전문직, 사무직에 여성참여가 늘어난다. 그러나 연령구성상의 변화로 보았을 때, 같은 직업분류내에서의 성별 업무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구구조 성숙을 반영하듯 전체 취업자의 연령도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

종별로 변화유형이 크게 다르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경우는 연령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나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연령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다섯째, 사회전체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취업자의 교육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직종별 학력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전문·관리직 종사자와 농·임·수산업종사자간에는 극심한 학력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종사상의 지위를 통해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조직사회화가 급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는 생산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85년이후에는 판매직 종사자의 임금·봉급근로자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째, 한국사회에서 1990-95년간의 직업구조변화를 야기시킨 주요한 추세중의 하나가 정보화라는 것이 밝혀졌다. 주요 정보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이 확대되고 있다. 사무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문·관리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별 직업분절을 고려할 때, 사무직에서의 여성노동력의 증가는 정보화사회에서 사무직의 팽창을 보여주는 한 지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상으로도 정보화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지만, 정보의 생산, 처리, 분배와 관련된 서비스 부문의 확산과 정보처리부문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